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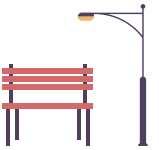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42000-000566-01

놀이실천을 위한 교사의 여정

교육부
충청남도교육청 CHUNGCHEONGNAMDO OFFICE OF EDUCATION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교사의 여정

놀이실천을 위한



본 자료집의 사진은 자료집 제작을 위해 구성된 것으로,
어떠한 용도로든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Prologue

삶과 죽음 뒤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오직 '이야기' 뿐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야기는 인간의 경험을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매순간 경험하는 사건, 인물, 행위, 감정과 정서, 의도와 생각 그리고 상황과 장면들은 모두 이야기로 구성된다. 이렇듯 우리는 매일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정서와 행위들, 경험한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삶을 깊이 존중하게 된다.

교사의 이야기는 더 나은 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어 강력한 힘을 지닌다. 교사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삶과 교육에 대한 의미를 형성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한다. 또한 다른 교사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의식과 마음이 일깨워져 새로운 관점과 변화된 시야를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우리는 교사로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경험을 통해 각자의

삶 속에 배어있는 개인의 실천적 지식을 표현하고, 우리의 교수 실천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교사로서 살아가는 일상의 경험들과 그에 대한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야기는 나 자신과 우리가 겪었던 것들, 우리의 인식, 세계관 등을 전해줌으로써 '우리'에게 공감과 울림을 선사하게 된다.

놀이중심교육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교사들의 이야기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아들과 함께 놀이하고, 배움을 지원하며, 성장해가는 교사들의 그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서로 위로받고, 용기를 얻으며, 놀이와 배움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 속에야말로 우리들 모두가 가진 고민들이 담겨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멈출 수 없었던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묻어있으며, 무수한 좌절과 더 큰 보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지나간 경험을 토대로 지금의 이야기를 만들고 이후의 경험을 이끌어낸다." 는 Dewey의 주장처럼 개인의 경험은 연속적이며, 개인의 이야기는 타인의 경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양한 놀이 활동 목록집을 소개하는 형태가 아닌, 놀이중심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여러 교사들의 성장 이야기야말로 우리들을 보다 의미 있는 앎과 용기 있는 실천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이 자료를 개발하게 된 목적이다.

교사들의 놀이 성장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장의 교사들이 놀이중심교육에 대해 다시 성찰해 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놀이중심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자료 개발을 위한 첫 만남에서도 여섯 명의 선생님들은 놀이중심교육에 대해 서로 다른 수준과 범위에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글을 다듬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조절해 나가면서 놀이중심교육에 대한 공동된 이해를 생성할 수 있었다. 이 자료가 놀이중심교육에 대한 보다 풍성한 담론이 만들어지고, 그 의미를 보다 확장시킬 수 있는 자료로 쓰이길 바란다.

둘째, 현장의 교사들이 혼자 또는 함께 이 자료를 읽으면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거나 불편한 시선을 보내기 보다는 놀이교육실천 이야기 속에 전해지는 다양한 감성과 감동을 공유하길 바란다. 이 자료를 이야기 형식으로 개발하고자 했던 이유는 모든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놀이 성장기 이야기 속에는 고민, 어려움, 실패, 좌절, 갈등, 시행착오, 치유, 열정, 희망, 웃음 등의 메시지가 내재되어 있다. 이 이야기가 교사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머리와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기를 기대한다. 그리하여 교사들이 놀이중심교육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성장하는 힘을 얻어 한걸음 더 크게 나아가기를 바란다.

다음은 여섯 편의 교사들의 놀이 성장기에 대한 짧은 안내이다.

1장 『소소하지만 행복한 우리들의 놀이 속으로』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예측되고 계획대로 진행되어야만 좋은 수업이라고 여겼던 초임 시절과 교사가 제공한 화려한 놀이에 취해 유아들의 진짜 놀이를 모른 척 하던 시절에 대한 정효진 교사의 회고와 반성이 담겨있다. 그리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비로소 찾아낸 정교사의 놀이중심교육에 대한 의미, 그를 통해 얻게 된 행복이 잔잔히 녹여져 있다. 정교사는 이렇게 말한다. 어쩌면 놀이중심교육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하기가 아닌 많은 것을 내려놓을 용기일 지도 모른다고…

2장 『'진짜 놀이'를 찾아가는 교사와 유아들의 이야기』는 아무리 애써도 제대로 되는 것 없어 늘 부족했었다는 이수연 교사의 뼈아픈 실패담들로 시작된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아지리라 꿈꾸었고, 꿈꾸었던 만큼 부단히 노력했던 이교사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교사는 그 무엇보다 유아들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김으로써 그들의 놀이와 삶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고, 공감하며, 함께 성장했노라 회고한다. 그러나 여전히 이교사는 '놀이 친구인 척 하지만 언제나 나는 어른일 뿐' 이라고 자기고백하며, 아이들과 함께 하는 교실에서 더욱 즐거울 내일을 만들어가길 꿈꾸고 있다.

3장 『저마다의 결대로 행복한 바깥놀이』에는 교실 안이 아닌 바깥이 주 무대가 되는 놀이 주인공들의 동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리고 바깥놀이에서 만나는 햇살 한 줌, 시원한 바람이 큰 위로가 되었노라고, 바깥세상에 나와서야 비로소 아이들과 접속하게 되었다고 겸손하게 말하는 김수옥 교사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김교사는 농촌이라는 환경이 결핍과 제약이 아닌 성장과 비상의 공간이라 여기고, 유아들의 놀이를 전폭적으로 믿고 응원한다. 김교사는 오늘도 더 넓은 세상으로 아이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신나고 경쾌한 행진곡이 울려 퍼질 것만 같다.

4장 『놀이에서 보물찾기』에는 퇴근하고 나서도 유아들과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새어나오는 웃음을 어찌할 바 모를 정도로 행복하다는 임자옥 교사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임교사 학급의 유아들은 선생님과 함께 하는 모든 순간을 사랑하고, 학급의 부모들은 선생님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끊임없이 전한다. 사실 임교사는 몇 해 전까지도 교사로서 심한 무기력감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녀가 다시금 행복을 찾게 된 비밀은 4장에서 서서히 풀어질 것이다.

작은 팁을 미리 알려준다면 이것이면 족할 것 같다. 임교사는 이렇게 회고한다. 모든 순간이 놀이였다고……

5장『똑똑, 너의 놀이에 들어가도 되겠니?』에는 오늘 하루 정말 유아들과 행복하게 놀았었는지 고민하고 반성하던 김민정 교사가 함께 근무하는 교사들과 '진정한 놀이'에 대해 함께 성찰하고, 실천하였던 이야기가 담겨있다. 김교사는 다른 교사들과 '함께', '즐겁게' 유아들의 놀이를 자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였고, 때로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교사는 그 모든 과정이 즐거웠다고 회상한다. 유아들과 놀이의 힘을 믿고 응원하며 묵묵히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우리'의 열정을 믿기 때문이란다. 김교사와 동료들은 오늘도 문을 두드린다. 똑똑, 너의 놀이에 들어가도 되겠니?

6장『일터를 놀이터로 만드는 선생님들』에는 할머니가 되어서도 유아들과 놀 수 있는 힘을 가진 원장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유아, 교사, 학부모와 함께 신나게 놀이하고 있는 한선희 원장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한원장은 몇 해 전 유치원의 생존이 걸릴 만큼의 커다란 운영위기를 겪었고, 그 당시 무척 외로웠다고 회고한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외로움을 충만감으로 변모시킨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 진심, 존중, 성장, 열정, 위로, 나눔… 그 많은 귀한 것들 중 딱 하나만 꼽으라 했을 때 그녀는 '놀이'라 말한다. 놀이를 통해, 놀이 안에서 '우리는 더 나아지는 중'이라고 담담히 주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자, 우리도 놀자!'고 당당히 외친다.

김 호(경인교육대학교)

자, 교사들의 놀이성장기를 함께 읽으며,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해보길 바랍니다.

Contents

프롤로그

소소하지만 행복한 우리들의 놀이 속으로 _____ 정효진

놀이가 놀이답게 빛나기까지 • 014
꽃보다 예쁜 놀이 속의 느낌 • 023
놀이 속,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 026
비가 오면 비와 함께 노는 아이들이기에 • 029
전래동화 속 계모가 되지 않기 위해 • 032
삶과 맞닿은 아이들의 소중한 놀이 • 038
너희들의 시간, 너희들의 공간이기를 • 041
요 밝은 웃음 때문에 다른 꿈은 못 꾸겠다 • 046
궁금해 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면 좋겠다 • 050
기다림의 미학 • 053
용기 내어 보기를 • 059

"진짜" 놀이를 찾아가는 교사와 유아 — 이수연

교사로서 첫걸음을 내딛다 • 066
놀이 공간에서 자유를 찾다 • 070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다 • 077
우리 교실은 꿈꾸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 • 084
아이들과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다 • 090
유아들의 놀이 친구인 척 하지만, 언제나 나는 어른일 뿐… • 106

저마다의 결대로 행복한 바깥놀이 — 김수옥

바깥놀이, 유일한 위로의 시간 • 112
씁쓸하구나… 아이들의 고단한 삶 • 115
너도 꽃이었음을 이제야 알았네 • 118
바깥세상은 교과서 • 121
어떻게든 하고야 마는 아이들이니까 • 124
오감으로 체득하는 바깥놀이, 그래서 좋을 수밖에 • 126
바깥세상은 마을과 사람으로 이어지고 • 131
바깥에서 싹튼 호기심은 교실에서도 계속되고 • 137
매일 공들여 만나면 스며듦이 생기게 되니 • 141

놀이에서 보물 찾기 — 임자옥

'집에 가기 싫어!'를 외치는 그날을 꿈꾸며 • 146
선생님은 여섯 살 • 149
놀이에는 1등이 없다 • 154
버려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 156
스피드보다는 놀이 • 159
팽이의 변신은 무죄 • 162
모든 순간이 놀이였다 • 165
놀이에서 보물찾기 • 168

똑똑, 너의 놀이에 들어가도 되겠니? — 김민정

'함께'하는 시작 • 178
'함께' 갈 수 있는 길 열어가기 • 182
'놀이'가 자랄 수 있는 교실 만들기 • 189
'놀잇감'과 '놀이' 그 완벽할 수 없는 관계 • 196
내가 놀고 싶은 건,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 201
똑똑, 너의 놀이에 들어가도 되겠니? • 206

일터를 놀이터로 만드는 선생님들 — 한선희

이 흔들림은 위기일까? 기회일까? • 214
놀이! 그 삶에서 나를 만나는 선생님들 • 220
'놀이의 아름다움'을 찾아다니는 선생님들 • 224
위로라는 말로 놀이의 힘을 저장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 230
우리는 더 나아지는 중입니다 • 233

에필로그 • 238

소소하지만 행복한

우리들의 놀이 속으로

검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정효진**

때년 겪는 3월의 만남과 2월의 헤어짐이 버거워 이유 모를 두려움과 조바심에
방황하던 어느 날, 굳은 마음을 먹고 저널쓰기를 시작했다.
유아와의 상호작용까지 완벽하게 예측하고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어야만 좋은 수업을
할 수 있다고 자신했던 시절을 지나, 화려한 내 놀이에 취해 유아들의 진짜 놀이를 모른 척 하던
시절을 겪으며, 비로소 내가 찾은 놀이중심교육은 '존중'과 이어진다.

유아들의 놀이 본능을 존중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들 속에서 놀이중심교육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했다. 놀이 속 유아들의 느낌을 살피고, 놀이 속 몸 움음을 이해하고, 놀이와
유아들의 삶이 주고받는 큰 영향력을 느끼는 일, 결국 모두를 존중하는 방법이
'놀이'임을 깨닫는 가운데 놀이 속 유아들의 고 예쁜 웃음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기다림의 중요성, 시간과 공간을 유아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의 의미를
재발견 하게 되기도 했다. 모든 것은 아이들의 힘을 믿고 나의 힘을 뺐기에 얻은 행복이었다.
어쩌면 놀이중심교육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 하기가 아닌,
많은 것을 내려놓을 용기일 지도 모른다.

놀이가
놀이답게
빛나기까지

예정된 이별의 날, 아이들과 1년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성장'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다. 아이들 각자는 3월보다 어떤 점을 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다. 생각이 잘 안 나는 친구들에게는 "넌 놀이할 때 양보를 잘하게 된 것 같아.", "규민이는 처음에 정글짐 무서워했는데, 이제 높은 곳까지 순식간에 올라가잖아."라며 서로의 성장 내용을 찾아주는 훈훈한 모습을 보인다. 드디어 내 차례다. "음… 선생님은 뭐가 달라졌더라?"도저히 못 찾겠다는 척 묻자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선생님은 옛날보다 놀이를 잘하게 됐죠.", "맞아. 옛날에는 딱지치기도 잘 못하고 놀이할 때 좋은 생각도 잘 못했었는데."라며 선생님을 놀려댄다. "그러게. 선생님이 그랬었죠. 신기하네. 어떻게 잘 노는 선생님이 된 걸까요?"라는 내 질문에 아이들이 이구동성 "우리한테 배운 거죠~"서로 그 놀이는 내가 가르쳐줬고 그때 그 아이디어는 내가 줬다며 앞 다투어 으쓱댄다. 아이들 말이 맞다. 올해도 역시 아이들 덕분에 잘 놀고 많이 느끼며 크게 한 뼘 성장할 수 있었다.

돌아보니 이 일을 시작한지 어느덧 16년이다. 아이들의 생각을 이끌어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겼던 일주일치의 활동지를 찾고 동시, 동요판 몇 개를 미리 만들어 놓고 나면 '와~ 드디어 다음 주 수업준비 끝!'이라며 뿌듯해 하던 시절이 생각난다. 담임으로서 질서정연하게 학급운영을 잘하고 아이들을 일일 계획된 수업 속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교사의 모습이라 여겼다. 최고의 집필진들이 만들었을 활동지도서와 장학자료, 연수에서 소개해주는 각종 교육방법들을 그저 잘 조직하여 전달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 생각했다. 굳이 아이들에게 그 활동들이 어떤 의미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는 없었다. 모두들 내게 "오늘 무슨 활동을 했어요?"라고 물었을 뿐, "그 수업을 왜 하고 싶은 거예요?"라고 물어준 적은 없었으니 말이다.

여차저차 경력이 쌓이며 조금 더 계획적으로 경험을 선정하고 수업을 구조화시키는 것에 자신있어가던 교직 7년차 쯤, 나는 그간 본 적 없던 새로운 캐릭터의 선배교사를 만나게 되었다. 통통 튀는 본인의 성격만큼이나 늘 어수선하고 자유분방해보이던 그 선생님의 교실은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호기심을 갖게 했다. 가장 의아했던 건 작년 우리 반에서 내게 문제아 취급을 받던 송아가 선생님의 교실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음해 선생님과 같은 연령의 학급을 맡게 된 나는 연령별 특색활동이 있는 날마다 선생님의 수업을 자주 들여다 볼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 해 우리 만 3세 반들의 특색교육활동은 '놀이생각무지개'였는데, 놀이를 통해 다양한 생각을 펼쳐보게 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두 반이 함께 모여 어느 날에는 그냥 여러 종류의 다양한 줄을, 또 어느 날에는 다양하고 많은 휴지를, 하루는 곡식을 한가득 풀어놓고는 교실과 강당과 바깥놀이터를 누비며 등원해서부터 점심식사 전까지 놀이를 하는 것이었다. "뭐하고 놀게 하죠? 휴지에 물들이는

활동을 넣을까요? 한꺼번에 하면 위험하니까 반씩 나누어서 놀게 할까요?"등의 질문을 하는 내게 돌아오는 선생님의 대답은 늘 그냥 일단 모이자는 말뿐이었다. 넓은 곳에 한데 모인 아이들이란 당연히 흥분한 상태였고, 많은 양의 재료를 봤으니 더욱 무질서해졌다. "우리 이 긴 휴지로 놀아볼까요?"한 마디를 던지자 어쩌라는 건가? 쭈뼛대던 아이들은 이내 휴지 길을 만들고 휴지 옷을 만들며 휴지 눈송이를 던져 눈더미를 만들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그저 아이들이 쌓아놓은 눈더미에 들어가 휴지 괴물이 되기도 하고 미라가 되고 싶은 아이를 칭칭 동여매주는 일을 하며 깔깔댈 뿐이었다. 3시간 가까이 놀이한 후 다시 모여 앉아, 어떤 놀이를 해보았는지 그 놀이에서 무얼 알게 되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나누는 일만이 오직 내 눈에는 수업 같아 보였다. 아이들과 어떤 흐름으로 상호작용을 할지, 어떤 생각과 활동들이 나오게 할지 미리 계획하고 수업에 임하던 내게 선생님의 귀납적 접근은 낯설고,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무척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실에서 한 번도 자기 생각을 크게 표현하지 않던 민혁이가 지르던 흥분한 하이톤의 목소리였다. 민혁이는 당시 넓은 강당에 주어진 크고 작은 박스들로 길을 만들던 중이었는데 내게 정말 다급하게 "빨리 테이프 붙여주세요, 여기요! 빨리요! 여기도요!"라고 외쳐댔다. 부디 생각이 사라지기 전에 길이 이어지길 바라는 민혁이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져 나는 이리저리 뛰었고 민혁이는 완성된 길에 무척 만족스러워했다. 이 낯선 시간을 여러 번 함께하다 보니 아이들이 그 속에서 느끼고 있는 희열, 보여주는 주도적인 모습, 굳이 계획하지 않아도 이어져가는 아이들의 끝없는 놀이역량 등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고마운 경험들을 통해 나는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어하는 수업, 아이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줄 수 있는 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때마침 유아기에 접어든 딸과 함께 이런저런 놀이 체험전과 다양한 놀이센터를 다니며 갓 등장한 따끈따끈하고 신선한 놀이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후 몇 년 간 내가 맡은 학급에서는 다양한 놀이판이 많이 벌어졌고 더욱 새로운 놀이, 스케일이 큰 놀이들을 고민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문제는 욕심이 커지다 보니 주로 내가 창안한 놀이를 아이들이 하게 하고자 하는 형태가 되곤 했다는 것이다. 기억 속 한 가지 놀이를 더듬어보자면, 우리 동네 생활주제를 전개할 때의 일이다. 아이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공간 중 교실에서 재연하고 싶은 곳으로 기특하게도 키즈카페를 꼽았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의 가장 환상적인 공간일 테니 너무나 흥미롭다. 키즈카페 놀이를 하며 얻게 될 다양한 사회과학지식들과 즐거운 놀이를 통한 정서적인 만족감, 창의적인 모습들을 생각하니 내가 더 신이 났다.

"아, 키즈카페 놀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내일 어떻게 놀이할지 의논해보기로 해요."라고 말하고는 그 날 오후 내내 교실에 키즈카페를 어떻게

구현할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키즈카페에 갔던 기억을 떠올리고 인터넷에서 다양한 형태의 키즈카페를 검색해보았다. 교실에 대략 5개 코너 정도 구성 가능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러 여러 키즈카페에 있는 코너들 중 점핑방, 낚시놀이방, 변신방, 풍선방, 간식방을 선택하고, 어떤 코너를 어느 재료로 어떻게 구성해야겠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아이들과 키즈카페에 대해 함께 토의하긴 하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는 이미 교실에서하기에 가장 적절하고 이상적인 엄청 재미있는 키즈카페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런 내 행동의 기저에는 늘 아이들이 꽤 창의적인 생각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실현 불가능한 의견이기 마련이라는 편견이 숨어있었다. '아무래도 내가 창의적으로 준비한 방향으로 놀아야 아주 재미있게 놀 수 있지.'라는 자만심 또한 가득했다. 아이들이 내가 준비한 키즈카페 놀이를 정말 신나게 하고 키즈카페 운영진들이 되어 형님 반까지 초대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체험해 보도록 한 후에야 정말 해냈다는 느낌이 들며 만족하곤 했다.

보람되지만 어쩐지 피곤한 놀이중심교육으로 지쳐갈 무렵 육아휴직을 통해 긴 휴식기를 갖게 되었고 나는 새로운 유치원으로 복직하게 되었다. 휴직기간 동안 감을 잃은 탓인지 유난히 자유분방한 유아들을 만난 탓인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나는 신학기 학급관리라는 명분으로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했다. 빨리 학급이 안정되어야만 전처럼 나와 유아들이 즐거워할 화려한 놀이들을 펼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런 와중에 입학한 지 한 달 만에 학부모공개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날의 수업 장면은 교직을 시작한 후 내게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된다. '한 달여 동안 규칙을 강조했기 때문에 통제가 꽤 잘 되니 우리의 놀이를 보여줘도 되겠지.'라고 판단해서 계획했던 그 날, 부모님을 보고 흥분한 아이들은 전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제멋대로 움직이는 아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 마법 따위는 내게 없었다. 교사의 필요에 의해 급하게 억지로 세워진 규칙과 질서들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렸다. 공개수업 도중 자리를 박차고 교실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에 휩싸일 정도로 당황했고 몹시 괴로웠다. 이 사건 이후 나는 한동안 깊은 슬럼프에 빠지고 말았다. 아이들에 대한 원망과 함께 교육에 대한 의욕은 사라졌고, 더 이상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너희들을 신나게 놀게 해주기 위해 이 한 몸 부서져라 애쓰건만, 왜 너희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속상했다. 의구심이 함께 들기도 했다. 어쩌면 나는 남들이 하지 못할 훌륭한 놀이를 아이들을 위해 해냈다는 느낌, 내 놀이에 혼자 취해있던 것은 아닐까? 누구를 위한 놀이였던가… 화려한 놀이의 이면에 있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놀지 않는 아이들에 대한 서운함과 불편함, 내 놀이를 망치는 아이들에게 내가 했던 질책들이 떠올랐다.

그나마 늘 멘토로 여겨오던 선배선생님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버텨나갈 수 있었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 애쓰던 선생님은 내게 "아이들과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고 들어봐요."라는 조언을 했다. 무언가에 쫓기듯 조급해하는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던진 멘토의 말은 나로 하여금 아이들의 눈빛을 살피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게 했다. 수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저 필요한 일에 도움을 주는 역할만을 하며 아이들 곁에 있던 시간은 한 달도 넘게 계속됐다. 선생님의 듣고자 하는 진심을 느꼈을까? 아이들은 서서히 곁을 내어주며 수다스럽게 자기의 이야기를 펼쳐놓기 시작했고 그저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에 흡족해했다. 늘 제안하고 이끌고자 했던 욕심을 버리고 아이들을 바라보니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달리 보였다. 연못에만 나가면 그토록 돌을 던지던 그 아이는 물고기를 괴롭히는 못된 아이가 아니었다. 힘차게 던진 돌로 인해 파장을 일으키는 물결을 바라보며 자신의 유능함을 느끼고 싶었을 뿐이었다. 바깥놀이 가기 전에 그렇게 약속해놓고는 자꾸만 물웅덩이를 밟아 내 신경을 건드리던 그 아이는 그저 참을성 없는 아이가 아니었다. 정말 심각한 내면의 갈등 끝에 "에잇, 아무래도 꼭 느껴봐야겠어!"라며 물웅덩이를 향한 큰 한걸음을 내딛은, 용기 넘치는 아이였던 것이다. 내가 정성껏 만든 자료와 함께 소개해 준 놀이를 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긴 놀이에 열광한다는 것. 아직 미술 안 한 사람 빨리 오라고 아무리 불러도 모른척하던 그 아이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대단한 몰입이 가능한 열정적인 아이라는 것… 보고자 하는 눈으로 보니 비로소 달리 보이는 많은 것들을 나는 깨닫게 되었다. 사랑하는 연인들이 그러하듯 내가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내게 무얼 원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게 되었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아닌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존중하고 싶어졌다.

아이들을 존중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졌다. 놀고 놀아도 또 놀고 싶은 아이들, 우리 모두도 하루 종일 놀던 그 시절의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던가. 단지 세월이 흐르며 무슨 일이 생겨 버린 건지 놀이가 주던 그 대단한 만족감과 가치가 모두에게 잊혀 졌을 뿐이다. 아이들의 놀이 하고 싶은 본능을 존중하고 놀이 성향을 존중하려 애쓰다보니 이후 나의 놀이중심교육에는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화려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지만 아이들과 나는 아주 편안하고 행복해졌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재미있게 놀고 싶은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재미있게 놀았는지를 느끼고 나누며 기뻐하는 일이 우리 반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아이들의 놀이를 기대하고 아이들과의 소소한 놀이 속에서 서로 감동하는 순간들로 채워가는 것,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더 놀이처럼 아이들이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 이것이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놀이중심교육이다. 화려하게 이끌던 대단한 놀이 이야기 대신 이 소소하지만 행복한 우리들의 놀이 일상 이야기 속으로 선생님들을 초대하고 싶다.

꽃보다
예쁜
놀이 속의 느낌

봄봄봄 봄이다. 나이가 든 걸까? 봄 생활주제가 시작되면 막 흥분이 되고 떨린다. 예쁜 봄꽃도 보여 주고 싶고 건강에 좋은 제철 음식들도 함께 먹어봐야한다. 봄 주제에 꼭 해야 할 다양한 활동들이 백가지도 넘으니 내 마음이 급하다. 운동장 끝 쪽 나무숲에는 벌써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단 말이다. "얘들아, 어서 봄을 찾으러 바깥놀이를 나가자꾸나. 저 운동장 끝 나무숲으로 갈 거야."라며 설레는 발걸음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몇 미터 가지 않아 아이들의 시선은 가는 길목에 있는 모래놀이터에 멈춰버렸고 아이들은 이내 모래놀이를 하자며 나를 조르기 시작한다. 요 꼬마 아이들에게 살며시 배신감마저 밀려든다. 지난 주말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공원을 거닐면서도 모바일 캐릭터 잡기에 여념이 없는 딸에게 "우리 반 애들은 달라! 꽃을 보면 얼마나 좋아한다고!"자신 있게 외쳤건만… 이게 뭐지? 함께 꽃 찾으러 가자며 바깥놀이 나가서는 아이들은 고작 삽 들고 모래파기에만 집중하다니.

블루투스 스피커로 '봄' 음악을 배경으로 깔아주고 "멀리 꽃나무 좀 봐봐! 저쪽으로 가볼까?"꾀어보지만, "선생님, 조금 만요~"조금만 더 놀잔다. 그래.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못 놀았으니 실컷 즐기렴. 슬프게도 나는 역시 낭만적인 사람이랑은 인연이 없나보다.

결국 원하는 대로 실컷 모래놀이만 하다가 교실로 돌아왔다.

"바깥놀이를 하면서 봄을 느낄 수 있었나요?"기대감 전혀 없는 나의 질문에,

"봄바람이 느껴졌어요. 등이 따뜻했어요. 모래놀이터에 있던 민들레꽃이 아직 키가 작은데 봄비가 내려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느낌을 쏟아낸다. 진짜 느낌…
나는 자꾸만 저 멀리 봄을 보라고 했는데 아이들은 다가온 봄을 느꼈구나.
신나는 놀이 속에서도 아이들은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거늘
왜 나는 늘 조급하게 느낌을 집어넣어주고 싶을까.

다시 반성하며 아이들과 봄비이야기를 나눈다. 다른 계절에 내리는 비와는 달리 봄비에는 꽃처럼 예쁜 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맑은 이야기, 아이들의 생각 속 봄비를 닮은 색풍선을 급히 불어 주었다. 풍선을 빗방울 삼아 한 판 흥겹게 놀아본다. 풍선을 천장까지 던져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비가 온다고 좋아하는 아이, 풍선과 구르며 물방울이 튀긴다며 통통 튀어 다니는 아이, 빗방울을 받겠다며 뛰어다닌 아이들… 땀에 흠뻑 젖을 때까지 놀고 나니 이제 지쳤나보다. 풍선에 리본을 달아 천장에 걸어 달라고 한다. 아이들이 교실을 정리하는 동안 놀고 난 풍선들을 주렁주렁 걸어주었다. 아이들 말대로

정말 봄비 내리는 교실이 되었다.

"와~ 봄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봄비를 기다리는 새싹이에요."

꽃받침을 턱에 괸 아이들이 꽃처럼 예쁘게 웃는다. 이럴 땐 정말… 꽃보다 예쁘다.

놀이 속,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여름, 거품놀이를 준비한 날이다. 바깥놀이터로 나가 색거품으로 그림을 그리고 거품으로 놀잇감을 닦으며 놀 계획이다. 거품놀이를 하다보면 분명히 요 장난꾸러기들이 거품을 불어댈 테니 그나마 몸에 덜 해로운 유기농샴푸를 준비한다. 물을 보면 들어가고 싶어 할 테니 양말은 아예 벗고 가는 게 좋겠다. "하지 마세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자꾸 이러면 놀이 그만 할 거예요."이런 말들로 아이들이 생물학적 호기심과 선생님의 지시 사이에서 갈등하게 하고 싶지는 않으니 말이다. 역시나 대야 속의 장난감을 한참 닦으며 놀던 아이들은 혹시나 싶은 눈으로 묻는다. "선생님, 물속에 발 넣어도 돼요?" 호기심 가득한 반짝이는 눈빛, "그럼~ 그럴까봐 우리 양말 벗고 나왔지."

바지를 걷고 들어가 물속에서 실컷 첨벙대더니 이내 친구 발을 놀잇감 삼아 닦아주기 시작한다. 간지럽다고 코를 찡긋대면서도 싫지 않은 친구의 모습에 웃음이 난다.

"친구 발을 정성껏 닦아주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고 있는 선생님 마음까지 따뜻해진다."라고 말을 건네자, "선생님도 닦아줄까요?"묻는다. 다정한 말에 이끌려 부끄러운 발을 내밀었다. "선생님 발은 왜 이렇게 커요? 여기 다쳤어요? 아프겠다." 상처 난 발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아이의 엄마를 닮았다. "나는 엄마가 발 닦아주는데 선생님도 원래 엄마가 닦아줘요?" 쫑알쫑알 뭐든 신기해하는 그 밝은 목소리는 음악처럼 들렸고 아플까봐 살살 간질이는 작은 손에 크나큰 위로를 받았다. 흔한 페디큐어 하나 받지 못한 크고 둔탁한 발에 달라붙어 나도 닦아주겠다며 앞 다투는 아이들, 마음을 주면 주는 만큼 알아내는 내 강아지들이다.

발을 닦을 물도 있겠다, 아이들은 물로 인해 만들어진 놀이터 웅덩이를 맨발로 활주하며 흙발놀이를 즐기기 시작했다. 그래, 이왕 더러워진 발, 마음껏 놀이하렴. 흙발이 되어버린 아이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며 말 걸어본다. "시원하지? 선생님이 사랑하는 마음은 느껴지니?"아이들은 틈만 나면 무릎에 앉아있고 기회만 되면 안기어 볼을 비빈다. 나 좀 쓰다듬으라며 몸을 들이밀기도 한다. 애정을 담은 어루만짐은 부드러운 이야기보다도 강한 힘을 발휘한다. 몸 닿기 싫어하는 것이야 개인의 성향일 수 있지만, 교사는 어루만짐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늘 무언가를 만지거나 서로 몸을 부대끼며 놀이한다. 관심을 끄는 것을 반드시 손으로 만지고 느껴 보며 그렇게 세상을 하나씩 배워 나간다. 때로는 만지는 행동 때문에 위험해지기도 하고, 친구 간에 잘못 닿거나 조절이 안 되는 힘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더욱 위험해 보이는 아이들의 놀이, 언제부턴가 나는 "아무거나 만지지 마세요. 친구 몸에 닿지 않게 하세요. 친구 몸 만지는 거 아니에요."라며 아이들의 놀이 속 스킨십을 제지하곤 했다. 만지지 않고 닿지 않으며 노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알면서 말이다. 바로 세운 마음으로 다시, 열린 마음으로 다시, 나는 아이들에게서 몸 닿음을 배운다. 그리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가르친다. 부디 놀이 속 위험에 신경이 곤두설지라도, 나와 함께, 친구와 함께 나눈 놀이 속 온기가 펼쳐 나갈 세상에 대한 신뢰의 싹이 되어주기를 소망한다.

비가 오면
비와 함께 노는
아이들이기에

비가 온다. 비가 오면 더욱 방방 뛰는 아이들이다.

바깥놀이는 포기하고 동극이나 하자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외친다.

"선생님! 비가 그쳤어요. 빨리 나가요."

반가운 마음에 현관 앞에 나가보니 "아닌데,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걸?" 하늘 무너진 듯 아쉬워하는 아이들 얼굴을 보니 어쩔까 고민이 된다. '그래, 우산이 없으면 나눠 쓰면 되고, 동극은 꼭 교실에서 가면 쓰고 하란 법 있나, 나가서 배경을 누리지 뭐.' 비가 와서 질척거린다고 나가기 싫어하는 것은 이 교실에 어른인 나뿐이다. **아이들이야 언제나 비가 오면 비와 함께 놀고, 눈이 오면 눈과 함께 노는 긍정적인 존재들이니 말이다.**

아무도 없는 고즈넉한 운동장을 고운 우산부대가 거닌다. 우산을 든 터라 다른 날보다 늘어진 한 줄로 산책한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미끄러질까 조심조심 걷느라 차분한 산책길. 우산을 나눠 쓰는

귀요미들이 비를 맞지는 않을까 살피느라, 나는 앞장서되 뒤돌아 걷는다. 장화를 신었으니 웅덩이를 첨벙대고 싶을 텐데 샌들을 신은 친구를 위해 옆길로 함께 가주는 귀요미가 보인다. 우산을 빌려 쓴 귀요미는 우산을 드느라 손이 자유롭지 않은 친구를 위해 주운 열매를 주머니에 넣어주기도 한다. '서로 챙겨주는 모습이 눈물 나게 아름답구나.'라며 떠들고 싶었지만, 둘만이 나누는 교감을 방해할까봐 모른 척 해야 했다.

교실에서 듣고 나온 동화를 회상하며 산책길의 큰 웅덩이를 배경삼아 '야, 웅덩이다!' 동극을 했다. 주인공과 관객의 구분도 순서도 없이 나 하고 싶을 때 들어가면 되는 엉터리 동극이지만 모두가 즐겁다. 생각해보니 얼마 전 '모자장수와 원숭이'동극을 즐기던 날도 꼭 그랬다. 구름사다리에 올라 끽끽끽 원숭이 흉내를 내던 아이들에게 "하하, 너희들 꼭 나무 위에 올라간 원숭이 같아."라고 던졌던 한마디에 시작된 즉흥동극, 교실에서 배역을 정하고 약속을 의논하고 무대배경과 소품을 준비하느라 한참 걸렸던 그 때보다 훨씬, 아이들은 동화 속에 푹 빠져 구름사다리 위에서 모자를 던지며 즐거워했었지. 교사의 진행 따위는 필요 없이 동극도 놀이처럼 바깥놀이 시간 내내 한참을 하던 아이들이다. 더 즐기고 싶었을 텐데 우산 없이 비 맞으며 걷는 선생님을 위해 그만 교실로 들어가잔다. 대신 다음부터는 선생님도 꼭 우산을 가지고 나오라는 훈계도 잊지 않는다. 20대의 비 오던 날, 갑작스레 내린 장대비에 베네치아 한복판을 소리 지르며 달리던 추억이 떠오른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짓은 못할 테니 남들 보란 듯이 부리던 객기다. 신나게 더 새롭고 더욱 특별해야 추억이 되리라 믿었던 나이였다.

지금의 난,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즐거워하는 아이들과의 빗 속 산책놀이에 의미를 부여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낀다. 앞으로 한 10년쯤은 더 이런 산책에 감사해하며 살고 싶다. 아이들도 그러하길 바란다.

화려하고 다양한 자극적인 놀이도 좋지만 함께 하는 하루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며 즐기는 이런 소소한 놀이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전래동화 속 계모가 되지 않기 위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 현장체험학습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체험학습이란 말을 붙여 교육적 의미를 강조하지만 우리 반 아이들에게는 1년에 고작 2번뿐인 즐거운 소풍날이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신나게 노는 날, 유치원이 아닌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날, 달력에 표시해놓고 한 달 전부터 기다리던 날이다.

우리 반 아이들은 유독 심한 지각이 잦다. 작년 현장학습 때도 도윤이가 1시간 넘게 지각했었다는 소문… 난 절대 그렇게는 기다려 줄 수 없으니 문자를 보내야겠다. 올해 학부모와 소통이 많지 않다보니 현장학습 전 날 지각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조차 어떻게 보낼까 고민이 된다. 시간엄수, 정시출발, 늦지 말아주세요…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쓰기로 했다. "즐거운 현장학습 날, 아이들이 차 안에서 긴 시간 대기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때문에 내일은 늦은 친구를 기다려줄 수 없을 것 같아요. 8시 50분까지라고 생각하시고 준비 부탁드려요."

진심이 통해서일까? 8시 50분까지 모두 도착했다. 파란 티셔츠를 맞춰 입고 온 아이들 모습이 무척 시원해 보인다.

9시에 버스에 탑승하기 시작하고 기분 좋게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이 엄마가 올라타신다. "선생님, 사실은 진이가 아침에 열이 37.8도여서 해열제를 미리 먹이고 왔는데, 보내도 될지 모르겠어요."맙소사… 진이는 열이 나면 위험한 아이라서 난 올해 열성경련 시의 응급처치요령을 숙지하고 산다. 어린이집을 다닐 때에도 열이 급하게 오르며 경련이 일어나 응급실에 실려 갔던 일을 겪었던 아이다. 미리 상의한 것도 아니고 출발 직전에 올라타서 이런 얘기를 하시다니 너무나 당황스럽다.

"진이어머니, 제가 다른 아이들 같으면 그 정도 열이면 괜찮다고 데리고 가겠는데, 진이 열나면 위험한 거는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장소가 외곽이고 들어가는 도로도 시내 같지 않은 곳인데 응급차량이 빨리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후가 되면 열이 더 오르기 쉬운데 오늘 도착예정시간도 평소보다 늦고요."아이를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 표정관리가 안 된다. 이어지는 진이엄마의 질문이 황당하다. "선생님, 체온계는 가지고 가시나요? 해열제는 있으세요?"휴… 그렇게 걱정되면 본인이 챙겨서 넣어주셔야지 그걸 나한테 묻고 있다니 너무 어이없다. 옆 반 선생님도 화가 난 말투로 출발시간이 지연되었다며 빨리 결정하시라고 재촉한다.

그런데 나도 참… 체온계와 해열제를 챙겼는지 모르겠다. 담당자가 챙겨준 응급처치용가방만 들고 탔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안 해본 게다. 다행히 옆 반에 해열제 가져 온 애들이 3명이나 되어서 체온계는 챙기셨다고 하니, 해열제는 보통 학부모님이 챙겨주시는 거고 임의로 먹이기 힘들다는 말로 둘러대는데 얼굴이 많이 화끈거린다. 엄마도 걱정이 되는지 진이 벨트를 풀며 내리자고 하는데, 진이가 가고 싶다며 울먹거린다. 엄마는

"선생님,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보낼게요."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내려버렸다.

버스가 출발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화난 마음이 조금씩 진정이 된다. 엄마인 나도 가끔씩 딸의 울먹임에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할 때가 많으니까… 기대하던 현장학습이니 얼마나 가고 싶었을 것이며 얼마나 보내고 싶었을까. 38도 넘는 건 아니니까 엄마도 판단하기 힘들었을 거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하니 내 잘못도 참 크다. 담당자가 아니라고 너무 편안하게 몸만 온 듯하다. 약품도 다시 확인해야 했고 현장학습 장소에서의 응급처치 및 병원연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응급약품 확인하고 가까운 병원 위치 검색을 마치고 차분한 마음으로 진이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이어머니, 어린이용 해열제가 있네요. 열 체크 수시로 하고 열이 나게 되면 이거 먹일게요. 판단해서 보내신 거니까 이제 저한테 맡기시고 너무 걱정 마시고 계세요. 혹시라도 응급상황 생기게 되면 어머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조치하겠습니다."내 눈치를 자꾸만 보는 진이에게 미안하고 안쓰럽다. 괜찮아, 아프면 선생님이 도와줄게. 단단히 마음을 먹어본다.

현장학습 장소에 도착해서 열 체크를 다시 하고 진이엄마에게 이상 없다는 문자를 남겼는데 답장이 온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나 싶어서 현장학습 장소에 와있어요. 여기서 기다리다가 집에 갈 때는 제가 데리고 가도록 할게요."진이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코끝이 찡해진다. 교사를 힘들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었고 다른 아이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마음 또한 아니었다. 그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을 텐데, 나는 왜 그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고 그렇게 정색을 해야 했을까.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어 열 기운을 참으며 내게 온 진이는… 짜증을 드러내던 내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날씨는 너무 좋고 아이들도 정말 신나게 논다. 피자 만들기가 끝날 때까지는 모든 것이 좋았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니 민지가 울기 시작한다. 아직 언어발달이 늦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 소변보는 것이 힘들어서 기저귀를 차고 온 민지. 엄마를 목 놓아 부르며 남은 시간 내내 울어댄다. 도우미선생님과 앉아있으라고 해도 내가 시야에 있어야 안심이 되는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운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신나게 놀고 싶은 아름다운 곳에 와서 민지의 울음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이 상황이 참 싫다. 아이가 이럴 것을 어느 정도 예상했을 텐데 왜 민지 부모님은 굳이 현장학습을 보내는 건지 야속하기까지 하다.

그렇게 울어대던 민지는 돌아오는 버스에서 잠이 들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버스에서 내리는 민지를 민지엄마가 반기신다. "선생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라며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는 민지엄마에게 나는, "민지어머니, 오늘 민지는 즐겁지가 않았어요. 계속 울면서 쫓아다니느라 힘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민지만 챙겨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더 힘들었겠죠. 유치원을 벗어나서 낯선 장소에 있다는 게 민지에게는 많이 무서운 일이었나 봐요, 즐거운 경험을 하려고 간 건데 민지 마음은 내내 힘들고… 그걸 보는 제 마음도 힘들었고요. 다음 현장학습 때는 힘들지 않을 방법을 의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푹 쉬게 해주세요."너무 지쳐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버렸다.

집에 돌아온 이 시간, 내 마음이 편치가 않다. 나는 21명의 아이를 맡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만의 선생님은 아니니까, 너만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너에게만 신경 쓰면 다른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어. 합리적인 걸 좋아하는 성향의 나는 특히나 누구로 인해 피해 보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다보니 피해를 주는 일이 잦은 아이와 그 부모의 마음을 잘 살피지 못한다. 넘어진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가지 못하고, 나머지 아이들이 날 기다리다가 다칠까봐 라는 핑계로 넘어진 아이를 내버려두고 뛰어간다. 그렇게 가면 정말 아이들과 내 마음이 행복할까? 계속 울던 아이 모습이 눈에 밟힌다. 사진 찍던 손을 멈추고 민지의 손을 좀 더 오래 잡아주었다면 어땠을까. 회상해보니 울던 민지에게 "괜찮아?"라고 물어보는 친구 하나 없었던 것 같다. 내가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지 못하니 아이들도 민지에게 고운 말이 안 나왔을 것이다. 내게 맡겨진 진이와 민지를 잠시 버려두고 가고 싶어 하는 전래동화 속 계모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하니 괴롭다. 교사와 유아를 일대 다수라고 느끼는 건 나일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일대 일, 자기 자신과 선생님일 텐데… 오늘 진이와 민지에게 자신의 선생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키워주는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다짐은 늘 잠시, 교실에서도 난 견고히 쳐놓은 울타리 밖으로 탈출하며 내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다 함께 모여, 같은 활동을 동시에 해낼 때마다 자주 벌어지는 일이다. 지식 전달의 편리함과 더불어 '이렇게 모두 똑같은 것을 경험해야 오늘의 수업을 한 거지.'싶은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들을 모여 앉힌다. 하고 싶지 않아서 몸을 비틀며 억지로 하는 한 아이와 대충 해치우는 또 다른 아이를 모른 척 하며 말이다.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한숨을 짓고 방해하는 아이에게 경고를 주며 내가 하려는 수업들은 현장학습에서의 내 모습과 꼭 닮았다.

누군가가 귀찮아지고 누군가를 버리고 싶어지는 그런 수업이라면 이제는 내가 먼저 과감히 버려야 하지 않을까… 각자의 상황과 제 각각의 수준, 백가지의 흥미를 가진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의미 있는 하루를 보장하기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더 하고 무엇을 덜 해야 할까를 고민한다. 아이들 개개인의 시간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탐색 및 표현의 시간들을 좀 더 격려하려는 내 마음은 결국 '놀이'와 맞닿아 있음을 깨닫는다. 소중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방향, 아이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방향은 늘 '놀이'였다. 흥미를 따라가는 각자의 놀이와 서로의 생각과 소질로 어우러지던 우리의 놀이들,

놀이 속에는 버리고 가야만 하는 아이도 걱정거리이기만 한 아이도 없었다.
그런므로 놀이여야 하지 않을까.

교사인 우리는 당연히 아이들이 기뻐하는 수업을 하고 싶기에, '모두에게 기쁨이 있는 하루', 그 하루를 위해 나는 오늘도 아이들의 긴 놀이를 지지한다.

삶과 맞닿은 아이들의 소중한 놀이

하필 병원놀이를 즐겁게 한 그 날, 방과 후에 우리 반 웅이가 다쳤다. 담임인 내가 함께 응급실로 가서 상처를 봉합해야 했다. 몹시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오전의 병원 놀이 기억을 상기시키며 안심시켰다. "이 침대의자, 놀이할 때 너희들이 필요하다던 선생님 회전의자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치?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 웅이가 의사선생님 역할 할 때 했던 말이랑 너무 비슷한데?"아이와 나는 그 숨 막히는 긴장 상황 속에서도 병원놀이 장면을 떠올리며 웃을 수 있었다.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속상한 마음 한가득 이었지만 그래도 병원놀이를 한 날이라 참 다행이란 생각을 했다.

병원놀이를 한 그 날 오후, 우리 반 최고 겁쟁이 민이는 치과에 갔다고 한다. 지난 달 까지만 해도 치과 세 군데를 돌며 거부당할 만큼 악을 써대던 민이, 그런 민이가 충치 치료를 잘했다며 선생님도 어서 보라며 입을 벌려 보여준다. 예전 같으면 치료하는 내내 울었을 아이가 씩씩하게 치료를 받았다며 이게 다 병원놀이 덕분이란다. 정말 병원놀이의 효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교육에 의미를 부여해주시는 학부모님에게 감사한 피드백을 받았다. 이러니 내가 병원놀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매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유아교육기관에서 하고 있기에 그 자료가 넘쳐나는 병원놀이, 내가 짠하고 준비해주던 많은 자료 대신 올해는 조금 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운영했으면 했다. 항상 다운로드 받아 프린트해주던 진료차트 대신 각 병원을 맡은 아이들과 소그룹 상호작용을 하며 아이들이 직접 진료차트를 만들어보았다. 놀이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드는 과정은 늘 즐거운가보다. 내가 맡은 병원 진료에 필요한 내용을 생각해보고는 그 내용을 본인들이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해냈다. 주사표시, 입원실, 침대 표시까지 직접 그려 만든 아이들만의 진료차트를 복사해주니 스스로 만든 진료차트여서인지 놀이시간에 잘 활용한다. 안과를 맡은 아이들은 커다란 A3종이에 출력해주던 시력검사표 대신 시력검사표를 직접 그려보고 싶어 했다. 시력이 좋을수록 작은 그림이 잘 보이도록, 그림의 크기를 차이 나게 그려내는, 그 어려운 걸 또 해낸다. 높은 시력의 작은 그림에는 개미를, 낮은 시력의 큰 그림에는 코끼리를 그리는 엉성함이 있긴 했지만 시력검사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가 놀이에 드러나는 순간이다.

시작된 놀이 속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재미있다. 붕대가 필요하다는데 없다고 했더니 두루마리 휴지를 가져다가 열심히 감고 있는 정형외과도 보이고, 환자가 많으니 힘들다며 과로로 쓰러져 입원실에 편안하게 누워버린 간호사도 보인다. 다들 '안 쓴 약국'의 초콜릿 약을 먹고 싶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느라 바쁘다. 급기야 약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의사 하다 말고 다른 병원으로 가버린 규현이 모습에 웃음이 난다. 텅 빈 치과를 보니 모두들 놀이 속에서 조차도 치과만큼은 용기가 필요해 보이는구나 싶다. 나는 아기인형 하나를 옷 속에 넣고 남산만한 배로 인기가 없어 보이는 산부인과에 들어가 본다. 선생님을

보고 놀란 아이들은 앉혀야 되냐 눕혀야 되냐 우왕좌왕난리가 났다. 출산광경을 본 적이 없을 테니 당연한 일이다. 간신히 아기를 꺼낸 아이들이 나를 일으키더니 얼른 국그릇을 준다. "약이에요?"물으니 미역국이란다. 엄마가 동생 낳고 미역국 많이 먹던 모습을 떠올렸나보다. 아이들의 경험이 묻어난다. 함께 하는 즐거운 역할을 마치고 산부인과에서 나왔는데도 자꾸만 아이들이 나에게 아기 낳으러 오란다. 내 배가 왜? 배에 뭐? 설마 산만큼 나온 선생님 배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지? 속일 수가 없는 순수한 아이들 덕분에 오늘도 웃는다.

병원놀이를 하며 놀이 속에 드러나는 아이들의 삶, 그리고 놀이가 아이들의 삶에 주는 영향력을 느낀다. 아이들의 삶이 놀이와 맞닿아 있어야 함을 늘 잊지 않아야겠다.

너희들의 시간,
너희들의
공간이기를

해상교통기관에 대해 알아본 후, 교실에 배를 만들어 놀기로 했다. 역사 속 거북선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아이들은 역시나 대포 펑펑 쏠 수 있는 전투함을 원한다. 세 척의 배를 띄울 장소만 정한 후, 아이들의 배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개학하고 얼마 안 된지라 요즘 규칙을 강조하다보니 자꾸만 교사의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게 느껴진다. 오늘은 절대로 참견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먼저 하고, 나의 역할을 오직 5cm 테이프 잘라주는 일로 스스로 한정한다. 나의 보살핌이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아이들의 자발적인 능력을 볼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우왕좌왕하는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형태가 만들어지자 아이들이 몰입하기 시작한다. 주도하는 아이의 작업에 생각을 덧붙이고 참견하다가 어느새 협력이 이루어진다. 누군가는 디테일한 작업에 몰두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멋지게 노 젓는 동작을 연습한다. 관심과 능력에 따라 개성을 드러내며 참여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재미있다. 완성이 될 즈음 도저히 참지

못하고 결국 두어 번 거들고 말았다. "배 주변에 필요 없는 물건들이 있지는 않나요?",

"놀이를 하려면 배가 튼튼해야 할 텐데…더 튼튼해질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막상 놀이하다보면 아이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인데 괜히 참견했구나 싶다. 아이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할 기회조차 막아버리고 만 것이다. 이렇듯 나는 아이들의 놀이 속에서 개입과 지원 사이에서 자주 갈등하곤 한다. 교실 속 교사는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필요도 있음을 상기시켜본다.

시간이 모자라 배 만들기까지만 끝내고 놀이는 내일하기로 했다. 전투함이니까 볼풀공을 이용해 대포알을 쏘겠다는 아이들에게 미션 하나를 던지기로 했다. "손으로 대포알을 던지는 건 곤란해요." 라는 내 얘기에 어떻게 하면 대포알을 던지지 않고 쏠 수 있을까? 혹시나 힘껏 던진 볼풀공에 맞으면 아플까 싶어 던진 미션에 아이들이 열심히 생각하느라 바쁘다. 돌돌 말 수 있는 큰 종이, 풍선, 종이컵, 미니선풍기 등등 준비해달라는 것도 많다. 그 와중에 한 아이가 제안한다. "배 밖은 전부 바다니까 모두들 교실에서 수영하며 다녀야겠어요."

오호, 그럼 내일은 나도 바닥에 배 짚고 헤엄쳐 다녀야 하나? 과연 어떻게 놀이하려나? 내가 더 기대된다.

절대 배를 건들지 말라는 아이들의 당부에 방과 후 교실 청소를 도와주시는 하모니선생님께서 또 혀를 끌끌 차신다. 아이들 눈에는 함께 만든 커다란 '배'지만 선생님 눈에는 그저 잡동사니 산처럼 보일 테니 그러실 만도 하다. 선생님은 내게 "이렇게 하면 월급 더 받으세요? 아니… 아이들이 매일 뭔가 재미있는 걸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라고 격려(?) 하시지만, 사실 청소하기 번거로운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곤 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 눈에 깨끗하고

정돈되어 보이기 위해 아이들이 놀이 중인 것들을 함부로 치울 수는 없지 않은가? 늘 이곳은 너희들이 주인인 공간이라며 강한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놀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시간과 아이들의 공간을 온전히 돌려주어야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기로 한다.

다음 날, 교실 바닥에 배를 대고 수영하며 아이들을 맞이하는 내 모습에 모두들 깔깔 웃는다. 질세라 얼른 수영 자세로 교실로 들어와서는 배에 올라타는 아이들, 배에서 먹고 자고 놀기를 시작한다. 돌돌 말아 만든 망원경으로 서로의 배를 염탐하더니 대포알을 쏘아대기 시작한다. 교실 바닥을 수영하며 다니기 힘든지 교구바구니에 올라타더니 구명보트 삼아 바다를 건너는 아이도 있고, 바다 밑에서 배를 덮치는 물귀신도 보인다. 배를 수선한다며 커다란 망치로 쿵쿵 치는 아이들과 결국 노를 이용해 칼싸움을 하는 아이들, 놀이를 하다보면 늘 보는 풍경,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이들의 놀이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으니까. 뭐든 굴리고 싶어 하고 달리고 싶어 하고 쿵쿵 두드리며 내 힘으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놀이, 수시로 유능함을 경험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인정해주기로 한다. 그래도 이제 말려야 하지 않을까, 어느 선까지 허용해야 안전한 걸까, 몹시 갈등하던 중 다행히 놀이 시간이 끝났다.

아이들이 내일은 배에서 연극을 하고 싶다고 한다. 스토리를 만들어 놀고 싶어 하는 욕구가 느껴진다. "그럼 필요 없는 배 두 척은 이제 정리해줄 수 있을까요? 사실 하모니선생님이 청소하기 힘들어하셨거든요. 즐겁게 놀았으니까 정리도 즐겁게 해줄 수 있죠?"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리군단들이 출동한다. 사실 나는 아이들과 놀이하면서 정리가 두려웠던 적이 그다지 없다. 늘 충분히 놀고 난 여유로운 마음의 아이들에게 정리란 아주 쉽고도 즐거운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놀이를 하며 배운 주도성과 책임의식이

정리하는 시간에도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어느 날 정리시간에는 도로놀이를 한다며 복도의 바닥과 벽에 붙여놨던 어마어마한 양의 도로테이프들을 신나게 떼더니 뭉쳐진 테이프 더미를 집에 가져가도 되냐고 묻는다. "이게 왜 필요할까? 원한다면 가져가렴."이라고 얘기하고 넘겼는데, 그 날 오후 방과 후 학급의 교실에 갔더니 커다란 테이프 공이 허수아비의 얼굴로 변신해 있었다. 정리도 놀이처럼 하던 아이들은 놀이 후 나온 쓰레기까지 알뜰하게 활용해 새로운 미술 작품으로 변신시킨 것이다. 테이프쓰레기를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밀짚모자까지 빌려주며 변신을 도와주신 방과 후 선생님의 배려 또한 감탄스러울 뿐이다. 매일의 놀이 속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를 배우며 감사해할 줄 아는 아이들로 자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요 밝은 웃음 때문에
다른 꿈은
못 꾸겠다

방학 직전 원내 물놀이를 앞두고 부상과 질병, 업무과다로 교사들은 지쳐 있었다.

"아~ 물놀이하기 싫어요. 빨리 지나 갔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방학을 맞이하면 안 될까요~ " 모여 앉아 투덜투덜 댄다. 그러다가도 막상 회의시간만 되면 또 열심히 고민한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단 하루 진행되는 물놀이를 더 즐기게 하고자 머리를 쥐어짠다. 물놀이 영역을 조정하고 동선을 고려하고 형님반 동생반 서로 배려하며 순서를 정한다. 추위에 떨지 않고 빠르게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본다. 안내할 것들에 대해 고심하고 준비할 것들을 생각한다. 그래도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닥칠 일이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주원이가 매일 수줍게 묻는다. "선생님, 이제 몇 밤 남았어요? 몇 밤만 자면 유치원에서 물놀이 해요?"

아윤이는 그 사랑스러운 웃음을 한 가득 보이며 얘기한다.

"선생님, 저는 진짜 안 믿었어요. 주차장이 물놀이장으로 변한대요. 정말 그래요?"

희윤이가 속삭인다. "선생님, 저는 여름에 아직 수영장 못 갔어요. 빨리 물놀이 하고 싶어요."

"정말 미꾸라지 잡을꺼에요? 진짜에요?" 현서가 미꾸라지처럼 촐랑거리며 외친다.

세빈이는 눈을 반짝인다. "유치원에 있는 인형들 다 빨 거예요? 와…젖으면 어떻게 가지고 놀지?"

"선생님, 이제 진짜 한 밤 남았어요?"

기대하고 있음을 온 몸으로 표현하고 사라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니 정신이 번쩍 든다.

여름이면 늘 하던 뻔한 활동이지만 혹시나 더 재미있게 할 방법이 있을까 싶어 다른 유치원 홈페이지들을 훔쳐본다. 즐거운 자극을 줄 수 있는 대화들을 생각해보고, 부족한 준비는 없는지 챙겨본다. 비는 오지 않을지 새벽에도 몇 번 씩 깨어 일기예보를 확인하느라 잠을 설친다.

드디어 물놀이 당일, 아침부터 다들 분주하다. 챙긴다고 챙겨도 늘 갑자기 생각나는 준비물들과 이런 저런 변수들로 벌써 스트레스가 엄습한다. 어제 미리 좀 꺼내놨음 좋았을 텐데 라며 괜스레 상대를 탓하게 되고 책임을 전가하니,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다. 긴장감과 피로감으로 모두들 조금씩 날이 서 있다.

상기된 표정의 아이들이 하나 둘, 시원한 수영복 차림으로 등원한다.

"어서 와요! 기다렸던 물놀이 날이에요. 마음이 어때요?" 반가운 아이들을 맞이하다보니 처졌던 입 꼬리가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진다. 복도 창밖으로 보이는 점점 커지는 악어수영장, 공룡미끄럼틀에

아이들의 흥분도 함께 커진다. 아이들의 뛰는 마음에 동화되어 내 기분도 급하게 좋아진다. 마음이 즐거워지니 그제야 후배 선생님께 말 한마디 건넬 여유가 생긴다. "오늘 힘들 텐데 파이팅해요." 말하며 손을 내밀자,

"어제까지는 정말 싫다 생각했었는데, 아침에 아이들 기대하면서 오는 모습 보니까 미안해지더라고요. 재미있게 하고 싶어졌어요." 흐뭇한 후배 선생님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맞장구치며 함께 웃는다.

물놀이가 진행되는 내내 아이들 웃는 얼굴을 보니 내가 더 신난다. 유치원 마당에 시원한 물소리가 가득하다. 이곳에는, 내 몸 힘든 것 아랑곳하지 않고 한 명씩 미끄럼틀 위로 힘껏 올려주는 슈퍼맨 선생님이 있다.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한 쪽 팔에 붕대를 감았지만 나머지 한 손으로 백가지 세심한 일을 해내는 큰엄마 역할의 선생님도 계신다. 언니들의 잔소리를 이해하고 묵묵히 도우며 주변을 선한 기운으로 물들이는 선생님도 있다. 우리는 아이들의 웃음을 만드는 천생 교사이다. 아니, 어쩌면 아이들의 웃음이 우리를 천생 교사로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너희들의 웃음 앞에서 난 점점 다른 꿈은 못 꾸겠다. 자꾸만 보고 싶다, 뭐가 그리 즐거운지 멈추지 않는 요 예쁜 웃음이 말이다.

어쩌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놀이를 돌려주고 싶은 진짜 이유는,
세상을 다 가진듯한 아이들의 밝은 웃음에 있지 않을까?

SWIM

궁금해 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면 좋겠다

산책을 나갈 때마다 탄성이 절로 나오는 봄이다. 늘 두루뭉술하게 느껴지는 유치원교육과정, 확장시킬 지식이 무궁무진하고 배우면 좋을 태도가 백가지도 넘는 가운데 일곱 살 반을 맡고 보니 나는 과연 무엇을 얼마나 더 혹은 깊이 있게 줄 수 있는 교사인지가 사실 늘 염려된다.

교육과정 지도서에 이름만 적혀있는 '봄 신문을 만들어요'활동을 어떻게 좀 더 놀이처럼 느끼도록 해볼까 고민하다가 봄에 대한 기사를 한 두 꼭지씩 쓰며 옆 반과 신문을 주고받고 있다. 아이들이 산책길에 발견한 봄이나 봄놀이 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쓰거나 녹음한 후 옆 반으로 보내고, 옆 반이 전하는 봄소식을 받으며 교류하는 활동이다. 신문에서는 두 학급의 특성이 확연히 드러나며 각 반에서 어떤 개념, 어떤 느낌을 경험했는지가 나타난다. 우리 반 아이들은 기자가 되어 발견한 것에 대해 기사를 만들어보고 여러 반을 돌아다니며 신문을 주고받는 자체에 놀이처럼 즐거워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가 조금씩 쌓이자, 즐겁게 시작했던 내가 은근히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옆 반의 기사 내용에 신경이 쓰이는 것이다. 옆 반에서 배운 내용을 우리 반은 모르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저런 것도 배우면 좋았을 것을. 관심을 확장시켜 주지 못한 것은 아닐까 등등… 그러다보니 어느새 수업 중에 자꾸만 개념전달에 집착하고 있다.

예전에 썼던 글을 꺼내어 본다.

『아이들과 늘 가던 산책길을 걸었다. 떨어진 나뭇잎들 사이를 거닐던 아이들이 빨간 단풍잎 더미 위에서는 피 같다며 밟지 말자며 소리치고, 노란 단풍잎 더미에서는 황금 같다고 좋아한다. "선생님, 색깔이 다 달라요."신기한 것을 발견한 듯 보물처럼 모아본다. "같은 나뭇잎끼리도 아직 초록색인 게 있잖아요. 이 나뭇잎은 더 부서져요."작은 발견자가 되어 유레카를 외치듯 흥분한다. "도겸이가 단풍을 만났구나. 낙엽도 밟아보고."건네는 교사의 말을 아이는 "단풍…"되뇌며 기억한다. "친구야, 단풍잎 하나 줄까?"아이에게 '단풍'은 꼭 필요한 말이 된다. 이후에 아이가 만나는 단풍에 대한 소식, 단풍에 관한 지식들에 아이는 눈을 반짝일 수밖에 없었다.

만약 교사가 노랑, 빨강, 갈색 나뭇잎을 가져와서 "이건 무슨 색일까요? 왜 이렇게 색이 변했을까요?"라고 묻는다면 아이들은 단풍에 관심을 가지게 될까? 그저 보자기에 숨겨 소개하는 것만으로 아이들은 낙엽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궁금해질까? "이런 현상을 단풍이라고 해요."로 마무리되는 이야기나누기는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게 될까? 모든 개념을 경험을 통해 습득하도록 하기는 물론 어렵다. 그래도 궁금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에 대해 알고 싶어지게 하는 것, 내 삶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하는 것, 역시 그것이 수업의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다.』

글을 읽다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궁금해 하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본다. 당장 몇가지 개념을 더 아는 것보다 알고 싶은 마음을 만드는 일, 알고 싶은 태도로 세상을 탐구하게 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생각으로 아이들과 함께 해야겠다. 그것이 바로 모든 활동을 놀이처럼, 어떻게 하면 놀이처럼 즐겁게 느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어떤 기사는 옆 반보다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 반 아이들은 정말 즐겁게 생각을 끄집어내고, 내 기사를 읽은 옆 반의 반응을 기대하며, 어떤 글이 올까 궁금해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하마터면 깜빡 잊을 뻔했다.

기다림의 미학

'동식물과 자연'에 대한 생활주제에 맞추어 아이들이 가정에서 가져온 동물 인형이 교실에 한 가득이다. "우리 내일 동물 인형을 가지고 어떻게 놀 수 있을까요?"라는 나의 질문에 아이들이 앞 다투어 생각을 쏟아낸다.

"동물들 집을 만들어요, 못 나오게 울타리를 만들고 선생님이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붙여주세요. ",

"동물원 표도 있어야해요."

아하, 아이들 머릿속에 있는 동물들의 집이란 동물원이로구나. 그렇지. 늘 갇혀 있는 동물들만 볼 테니 아이들은 동물의 집이라 하면 울타리부터 떠올리겠다. 동물원 놀이를 원하는 걸까?

"내가 가져온 강아지 인형이랑 친구가 가져온 고양이 인형은 같이 살면 안돼요. 서로 싫어해서 싸우거든요."

"기린인형은 나뭇잎 먹어야 해요. 집에 큰 나무 만들 거예요."

"선생님, 큰 파란색 종이 주시면 안돼요? 해파리인형이 지낼 바다 그릴

거예요."

"사파리에는 사자도 호랑이도 곰도 모여 살아요."

사파리에 대한 경험이 많은 아이들, 오~ 사파리 버스도 있음 재미있겠다!

이내 내 머릿속에는 아이들이 만들어 낼 진짜 같은 동물원이 떠오른다. 동물원 놀이를 하다보면 동물들의 습성, 생활환경에 대한 개념이 습득될 테고 동물 조련사, 수의사 등 관련 직업들까지의 개념이 확장될 것이다. 이왕이면 동물원과 관련된 영화 '마다가스카'도 한 편 볼까? 울타리 밖으로 탈출하고 싶은 동물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동물보호 및 동물들의 권리에 대한 수업까지 진행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야, 참으로 기대된다.

동물원 수업 당일,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부터 분주하게 아이들이 이야기했던 재료들을 교실로 나른다. 자료실을 뒤지다보니 덫으로 사용하기 좋은 그물망, 바다를 재연하기에 안성맞춤인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파란 천 등이 나온다. 아이들이 원하는 체육기구들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 최소한만 주기로 했다. 동물과 관련된 자연관찰 그림책들과 동물원 동화책 등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찾아볼 수 있도록 검색환경을 구축한다. 이 정도면 준비가 꽤 완벽한 듯싶다.

창밖의 등원 길을 보니 비가 많이 온다. 젖은 채 교실에 들어서는 아이들이 소란스럽게 느껴진다. 드디어 놀이 시작, 울타리로 사용할 줄 알았던 유니바를 아이들이 쌓고 있다. 동물을 뛰어넘게 하려나 했던 내 예상과는 다르게 유니바와 유니바 사이 틈에 동물을 끼어 넣는 놀이를 한다. "동물이 아프겠다. 동물원은 동물에게 안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질문을 해보지만, 이미 이 놀이에 빠진 아이들에게 내 이야기는 들릴 리가 없다.

아이들이 준비해 달라 요구했던 파란 천을 깔 길래 드디어 수중

동물들을 넣는가보다 했더니 갑자기 다 같이 파란 천을 흔들기 시작한다. 파라슈트 놀이를 하듯이 노래를 부르며 다 같이 신나게 흔들어댄다. 얇은 천이 곧 찢어지게 생겨서 제지하고 말았다. "파란 바다 속에 동물들을 넣어볼까? 돌고래가 뛰어 오르네~"언어적 자극을 시도해보지만 그다지 반응이 없다.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책상과 의자를 뒤집고 이리저리 옮기기 시작한다. 어느 동물의 집을 만들고 있나보다 했더니, 실상은 뭔가 만든다기보다는 이리저리 옮기는 자체가 신나는 듯 보인다. 끊임없이 힘을 쓰고 있다. 서로 이리와라, 저리가라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옮기기만 하다가 이제 멈춰서는 책상 위에 올라가 눕는다. 스스로 자신을 동물인 척 하나보다 싶어서 "승기는 나무늘보처럼 누워있구나?"라며 말을 걸어봤지만 사실 아이가 뭔가 의도하고 누워있는 것 같지는 않다. 결국 동물인형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고 아이들은 준비해 준 재료와 스스로 구성한 책상, 의자 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더니, 갑자기 블록으로 총, 칼을 만들고는 책상과 의자와 쌓인 유니바 사이에 숨었다 나타났다, 싸움놀이를 시작한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은 이대로 끝났고, 기대했던 동물원 놀이도 허무하게 끝이 났다. 어제 동물원놀이 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아침부터 준비하느라… 잔소리를 하려다 관두고, 수업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 내가 남아들의 특성을 잘 모르나? 남자 아이들은 원래 동물 인형을 가지고 노는 걸 어색해하나? 내가 너무 개입도 없이 지켜보기만 했나? 비가 오는 날이라 지각이 많아 아이들이 등원할 때마다 흐름이 끊겼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재료를 주면 놀이에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재료를 탐색하다가 본 놀이를 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하다. 동물들의 습성이나 동물원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의견을 나눈 당일 날, 놀이가 바로 시작됐다면 어쩌면 좀 더 나았을까? 에잇, 김빠지는데

내일은 그냥 동물인형 집에 가져가라고 할까?

다음날 아침, 먼저 등원한 아이들에게 동물 관련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읽고 나니 자연스레 동물 놀이를 시작한다. 이윽고 도착한 아이들도 갖가지의 동물을 들고 놀이에 동참하기 시작한다. 탐색이 끝났는지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적극적으로 동물놀이가 펼쳐진다. 동화책 속의 원숭이가 나무 타는 장면을 봤던 아이가 긴 백업을 이용하여 나무에 동물을 태우며 놀이한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나뭇가지를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라고 묻자, "천장에 달려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한다.

오~ 한번 달아볼까? 튼튼하게 달릴지 모르겠네. 천장에 긴 백업들을 주렁주렁 걸기 시작하자, 아이들이 흥분한다. "이쪽에도 달아주세요. 이것도 달아주세요!"아이디어가 실현되는 경험에 흥분한다. 늘 창조자가 되고 싶은 아이들… 천장에 달린 백업들을 나무줄기 삼아 여러 가지 놀이가 시작된다. 그물을 걸어 그네를 태워주기도 하고, 나뭇가지 덫에 걸린 동물이라며 잡아가기도 한다. 타잔처럼 가지와 가지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는 동물들이 보인다.

한쪽에서는 점프대라며 푹신한 스펀지매트를 교구장에 올린다. 돌고래를 세워놓고 반대쪽 끝을 치니 돌고래가 한 바퀴 돌며 떨어진다. 동물공연이 시작된 모양이다. 동물들을 연습을 시키고 오겠다며 줄블록으로 동그란 고리를 만들어 동물을 통과시킨다. 다른 쪽에서는 초록 천을 깔아 목장을 만들고 있다. 양이 사는 목장, 양과 함께 살 온순한 동물 친구들을 모아온다. 목장의 동물들에게 열심히 먹이를 먹이던 아이들이 갑자기 양이 똥을 쌌다며 동글동글한 공기를 한가득 가져온다. 동물이 똥 싸는 일까지 염두에 둘 줄이야. 애완동물 운반 가방도 등장하고, 동물들의 아파트, 동물들 꾸며주는 애견미용실도 등장한다.

적극적인 놀이가 펼쳐지고 있는 교실 풍경을 보며 희열이 느껴진다.
내가 느끼고 있는 감동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애써본다.
이런 나의 반응에 아이들은 더욱더 자신 있게 놀이하는 모습을 보인다.

기분 좋게 놀이를 마친 후, 아이들이 돌아간 텅 빈 교실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본다. 돌아보니 어제의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교사의 역할과 성급함에 있지 않았나 싶다. 교사가 함께 놀며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주고자 노력하니 아이들의 놀이가 빨리 확장되고 더 즐거워졌다. 무엇보다 어제는 어제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탐색의 시간이었다. 그 시간을 지켜봐주지 못하고 성급하게 수업을 진행하려 했다면 오히려 아이들은 오늘처럼 재미있게 놀지 못했을 것 같다. 또 만약 내가 어제의 모습을 실패라 여기고 오늘의 수업을 포기했다면 신나게 놀면서 만드는 아이들의 창조력을 볼 수 없었겠지. 내 수업의 희열을 위해 아이들의 놀이를 다그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놀이에서만큼은 아이들이 교사다. 내 계획에 갇혀 성급하게 기대하지 않고 담담하게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 단지 내 마음이 놀이하는 너희들의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다.

용기 내어 보기를

'뚝딱놀이터, 칼칼라방, 무지개미술방, 생각하는 글자방,
변신놀이터, 과학자의 방, 숫자랑 퍼즐이랑…'

생소하지만 무슨 방인지 알 것 같은 이 이름들은 올해 우리 반 아이들이 정한 교실영역의 이름이다.

신학기를 맞이하여 새 교실에 놀이영역 이름판을 만들려다가 그만두고 싶어졌다. 수조작영역, 언어영역, 음률영역, 역할영역, 쌓기영역… 이렇게 정해져있는 놀이영역의 이름들이 아이들에게 과연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뜻도 어렵지만 성인이 발음하기에도 참 까다로우니 말이다.

사실 돌아보면 '자유놀이시간'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까다로운 이름의 영역을 구성함에 있어 내가 매년 학기 초 중요시 여기던 부분은 예쁜 영역판, 안전과 질서를 위한 영역마다의 세세한 규칙, 아이들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 이런 것들이었다. 그래서 늘 고심 끝에 짠~하고 영역을 완성해 놓고는 영역별 규칙을 강조하곤 했었다. 이것이 자유놀이를 위한 교사의 기초 작업이라고 생각해왔다.

올해는 시작 전부터 고민에 사로잡혔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놀이에 충분히 몰입해 보도록 돕는 진정한 아이들의 시간임을 염두에 둔다면 어떤 것들을 먼저 떠올려야 할까? 하고 싶은 것이 보장되는 시간, 이를 위해 많은 것이 허용되는 시간, 삶이 그러하듯 갈등이 충분히 일어나는 시간, 이로 인해 실컷 다투고 화내며 속상해 감정이 북받치는 경험을 해보는 시간, 덕분에 나도 친구도 기분이 상해버리는 순간을 통해 배려를 배우고 감정 표현을 배우는 시간… 이런 시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기존에 내가 하던 것들을 버리고 싶어졌다. 아이들과 함께 영역 이름도 정하고 하나씩 구성해나가고, 영역을 즐기기 위한 활동들도 고안해보기를 원했다. 놀이를 시작하고 여러 갈등들을 경험하다 보면 필요한 규칙도 자연스레 언급되리라 생각했다.

역시나 대부분 재원생들 이어서인지 영역에 대한 이해도 쉽고 필요한 부분도 잘 찾아냈다. 옛 영역이름은 새까맣게 잊고 자기들이 정한 새로운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 역시나 입에 착착 붙나보다. 일 년간 자유놀이 영역 및 놀이 풍경은 변화가 거듭됐고 규칙도 매번 필요와 협의에 의해 달라져갔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교실이에요. 마음대로 놀 수 있어요.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이야기와 함께 늘 우리 반의 놀이는 시작된다. 교사의 책상을 건드리지 않는 한 교실의 모든 집기와 물건들은 아이들의 놀이에 사용될 수 있었으며 놀이 시간 중에 사실상 영역의 구분은 사라지게 되었다. 조용한 놀이를 원할 때는 조용한 구석을 찾아가고 넓은 책상이 필요할 땐 책상을 이어 붙여 넓게 만든다. 교실에 있는 친구들에게 방해되는 놀이라 생각되면 자연스레 복도로 나간다.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는 친구의 마음도

살펴주고 우리 교실을 놀기 좋게 다시 스스로 정리해주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주도적인 놀이의 영향력을 느낀다. 움직이기 불편할 정도로 공간을 침범하는 친구의 작품이 실은 놀이시간 내내 얼마나 공들여 만든 작품인 줄 알기에, 그 소중한 마음을 읽어주며 어서 전시하라 배려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예쁜지…

놀이시간 속 아이들의 모습은 작은 사회 속 민주시민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성숙한 민주시민을 키워내기 위해 우리가 줄 것은 규칙과 제재가 아닌 충분한 자유와 권리, 서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의 시간 동안 모두들 즐거웠나요? 선생님이 도와주면 좋을 것이 있을까요?"놀이를 회상하는 평가 시간이면 언제나 서로 놀이하며 느꼈던 기분, 공유하고 싶은 놀이 이야기, 일어났던 갈등에 대한 해결토의, 더 즐겁게 놀기 위한 방안과 더불어 어김없이 내일 해야 할 선생님의 역할 이야기가 나온다. 때로는 필요로 하는 놀잇감을 준비해달라고 하고, 때로는 오늘 부족했던 놀이 팀의 상대가 되어달라고도 하고, 때로는 내일 자신들의 놀이 모습을 촬영해달라는 부탁을 받기도 한다.

아이들의 흥미를 놀라운 방향으로 이끌어 교육적인 목표를 달성해야만 놀이중심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의 지원 요구에 화답하고 아이들에게 귀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 지식에 배려를 더하여 아이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교육적으로 고민해보는 것,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한다면 아이들은 매일 유치원에서 진짜 잘 놀았다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돌아보니 그 누구보다도 활동지도서와 인터넷에서 주는 활동들에 의존했던 수동적이었던 내가, 정해진 놀이영역의 이름마저 거부하고 아이들 입장에서의 '배움'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며 수업을 계획하는 능동적인 존재가 되었음이 새삼 놀랍다. 아이들과 함께 웃는 수업을 원하면서도 자꾸만

흔들리며 어쩔 수 없음을 핑계 삼던 내가 무엇보다 나와 내 아이들의 힘을 믿고 '용기'를 내보았기에 가능한 변화였다. 아마도 남은 교직 생활도 그러할 것 같다. 누가 뭐라 하건 내가 교사로서 보고 싶은 것은 아이들의 웃음이기에, 나의 아이들과의 매일은 여전히… 놀이 속에 있지 않을까? 🪴

"진짜" 놀이를 찾아가는 교사와 유아

나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사 **이수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10년째 만5세 학급의 담임을 맡고 있으며, 학급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과 아이들과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 보려고 노력하는 교사이다. 아이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상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놀이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지만, 아이들의 넘치는 희망사항을 다 들어주지 못해 늘 안타깝다.

교사 2년차에 수업연구대회에 도전했다가 완벽하게 실패했다.

아이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다가가기로 했다.

아이들은 놀이공간에서 자유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이었다.

정리정돈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상상의 세계를 놀이 속에서 실현해 보려고 시도했으며, 놀이규칙을 없애고 새로운 자유를 열어나갔다.

놀이 속에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과 주변사람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의미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함께 성장하고, 꿈을 키우는 것이 놀이를 통해 학급에서 유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의 그 모습 보다는 깨나 좋아졌지만, 나는 여전히 놀이 속에서 나타나는 유아들의 상상의 세계와 수많은 바람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친구인 척하는 어른일 뿐임을 매일 매일 실감하고 있다.

교사로서 첫걸음을 내딛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주말 오후가 되면 늘 마음이 바빴다. 다음 주에 사용할 교구와 활동 자료를 준비하느라 한밤중에야 유치원을 나설 수 있었지만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흥미영역을 다시 배치해 보려고 교구장을 이리 저리 옮겨 놓다가 결국에는 다시 제자리에 두고 돌아가기도 하고, 교사용 지도서를 뒤적이다가 시간을 다 보내기도 했다. 대집단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겨우 하나 완성했을 뿐인데 어느 새 밖이 어둑어둑해지곤 했었다. 학년 초, 교실을 새로 배정 받았을 때 최고조에 달하는 교실환경구성에 대한 부담감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 들 줄 몰랐고, 어느 겨울밤에는 피로와 실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과연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이 노력하면 언젠가는 제대로 해 낼 수 있는 일이 맞기는 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며, 교실 바닥에 앉아 눈물을 쏟기도 했었다. 주말동안 준비한 활동 자료들을 소개하면, 유아들은 무척 반기고 좋아했다. 그러나 흥미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놀이에 필요한 것들은 언제나 부족하게 느껴졌고,

활동자료와 교구를 더 많이 준비해 주지 못해서, 흥미영역을 조금 더 아름답게 꾸며 주지 못해서 늘 답답하고 아쉬웠다.

유아의 흥미를 배움으로 연결 짓는 것은 물론이고,
놀이 속으로 아이들을 초대하는 방식조차 잘 알지 못했던 그 때는
왜 생각만큼 놀이가 재미있고 풍부하게 확장되지 않는지
알아차리기에는 모든 면에서 너무나 부족했던 것 같다.

2003년 봄, 일상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해 바다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분교의 병설유치원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는 그저 그런 교사로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1년간 매월 2차례씩 수업을 공개해야 하는 수업연구대회에 지원했다. 2주에 한번 씩 다가올 공개수업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겨울지 전혀 알지 못하는 2년차 교사였기에 할 수 있었던 시도였다.

첫 번째 공개수업으로 게임을 선택했다. 유아들이 좋아하는 활동인데다 일반적인 절차대로 진행 한다면 크게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윌리엄 스타이그의 '치과의사 드소토 선생님'을 읽고 즐거워했던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커다란 여우 얼굴을 만들고, 여우의 입 속에 까맣고, 하얀 이빨을 붙여 놓았다. 작은 바구니를 2개 준비하여 여우의 썩은 이를 대신할 금니를 담아 놓았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것으로 어떤 놀이를 하고 싶은지'질문했다. 유아가 '드소토 선생님'이 되어 여우의 썩은 이를 금니로 바꾸어 주는 놀이를 하자고 제안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3-5세 혼합연령학급의 유아 일곱 명은 게임방법을 쉽게 생각해 내지 못했다. 아이들은 이내 지루해하기 시작했고, 수업을 참관하던 지역의 선배교사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음을 알아차리고, 아슬아슬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겨우 활동을 끝낼 수 있었고, 이어진 수업 협의회에 참석한 선배들은 그저 "수고했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실망감과 허전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일곱 명 밖에 안 되는 아이들의 발달을 이해하지 못한 나 자신이 실망스러웠고, 어느 때 보다도 상세하게 활동 계획을 하면서도 활동목표와 내용, 자료, 상호작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나 자신이 답답하고 원망스러웠다. 아이들이 그림책을 즐기고 좋아했던 것과 여우의 이를 치료하는 게임 방법을 예측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왜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까, '유아중심'이라는 말도 안 되는 슬로건은 던져 버리고, 미리 생각해 둔 게임 방법을 알려주고 놀이하도록 했다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특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국 이렇게 또 혼자만의 과제로 남겨지는 것인가, 끝없이 이어지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한동안 고단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지금 돌이켜 보면,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완벽하게 실패한 그 경험으로

인해 '언젠가는 꼭 잘해내고야 말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평가 할 수 있지만 당시는 생각지도 못한 극심한 성장통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그 해 가을 열 번째 공개 수업을 지켜본 선배교사들이 비로소 처음의 수업을 참관 한 후 하지 못했던 말을 들려주었다. '맨 처음 수업을 참관했을 때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려 주어야 할지 몰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오늘은 처음과는 비교도 못 할 만큼 괜찮았다고….' 열 번의 공개수업을 준비하고, 되돌아보면서 고민하고 반성하기를 거듭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일곱 명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과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고, 그렇게 1년이 흐른 뒤에야 학급의 아이들에게 맞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시기에 나는 매일의 일과에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하고자 낮 동안 유아들의 놀이 장면을 촬영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촬영한 내용을 확인하곤 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눈에는 밝고, 사랑스럽게만 보였던 그 아이가 다른 유아들에게는 힘 있는 존재로서 군림하면서 아이들의 의견을 마음대로 이끌어가고 있었음을 발견하고, 너무나 놀랐다. 매일 함께 생활하면서도 내가 무엇을 할지 고민하느라 아이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유아를 한 사람의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일반적인 대상으로서 이해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학급의 유아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알아가는 것이 놀이를 시작하고, 흥미를 이끌어내는 첫걸음임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러나 유아 스스로 놀이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놀이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지 못했었다.

놀이 공간에서 자유를 찾다

교실의 놀이 공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쌓기영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아이들을 만난 2007년 봄부터였다. 학급의 유아들 중 쌓기영역에서 놀이하기를 좋아하는 몇 명은 매일 같은 공간에 모여서 전날과 똑 같은 형태의 경사로를 만들고, 자동차를 더 멀리 보내는 자동차 경주 놀이를 하고 있었다. 어떤 방식으로든 놀이가 다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매일 같은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놀이를 평가하는 시간에 "내리막 길 만드는 거 재미있어요? 내일도 또 이렇게 놀 거예요?"라고 물었다. 아이들은 의외의 대답을 내 놓았다. "선생님이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면 치우라고 하잖아요!"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경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사면을 다른 블록으로 지지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보다 더 멋진 것을 만들게 되면 자동차 시합도 못하고 놀이가 끝나 버린다고 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놀라고 당황했다. 그리고 아이들을 비난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랬구나! 너희들의 놀이가

한심한 것이 아니라, 놀이 공간에 문제가 있었구나!" 아이들이 매일 같은 것을 반복했던 이유가 놀이 후에 모든 구조물을 정리하도록 하는 규칙과 시간의 부족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놀이에 필요한 구조물은 놀이가 끝난 후에도 그대로 두고, 남은 블록 만 정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쌓기영역에서 새로운 자유를 경험한 유아들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자유를 갈망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블록이 교구장이 아닌 카펫에 나와 있었다. 나는 놀이를 평가하는 시간에 그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 그러자 아이들로부터 이런 답이 돌아왔다. "공사하는 아저씨들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걸 모아 놓은 거예요. 내일 더 빨리 만들려고요." 성인의 관점에서 마구 늘어놓은 것처럼 보였던 블록들은 작업에 편리하도록 기준을 정해 나름대로 분류 해 놓은 것이었다. 유아들은 블록을 꺼내고 넣을 때 마다 블록장 앞 쪽에 세워놓은 구조물이 조금씩 무너지기 때문에 남은 블록을 다시 넣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아이들에게 또 한 번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일을 계기로 교실 속 놀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누리는 자유와 제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 해 여름의 어느 날, 놀이시간에 화장실에 간 아이가 한 참 동안 돌아오지 않아서 데리러 갔다. 아이는 세면대에 물을 채우고, 몰래 가지고 나온 우유팩으로 만든 배를 물에 넣어 놀고 있었다. 여름 방학을 앞두고 있었기에 물놀이 체험학습도 이미 다녀왔고, 바깥 놀이터에 물놀이대도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미술영역에 물놀이 장난감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해 놓으면서도 교실에 물놀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다.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아,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하기 위해 장난감을 만들었겠구나! 배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내 지금의 이 모습을 상상했겠지!'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고, 배를 만든 후 물에 띄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유아기의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과정이라는 것을 왜 미처 헤아리지 못했는지 교사로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화장실에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처음에는 바퀴가 달린 플라스틱 정리함 하나를 비워 물을 담아 내 주었다. 신이 난 아이들이 몰려들어 조금 더

넓은 교실 싱크대로 옮겨 놀이를 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물에 파란색 물감을 풀어 넣어 '진짜 바다 같다'고 하며 즐거워했다. 자유선택활동이 끝나고 놀이를 평가하는 시간에 아이들은 쌓기영역의 구조물처럼 '하늘반의 바다'도 치우지 않고 그냥 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며칠 동안 싱크대를 사용하지 못했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학급에서 그 놀이를 즐기지 못하는 단 한 사람, 교사인 나뿐이었다.

그 당시 나는 젊고, 열정적이었기에 교실에서 밀가루 놀이와 물감놀이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흥미영역을 구성하고 있었고, 아이들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충분하고 넉넉하게 제공해주었다. 나 스스로 주어진 한계 내에서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놀이를 하고 있었던 아이의 모습은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았다. 그 일을 계기로 유아들이 추구하는 '자유로움'은 유아들이 하고자 하는 놀이 속에서만 충분하게 실현 될 수 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다.

가을이 올 무렵 짙은 안개를 헤치고 도시 전체가 꿈에 잠긴 듯 보이는 그림 같은 풍경을 지나 출근을 했다. 교실에 들어 온 아이들은 놀이를 시작하지 못하고 창문 앞에 매달려 있었다. 창밖으로 유치원 건너편의 왕릉을 내다보고 있던 강찬이가 이렇게 말했다. "지금 나가면 구름 속을 걸을 수 있을 텐데, 구름을 만져 볼 수도 있을 텐데…. 선생님, 지금 산책 가면 안돼요? 안개가 자꾸 자꾸 사라져요." 구름 속을 걷고 싶다는 강찬이의 말이 마음을 두드렸고, 산책활동을 위한 어떤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더 늦기 전에 아이들과 밖으로 나가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으로 보았던 풍경 속에 도착한 아이들은 뛰기 시작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의 놀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안개 속으로 아이들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사진 속에

담았고, 아이들은 한 참을 쉬지 않고 뛰어다녔다. 잔디와 나무, 풀잎은 푹 젖어있었고, 아이들의 머리카락과 옷과 신발도 어느새 축축해졌다. 우리는 안개가 거의 사라진 다음에야 교실로 돌아 왔다.

잠깐 동안 구름 속에서 예정에 없던 자유를 만끽한 아이들은 그 날 아침의 산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했다. "구름이 가볍고 폭신폭신 할 줄 알았는데 축축했어요.", "친구들이 (안개 속에서) 갑자기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구름을 만져보려고 뛰어 갔는데, 내가 가까이 가니까 자꾸 사라져 버려서 아쉬웠어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안개 속에서 쉴 새 없이 뛰어다녔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구름을 만져보고 싶었구나!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창밖을 내다보고, 또 그렇게 열심히 뛰어 다녔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경험이 유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놀이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상의 세계'와 그와 관련된 '아이들의 바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 같다.

2016년에 만난 아이들은 흥미영역의 인원 제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3월의 어느 날, '유치원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순간은 언제인지'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아이들은 '가고 싶은 흥미영역에 빈자리가 없을 때 유치원이 재미없고 힘들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동하 *제가 미술영역에서 가면을 만들려고 했는데 동신이가 의자를 빼앗아 가서, 계속 말했는데도 주지 않았어요.*

동신 *알았어. 내가 양보해 주면 되잖아!*

교사 *향기반은 하고 싶은 놀이가 있는데 자리가 부족할 때 속상한 마음이 드는구나!*

준영 *친구한테 부탁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다른 영역에 가서 친구가 놀이를 다 할 때 까지 기다리면 되잖아요.*

민채 *그런데 그 때 바로 정리시간 되면? 그러면 놀지 못하잖아요!*

의송 *쌓기에 가고 싶은데, 기다려도 아무도 안 나왔어요!*

교사 *그렇구나, 모두 다 좋아하는 곳은 기다려도 놀지 못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향기반이 될 수 있을까?*

만5세 유아 26명이 함께 지내는 교실에서 기다림과 자리다툼, 눈치싸움은 익숙한 일상이다.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놀이 공간에서 나타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다. 유아들의 이야기는 인원제한 때문에 하고 싶은 놀이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느꼈던 아쉬움과 좌절감, 슬픔,

소외감을 토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서로의 마음을 듣고, 모두가 그런 순간을 경험했고, 속이 상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흥미영역에서 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양보하면서 사이좋게 놀이 해 보기로 결정했다. 쉽지 않으리라는 나의 기대를 저버리고, 향기반 아이들은 한 해 동안 그 약속을 잘 지켜냈다.

앞으로 만날 아이들이 모두 다 이런 배려 깊은 질서를 스스로 만들고, 유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로부터 2년 후, 2018년에 만난 아이들은 학급 운영에 대한 나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고, 나는 그저 놀이 공간에서 유아들이 서로를 다치게 하지만 않아도 좋겠다고 생각하며 한해를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놀이 공간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아이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교실에서 행복을 찾고자 서로 배려하는 유아들의 진심은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아 있을 것 같다. 2016년 향기반 아이들과의 만남으로 인해 나는 '유아의 자기중심적 특성을 탓하거나, 불필요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배려와 공감이 공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는 학급운영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되었다.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다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학급의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가을, 새롭게 탐구할 주제로 '달팽이'를 선택하면서부터였다. 비가 온 다음 날 준영이가 등원 하면서 달팽이를 플라스틱 과자 통에 담아가지고 왔다. 유아들은 이름을 지어주고, '달팽이야, 쑥쑥 잘 자라!'라고 편지를 써서 달팽이가 담긴 통에 붙여 놓았다. 그러나 움직임이 적고, 몸집이 작은 달팽이의 습성 때문인지 아이들의 관심은 곧 사라졌다. 몇 주가 지난 후, 늦은 가을에 용호가 일곱 마리의 달팽이를 페트병에 담아 가지고 왔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여러 마리의 달팽이는 아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사슴반 아이들은 새로운 탐구 주제로 달팽이를 선택했다.

달팽이의 생태에 관한 유아용도서를 읽고, 사육 상자를 만들었다. 그리고 달팽이를 관찰할 때 지켜야 할 약속을 정했다. 달팽이에 대해 아이들이 처음으로 궁금해 한 것은 N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과 관련된 것이었다. 게임 속의 달팽이처럼 '진짜 달팽이의 똥 색깔이 먹이에 따라 달라지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의 관심은 달팽이가 먹이를 어떻게 삼키는지, 더듬이가 어떻게 몸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사라지는지 등 겉으로 보이는 생김새와 특징에 관한 것으로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 일과를 평가하는 시간에 재은이가 "선생님, 우리 이러다가 달팽이 박사님 되겠어요."라고 말했고, 나는 "그럼, 사슴반 달팽이 박사님들 우리 내일 만나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진성이가 "달팽이 박사님이 진짜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고, 사슴반 아이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의논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사슴반 아이들은 '달팽이 박사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님께 편지를 썼다.

달팽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이들은 동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안정혜, 정유진입니다.
달팽이을 잘 관찰하고 있으세요? 거기에서도 건강하고 잘 사세요.
저이도 달팽이를 키우고 있어요. 달팽이 박사님 사랑해요. 안녕히 계세요.
– 안정혜, 정유진 올림

달팽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동방초등학교병설유치원 찬미, 우정이입니다.
우리도 달팽이가 상추를 잘 먹고 있어요.
– 찬미, 우정 올림

달팽이 박사님 어떡해 그러게 만은 달팽이를 관찰 하셧서요?
– 재은, 임이슬 올림

(답장)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림을 그리도 잘 그리시고, 글씨도 또박또박 잘 쓰시는지….
선생님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달팽이도 관찰하고 책도 많이많이 읽으세요. 달팽이 박사가 된 것도 책을 많이 읽은 때문이랍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어릴 때 보다 훨씬 더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군요. "달팽이"라는 책이 있으니 그걸 들여다보면 아주 달팽이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차가워 오는데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알았지요? 모두 모두 ㅇㅏㄴㄴㅕㅇ*^^*
– 달팽이 드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들이 쓴 편지를 전달하자 달팽이 박사님은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사진과 함께 답장을 보내주셨다. 아이들은 달팽이 박사님의 추천 도서를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사진을 들여다보고, 궁금한 부분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든 사육 상자가 달팽이를 키우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달팽이 박사님의 책에 나온 대로 흙을 체에 거르고 뜨겁게 볶아서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소독 한 후 사육 상자를 다시 만들었다.

달팽이 박사님을 만난 후 사슴반 아이들의 관심은 완전히 달라졌다. '달팽이의 신체 기관, 호흡공, 번식, 달팽이가 알을 어떻게 깨고 나오는 지'와

같은 달팽이의 생태에 관한 것으로 확대 되었고, '달팽이가 알을 깨고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어 달팽이 박사님께 다시 편지를 드렸다. 박사님은 "질문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로 잘 모르겠다."는 답장을 주셨다. 박사님의 편지를 받은 아이들은 박사님도 모르는 것을 자신들이 탐구하고 있다는 생각에 매우 자부심을 느끼는 듯 했다.

아이들은 탐구과정에서 알게 된 것을 여러 가지 놀이로 표현했다. 점토로 달팽이를 만들고, 달팽이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 진짜 달팽이의

모습과 자신이 한 것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다시 만들고, 다시 그리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다. 달팽이 옷을 만들어서 입고, 달팽이가 되어 기어갔다가 돌아오는 게임을 했고, '펭귄은 내 친구'라는 노랫말을 개사하여 '달팽이는 내 친구'노래를 만들었다. 달팽이가 짝을 만나 결혼해서 알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달팽이 동화'를 만들었다. 정혜는 자기가 만든 달팽이 이야기로 동극을 하고 싶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아빠, 엄마와 초등학교 형님들을 초대하여 달팽이를 보여 주는 전시회를 열자고 했다. 아이들은 전시회에 참석한 가족들과 초등학교 형님, 선생님들에게 달팽이를 보여주고, 달팽이 동화를 읽어 주었다. 달팽이 노래를 가르쳐 주고, 점토로 달팽이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달팽이 전시회는 달팽이에 대해 알게 된 것을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했던 놀이를 소개하고, 함께 놀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유아들이 좋아하는 대상을 탐구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서 놀이를 만들어 내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 보려고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아이들은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 때 이렇게 놀이 속으로 초대하는구나! 아마 자신들도 그런

방식으로 배우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달팽이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아이들의 호기심과 열정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후 주제를 다루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가게인 '주유소'의 주유기에서 나오는 기름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것인지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한 탐구활동이 주유소에 놓인 소화기로 이어지고, 다시 소방차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이어졌다. 주제에 관한 새로운 궁금증은 끝없이 샘솟았고, 우리 학급만의 이야기가 매일 새롭게 만들어졌다. 기차와 비행기, 월드컵, 에펠탑과 같이 유아에게 인기가 많은 주제들은 매년 반복되었지만,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학급의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 내는 이야기와 하고 싶어 했던 놀이는 아이들의 생김새만큼이나 다양하고 독특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주제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보는 과정이 아이들과 나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대해 진지하고 흥미진진하게 탐구해 나가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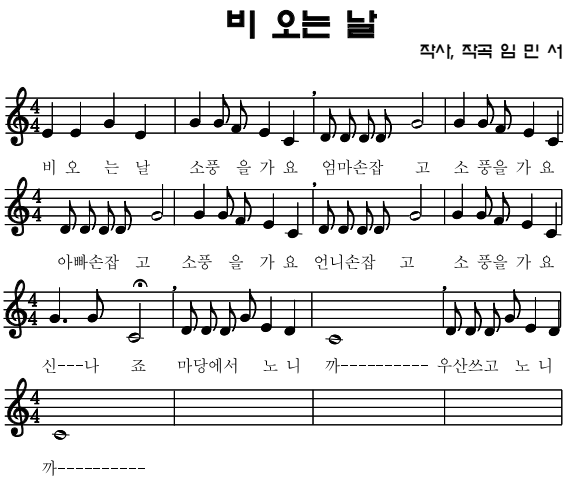
달팽이가 되어보세요.

우리 교실은 꿈꾸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

사슴반 아이들과 달팽이에 대해 탐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자기가 만든 이야기로 동극을 하고 싶다고 했던 정혜의 요청을 들어주지 못했던 것이었다. 정혜가 만든 이야기는 읽고 쓸 줄 모르는 만 4세 유아의 작품으로서는 매우 훌륭했지만 이야기의 줄거리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극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이들을 설득해서 달팽이가 나오는 그림책을 선택하여 '달팽이 전시회'의 마지막 순서로 동극을 했는데 아이들도 나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정혜의 요청은 해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언젠가 다시 한 번 기회가 온다면 아이의 요청을 꼭 들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2007년 봄, 비오는 풍경을 담은 그림과 '빗방울 전주곡'이라는 별명이 붙은 쇼팽의 음악, 유리 슐레비츠의 '비오는 날' 그림책을 감상한 후 하늘반 아이들에게 비오는 날의 느낌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해 보고 싶은지 질문했다.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이야기를 지어 책을 만들고, 동시를 쓰겠다고 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민서는 '노래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 만약, 아이의 요청을 들어주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와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다.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거침없이 노래를 부르는 아이와 달리 서툰 실력으로 멜로디에 어울리는 반주를 넣고, 악보를 그리느라 진땀이 났지만 완성된 노래는 꽤나 그럴 듯 했다. 비오는 날 우산을 쓰고 마당을 걷는 것을 '소풍 간다'고 표현하고, 그 놀이를 온 가족과 함께 하는 모습을 반복되는 쉬운 멜로디에 담았다. 민서가 만든 노래를 소개하자 하늘반 아이들은 한두 번 만에 노래를 외워 불렀고, 하늘반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

이듬해에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을 만나 아이들의 이야기로 그림책을 만들고 동극을 하느라 한동안은 이야기 속에 푹 빠져 지냈다. 유아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아무 어려움 없이 해 내는 유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아이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 부족해서 아이들의 요청을 들어 줄 수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해 볼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2010년 가을 생활주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루면서 에펠탑을 주제로 정했다. 아이들은 '에펠탑은 누가 만들었는지, 에펠탑에 무엇이 있는지, 에펠탑 주변에는 왜 아파트가 없는지' 등을 궁금해 했고, 주제가 마무리 되는 주말 오후에 "에펠탑 2층에 있는 식당에 가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 했다. 나는 "얼마든지 갈 수 있지! 가고 싶기만 하다면…."이라고 대답했고, 아이들은 그것을 에펠탑으로 현장학습을 가는 것으로 이해했다. 새로운 탐구 주제를 정하는 이야기나누기에서 아이들은 에펠탑에 언제 가는지 궁금해 했고, 아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수 없었기에 "에펠탑을 보려면 프랑스에 가야하는데 비행기를 어떻게 타는지 먼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대답했다. 아이들은 '비행기'를 새로운 주제로 선택했고, '표는 어디에서 사는지, 비행기를 타고 여행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역할영역에 비행기를 만들었고,
비행기를 타고 에펠탑을 보러 가고 싶었던 자신들의 소망을 실현시켰다.

어느 때보다 열정적으로 비행기 만들기에 몰두하고, 결국 원하던 대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유치원 교실은 놀이 속에서 꿈꾸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 질 수 있는 곳이며,

마녀와 요정이 등장하는 이야기 세계에서처럼 마법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2016년 9월, 향기반 아이들은 흥미영역에 있는 여러 가지 교구 중에서 탈 모으기 게임 판에 있는 '탈'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이 탈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탈 춤 할 때 손에다 뭘 끼고 하던데 각시탈도 손에다 뭘 끼워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건 무슨 탈이에요?" 아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탈춤 공연을 영상으로 감상하고, 탈춤에 대해 궁금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탈춤을 해 보고 싶다고 했다.

활동의 주제와 내용이 정해져 있는 공개수업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탈춤에 대한 아이들의 흥미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다음 날 진도 아리랑에 맞추어 한삼을 끼고 탈춤 동작으로 된 춤을 추는 신체활동을 했다. 향기반 아이들은 단조로운 신체활동을 너무나도 아쉬워했다. 나는 그것으로 탈춤을 마무리 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영상으로 한 번 보기만 했었던 여덟 목중 춤을 즉흥적으로 해 볼 것을 제안했다. 여덟 명의 유아가 목중이 되어 한명씩 차례로 나와서 자신의 장기를 보여 준 후, 마지막에 다함께 나와서 춤을 추는 공연이 열렸고, 아이들은 박수치고 웃으며 즐거워했다. 몇 차례 반복해서 공연한 후 교실로 돌아 온 아이들은 곧장 역할영역에 탈춤 극장 간판부터 만들어 걸었고, 탈춤 공연이 시작되었다. 점심식사 후 원우가 미술영역에 있는 마분지를 꺼내서 탈을 그리기 시작하자 탈춤 공연을 하고 있던 아이들이 일제히 몰려들었다. 탈 만들기가 유행처럼 번져나갔고, 같은 종류의 탈이 몇 개씩 만들어졌다. 탈 보관대도 필요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탈춤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사자가 앞장을 서고, 여덟 목중과 각시, 원숭이, 스님이 뒤를 따르는 길놀이를 했다. 관객들이 역할영역에

몰려들었고, 탈춤 극장은 향기반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가 되었다. 실제 공연에서 어린아이가 연기하는 원숭이 역할은 모두가 하고 싶어 하는 가장 인기 있는 배역이 되었다. 향기반 탈춤 공연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부분을 빠짐없이 해 보고, 관객과 연기자, 연주자를 맡은 유아들 모두가 진짜 공연을 하는 것처럼 익숙해진 뒤에야 탈춤극장 놀이를 마무리 했다.

놀이 속에서 하고 싶은 것을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이 속에서 유아들의 흥미가 배움을 이끄는 원동력이며, 목표한 것을 해내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하도록 해 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아이들과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다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학급의 아이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함께 알아보는 것,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유아들과 '나비'에 대해 탐구하고 있었던 2009년 4월의 어느 날 오후부터였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교실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정은이가 벽면에 게시된 유아들의 글과 그림을 보고 있다가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 나비는 죽을 때까지 엄마를 한 번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엄마 나비는 알을 낳으면 하늘나라로 가니까!" 정은이는 울기 시작했고, 교실을 정리를 하느라 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나는 뒤늦게야 아이를 달래고, 왜 울었는지 물었다. 정은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비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나비가 이렇게 불쌍한 줄 몰랐어요! 나는 매일 매일 엄마를 만나는데…." 온종일 엄마를 기다리는 것이 현대사회 유아들의 일상이고, 정은이는 늘 학급의 어떤 아이보다도 더 오래 엄마를 기다렸기 때문에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날부터 나에게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다.

당시에 나는 유아들이 궁금해 하는 것, 주제에 대한 유아들의 질문거리와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것에 대한 유아들의 그림과 글, 함께 나눈 대화 내용을 교실 앞 쪽 벽면에 게시해 주었다. 벽면의 왼쪽 위에서부터 시작된 우리들의 이야기는 날마다 덧붙여지고, 점점 오른쪽으로 넓어지다가 결국은 벽면 전체를 가득 메우게 되었고, 그 즈음에는 새로운 탐구 주제를 정하고 새로운 놀이가 시작되곤 했었다. 완벽하게 구성된 공동작품을 전시하는 게시판과 달리 그 벽면은 아이들과 내가 얼마든지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하늘반 아이들은 아침에 교실에 들어오면 마주 보이는 그 벽에서 어제 했던 놀이와 우리의 대화, 놀이 속에서 찾아낸 고민거리들을 떠올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벽은 학급의 유아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하늘반 아이들은 나비의 생태에 관한 것들(나비의 날개와 다리가 몇 개인지, 더듬이가 왜 있는지, 애벌레는 아직 아가인데 태어나자마자 먹이를 어떻게 찾아내는지…)을 궁금해 했고, 아이들과 함께 궁금한 것을 알아내느라 한주를 바쁘게 보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 했던 것과 새롭게 알게 된 것에 관한 글과 그림, 대화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우리들만의 '나비'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무척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그 벽 앞에서 정은이가 울고 있었다.

정은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늘반 아이들이 나비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무엇이어도 상관없는 수많은 교수-학습 내용 중 하나에 불과한 '나비'가 유아에게는 단짝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무엇인가에 대해 탐구해 나가는 과정이 흥미진진하고 즐거운 것을 넘어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다는 것도 깨달았다. 나는 새로운 고민에 사로잡혔다.

'유아가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구나!
어쩌면 어른들 만큼이나 의미 있는 무엇을 발견해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이제부터는 어떤 놀이를 해야 할 것인가?'

삶의 의미에 대한 유아들의 질문은 새로운 주제를 다룰 때 마다 다시 등장하였다. 그해 가을 '천마총'이라는 주제를 마무리 할 즈음 유아들은 이렇게 질문했다. "왜 옛날 사람들은 왕의 무덤 속에 이렇게 많은 선물을 넣었어요?", "왕이 그걸 하늘나라에 진짜로 가져가지 못하는 줄 알았을 텐데…." 아이들은 어디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했다. "그 보물은 아마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 같아요. 우리한테 보여주려고요." 나는 유아들의 질문과 답을 들으며 박물관에 전시된 것들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던 유아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유아들이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과 '옛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유아 특유의 자기중심적이면서 따뜻한 사고방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달현 *저는요. 왕이 언제 무덤에 묻혔는지 궁금해요.*

교사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언제쯤이었을까?*

준영 *한 천 년 전에 묻혔을 걸?*

수아 *아주 옛날에 묻혔으면요. 사람들이 보물을 왜 무덤에 넣었는지 궁금해요.*

교사 *글쎄…. 하늘반은 어떻게 생각해요?*

준영 *천국에 가서 잘 살라고요!*

강찬 *하늘에서 잘 살라고요?*

수진 *그런데 진짜로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교사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민 *하하, 못 가져가요.*

준영 *당연히 못 가져가겠지…. 아마…,*
그렇게 많은 걸 무거워서 어떻게 가져가요?

하늘반 아이들 *(웃음)*

교사 *왕의 무덤에 물건이 엄청나게 많았지요? 준영이는 무거워서 하늘나라에 가져가지는 못했을 것 같대요. 그런데 왕이 물건들을 하늘나라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왜 무덤에 넣어 주었을까요?*

강찬 *우리한테요. 안 가져가고요. 우리한테 선물로 주려고요.*

교사 *우리한테 주었다고 생각해요?*

정민 *맞아요. 우리가 박물관에서 볼 수 있잖아요.*

달현 *공부!*

강찬 *그걸 보고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공부해요.*

교사 *하늘반은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었으니까*
우리한테 주었다고 생각하는구나!

겨울이 될 무렵에는 '비행기'를 주제로 다루었는데 하늘반 아이들은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 높이 올라가는지' 알고 싶어 했다. 쌓기영역에 관제탑과 활주로가 있는 공항을 만들고, 미술영역에서 엔진과 바퀴가 달린 비행기 만들기에 열중해 있었다. 수진이는 가장 빠른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인지, 비행기가 얼마나 높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이렇게 질문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 하느님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날 이야기나누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하늘반 아이들은 비행기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다음의 짧은 글로 정리하였다.

> 비행기를 타면 날 수 있어요. 우린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 제트기는 백두산 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제트기는 군인들만 탈 수 있어요.
> 군인은 20살이 되어야 될 수 있는데 빨리 군인이 되면 좋겠어요. 제트기를 탈 수
> 있잖아요. 글라이더는 높은 산에서 바람이 불어야 탈 수 있어요.
> 어른이 되면 글라이더를 조종 할 수 있어요. 글라이더를 만들 수도 있어요.
> 라이트 형제처럼…. 우리는 글라이더를 만들어서 높은 산에서 산 구경을 하고 싶어요.
> 그리고 하늘을 구경하고 싶어요. 하나님도 만나고 싶어요. 죽은 사람도 만나고요.
> 높이, 높이 올라가서 구름까지 높이 올라가서 구름도 만져보고 싶어요.
>
> – 2009년 11월 6일 하늘반 아이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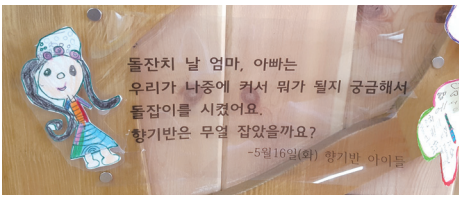
때로 유아들은 삶의 의미를 넘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문제까지 관심을 보였고, 나는 그러한 유아들의 끊임없는 요청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응답을 해야만 했다.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놀이가 유아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를 되짚어 보게 되었고, 지금까지 해 온 방식을 넘어선 무엇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교육 내용인 '주제'가 유아의 삶에 주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교수-학습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주제를 다룰 때 마다 학급 전체가 우리만의 특별한 의미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다음은 2017년 5월 '나'를 주제로 다룰 때 놀이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향기반 유아들의 이야기이다.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면서 유아들에게 '이름에 담긴 의미와 이름을 지어 주신 분'에 대해 알아오도록 하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그런데요. 선생님,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라고 불렀대요."라고 하면서 자기의 태명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 유아들은 "사랑이, 행복이, 구름이, 콩알이" 등 자신의 태명을 소개하면서 한껏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즐거워했고, 태명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이유에 대해 "너무 사랑하고, 귀엽고, 행복하니까?"라고 답했다. 유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랫동안 들어서 익숙하고 의미를 예측하기 쉬운 '태명'이 '이름'에 담긴 심오한 의미보다도 유아에게 더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 유아들이 '태명'을 통해 자신이 태어나기 전 이름을 불러주고, 아기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렸던 엄마, 아빠와 가족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향기반 아이들은 역할영역에서 무슨 놀이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돌잔치 놀이'를 선택했고, 평소 인기가 있는 '엄마, 아빠, 이모'역할보다 '아기' 역할을 하고 싶어 했다. 놀이를 평가하는 시간에 유아들에게 왜 역할영역에 드레스와 한복을 차려 입은 아기 인형이 돌잔치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덩치 큰 향기반 아이들이 아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유아들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친구들이 나를 예뻐해 주잖아요. 안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줘요. 진짜 아기처럼요." 그때야 비로소 왜 아이들이 '돌잔치 놀이'를 선택했는지, 아기 역할이 왜 인기가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놀이 속에서 '온가족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았던 아기 때로 돌아가 사랑을 받고 싶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다음 날 향기반 아이들은 '돌잡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신이 돌잡이에서 무엇을 잡았는지 소개하면서 무척 즐거워했다. 그리고 돌잔치에서 '판사 봉'을 잡았던 은서를 위해 '판사 봉'을 만들어 주려고 공을 들였다. 아이들은 아기역할을 맡게 되면 진짜 돌잡이 순간으로 돌아 간 듯 자신이 아기 때 고른 물건을 다시 선택했는데 이야기나누기를 하는 과정에서 은서가 돌잡이 때 잡은 물건이 역할영역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은서를 위해 '판사 봉' 만들기를 시작한 것이다. 향기반 아이들의 모습에서 유아들이 자신이 실제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열망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순간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놀이에서 나타난 경험의 의미들은 현재와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찾아 가는 것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향기반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자신의 모습, 지금 그리고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에 대해 며칠에 거쳐 이야기를 나눈 후 공동으로 완성한 이야기이다.



아기였을 때 우리는···

아기였을 때 우리는 아주 작고 통통했어요. 그리고 귀여웠어요.
엄마가 아주 많이 사랑해 주고, 하고 싶은 건 다 해줬어요. 목욕할 때는 머리도 감겨주고,
누워있으면 몸을 씻겨 주셨어요. 밖에 나갈 때는 모자를 씌워 주고,
맛있는 죽도 먹여 주셨어요. 아기였을 때는 하루 종일 마음대로 놀았어요.
밤에 잘 때는 아버지가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엄마가 자장가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토끼인형, 곰인형을 좋아했어요.
만화 캐릭터 잠난감 좋아했어요. 아기였을 때는 기어 다니고, 밖에 나갈 때는
엄마가 안아주셨어요. 미끄럼틀을 내려갈 때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아직도 인형이 좋지만, 좋아하는 장난감이
아주 많아졌어요. 공주인형, 조종할 수 있는 로봇이 더 좋아요. 전자게임을 좋아하고,
레고가 재미있어요. 우리는 혼자서 저 멀리 놀이터에도 갈 수 있어요. 미끄럼틀도
무섭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멋진 어린이가 되었어요.

우리는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놀 때, 정말 기분 좋고 재미있어요.
쌓기영역에서 설계도를 그리고 집을 짓는 것이 재미있어요. 같이 퍼즐을 맞추고,
게임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미술영역에서 만들기 하는 것도 좋고, 돌잔치 놀이도
재미있어요. 색종이로 어려운 것을 접을 때는 조금 힘들어요.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것도
어려워요. 유치원에 지각할까봐 급하게 올 때는 마음이 두근거려요. 밥을 빨리 먹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속상하고, 또 밥을 느리게 먹고 싶은데 자꾸 빨리 먹는 것도
힘들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정리할 장난감이 너무 많을 때도 힘들어요.
공부할게 많아서 힘들고, 눈높이 숙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태권도에 가면
쉴 시간이 없어서 힘들고, 발레학원에서 발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것도 어렵고,
글씨 쓸게 많을 때도 힘들어요. 어머니가 공부를 계속하라고 하시면 너무 심심하고,
팔에 힘이 없어져서 글씨를 또박또박 쓸 수가 없어요.
동생이 징징거릴 때 달래 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였을 때가 그리워요. 아무데도 안가고 집에서 놀고,
잠만 자면 편하고 좋으니까요. 집에서 엄마가 계속 돌봐주니까 좋은데 이제는 커서
돌봐주지 않으니까 슬퍼요. 아기였을 때는 내가 가벼워서 엄마가 안아주셨는데

이제 너무 커서 힘들어요. 엄마가 허리가 아프대요. 이제는 어부바도 못해요.
아기였을 때는 어머니가 나를 많이 안아 주셨는데 이제는 동생만 안아주셔요.

우린 모두 훌륭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아기가 되기는 싫어요. 키 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사람들을 지켜주려면 힘도 세고, 달리기도 잘해야 되요. 밥을 골고루 잘 먹고,
야채도 잘 먹고, 쑥쑥 커야 되요. 힘들어도 참고, 계속 열심히 최선 다해야 해요.
우리는 의사선생님이 되어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고 싶어요. 돈을 벌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해 주고 싶어요. 발레리나가
되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고 싶어요. 가장 노래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고,
감독님도 되고 싶어요.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들을 많이 놀게 해 주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가끔은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계속, 계속 공부하고, 연습을 하면 힘들 거예요.
멋진 일을 해내는 것은 다 힘들어요. 그래도 힘을 내서 끝까지 할 거예요.
우리는 멋지고 훌륭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 주는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 2017년 5월17일 향기반 아이들 –

향기반 아이들은 과거의 자신에 대해 소중한 존재로서 가족의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 했던 기억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고, 어엿한 어린이로 성장한 자신의 모습과 단짝 친구와 함께 하는 즐거움과 일상의 힘듦,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이야기로 표현하였다. 또한 미래의 삶에 대한 다양한 기대와 염려를 드러내고 있었다.

주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함께 놀이하고, 서로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유아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삶에 대한 각자의 의미들을 공유하게 되었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던 것 같다. 자기 자신과 또래 친구들의 삶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과 예술가, 운동선수, 위인들, 그리고 먼 나라의 아이들의 삶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그해 가을 생활주제 '세계 여러 나라'를 마무리 할 즈음 아이들이 선택한 주제는 '난민'이었다. 시리아 내전 중 도시 전체에 식량공급이 중단되어 기아로 목숨을 잃은 아이들의 모습이 연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고, 경찰과 군인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로힝야족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국경을 넘는 장면이 TV를 통해 방영되었다. 그 모습을 본 몇 명의 유아가 그 내용을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했다. 매일 아침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새로운 뉴스를 찾아보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주제가 마무리 될 즈음 아이들은 "싸움이 끝났으면 좋겠다.", "유엔에서 일하고 싶다", "돈을 주고 싶다.", "물과 음식을 사서 가고 싶다.",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싶다."고 이야기 했다.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아이들은 시리아와 미얀마 국기를 찾아보고, 유엔 깃발을 그림으로 그렸다. 미래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려 보는 아이들도 있었다.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난민 구호활동에 관한 대집단 게임을 계획했다. 아이들은 선물을 실어 보낼 비행기를 만들고, 자신이 보내고 싶은 구호물품을 그림으로 그려 빈 상자에 붙였다. 게임의 제목은 '사랑의 선물을 보내요'라고 정했다. 어려움을 겪는 세계의 친구들이 보낸 편지를 하나 골라서 읽고, 필요한 물건을 비행기에 실어서 먼저 도착하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었다.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고른 편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먼 곳까지 오느라 너무 배가 고파요."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아프리카 팀은 식량키트가 그려진 상자를, 시리아 팀은 생수병이 그려진 상자를 가지고 돌아왔다.

아이들에게 "서로 다른 물건을 가지고 왔네! 향기반은 어느 팀이 맞게 가지고 왔다고 생각해요?" 라고 질문했다. 아프리카 팀에 앉아 있던 민정이가 이렇게 말했다. "쉬지도 못하고 계속 걸어 왔으니까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른데 음식만 있으면 안돼요. 물부터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민정이의 의견에 동의했고, 민정이를 포함한 아프리카 팀 모두가 이를 받아들여주었다. 결국 식량키트를 가져온 아프리카 팀이 아니라 먼저 도착한 시리아 팀이 점수를 가져갔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게임의 승패를 떠나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공감하는 민정이, 그리고 비록 가상의 상황이지만, 놀이 속에서 먼 나라의 친구의 어려움에 진심어린 공감을 보여

주는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슬픔과 고난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놀이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음을 되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다.

겨울이 올 무렵 향기반 아이들은 '비행기'를 주제로 선택했다. 쌓기영역에서는 관제탑과 활주로, 공항 건물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고, 역할영역에서는 조종실과 객실, 승무원을 위한 공간 등을 만들어 항공사 놀이를

하고 싶어 했다. 미술놀이에서는 활주로를 날아갈 비행기와 항공사 놀이에 필요한 기내식, 무전기, 조종간, 조종사와 승무원의 이름표, 정비사의 귀마개 등을 만드느라 매일 분주했다. 놀이를 평가하는 시간에 유아들은 "친구들이 쌓기영역 옆을 지나가다가 관제탑 윗부분을 망가트려서 속이 상했다.", "승무원이 계속 음식만 가져다주어서 비행기 놀이가 아니라 식당 같았다.", "기장님을 했는데 캐나다 가는 표를 가진 손님과 프랑스 가는 표를 가진 손님이 비행기에 같이 타서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서 힘들었다.", "향기반 항공사에는 정비사가 없어서 위험하다."등의 문제를 이야기했고, 놀이 과정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주제를 마무리 할 즈음 놀이를 평가하는 시간에 향기반 아이들과 나눈 대화이다.

민서 *오늘 캐나다에 먼저 가서 좋았어요!*

진섭 *승객들이 전부 캐나다 표를 가지고 왔어요.*

지민 *비행기가 캐나다라고 (표시가)되어 있어서 친구들이 다 캐나다 표를 샀어요.*

기현 *그런데 (비행기)번호가 72번이었어요.*

민 *역할영역에서 놀이하는데 짐 넣는 칸이 5번까지밖에 없어가지고 6번 손님은 다른데 넣어야 되요.*

민서 *6번 손님은 너무 불편하겠어요. 짐 들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진섭 *그런데 저 다섯 번째 짐칸이 크니까 반 나눠 쓰면 좋겠어요.*

윤재 *의자 앉을 때요. 불편한 점이 안전벨트 때문에 불편해요. 안전벨트 가운데가 열리면 좋겠어요.*

민 *의자가 뒤로 안 넘어가서 앉으면 불편해요.*

민서 그런데 승무원이 안내방송도 하고, 밥도 주고 이것저것 하니까 힘든데,
친구들이 해 달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힘든 것 같아요.

기현 민서가 의자에 번호를 붙여 놨어요. 초록색 종이에요.

민서 오늘 윤재랑 저랑 똑같이 1번 표를 받았는데
민이가 내 표를 2번으로 고쳐줘서 고마웠어요.

교사 우리가 그동안 비행기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는데
어떤 것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민서 비행기는 10000미터까지 날 수 있어요. 너무 멋있고, 너무 빨라요.

민 활주로에 이상한 물건이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치워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채은 운전하는 기장님도 밥 먹는 게 기억에 남았어요. 신기했어요.

문혁 공항에서 새를 쫓아야 되는 게 신기했어요.
비행기에 들어 갈까봐 큰 소리 나는 총을 써요.

민서 비행기 정비사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 한다는 것이 기억에 남아요.

지민 그거 그 새들이 있는데 총으로 쏠 때 저는 새를 죽이는 줄 알았어요.

민 승무원은 음식도 줘야 되고, 손님들한테 불편한 게 있으면 다 해줘야 되니까 힘들 것 같았어요

채은 승무원도 이륙할 때 자리에 앉아야 된대요. 그냥 일어서서 내내 손님들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놀이 과정에서 향기반 유아들은 자신이 실제로 승객과 승무원, 기장과 정비사가 된 것처럼 행동했다. 기장을 맡은 유아는 비행기에 목적지를 표시하고, 좌석에 번호를 붙였다. 승객들은 목적지를 확인한 후 표를 사고, 승무원은 좌석 번호가 같은 손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자리로 안내해 주었다. 놀이 속에서, 놀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유아들이 승무원과 기장, 정비사의 역할과 직업적인 고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모습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은 유아들이 1년 동안 학급에서 경험하는 놀이를 통해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지 느끼고, 발견하게 해 주었다. 놀이 속에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고, 서로의 삶에 공감하며, 유아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해 의미를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는 이렇게 함께 성장하고, 꿈을 키우는 것이 놀이를 통해 학급에서 유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유아들의 놀이 친구인 척 하지만,
언제나 나는 어른일 뿐…

놀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오늘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기를 바라는지 함께 모여 의논하는 시간은 학급에서 하루 일과 중 가장 길고, 열띤 토론이 벌어지는 시간이다. 그 시간에 유아들은 놀이 속에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마음껏 드러낸다. 그리고 각자가 마음속으로 떠올린 상상의 세계를 내 보이면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결의를 다진다. 유아들과 오랜 시간 함께 지내왔기 때문에 놀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는 것이 늘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2016년 가을, 하늘이 아름답게 느껴졌고, 산책길에서 아이들과 자주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구름을 관찰했다. 그리고 한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아이들에게 존 버닝햄의 '구름나라'를 읽어주었다. 아이들은 역할영역을 '구름나라'로 꾸미고, 구름나라의 아이들이 되어 마음껏 놀고 싶다고 했다.

역할영역 바닥에 큰 비닐을 펼쳐놓고 물감으로 가을 하늘을 칠하고, 구름을 그려 넣었다. 그리고 마분지에 화장지와 솜을 붙여서 자기만의 구름을 만들고, 그것을 가방처럼 맬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여왕님이 쓸 왕관을 만들고, 천둥소리를 내려고 음률영역에 있는 악기를 역할영역에 옮겨 놓았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나는 아이들을 기쁘게 해 주려고, 역할영역 천정에 커튼 봉을 매달아 유아들이 그려놓은 구름을 걸어 놓았다. 아이들이 부탁한 대로 구름을 어깨에 걸칠 수 있도록 끈도 달아 놓았다. 다음 날 아침, 한껏 기대에 부풀어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었던 나와 달리 아이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놀이를 계획하는 시간에 '구름나라' 이야기가 나오자 유아들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건넸다. "선생님 때문에 다 망쳤어요! 구름 위에 올라가서 놀고 싶었는데, 이제 저기 못 올라가잖아요." 유아들은 자신들이 그린 구름을 바닥 또는 침대 위로 옮겨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날 아침, 복도를 지나며 창밖으로 역할영역을 들여다 본 동료들과 원감선생님이 "가을이 향기반 교실에 들어왔다."며 반색을 했기 때문에 차마 구름을 떼어 낼 수 없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다시 한 번 구름을 그려달라고 부탁했다. 아이들은 '오늘도 놀지 못해 아쉽다'고 투덜대면서도 한 번 더 구름을 그려주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업 연구 대회의 심사를 받던 날, 교실을 방문한 어른들은 하나같이 '가을 하늘이 멋지다'는 칭찬을 남겼다. 유아들이 상상의 세계를 대하는 태도와 성인들의 관점이 극명하게 대비되었던 그 사건 이후에 나는 혹시 내가 유아들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음대로 나서는 것이 아닌지 조심하게 되었다. 유아들의 놀이에 방해꾼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이 무색하게, 지금껏 나는 하루를 머다 하고 '교사인 내가 놀이 속에서 여전히 친구인 척 하는 어른일 뿐임을' 실감하며 지내고 있다.

'유아중심 교수-학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던 초임 시절을 지나, 놀이경험이 유아의 삶에 주는 의미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는 교사로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관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 왔던 것 같다. 되돌아보면 이제 곧 완벽한 성공에 이르게 될 것만 같은 절정의 순간에 이르렀다가도 어느새 그동안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도무지 끝을 알 수 없는 새로운 지평을 향해 발걸음을 내디뎌왔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놀이의 의미도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놀이중심교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의 나에게 묻는다면, 놀이를 통해 유아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 그리고 놀이 속에서 삶의 이야기들을 한껏 펼쳐놓고, 이야기와 놀이가 끝없이 이어지면서 놀이가 아이들의 삶이 되어가는 것이라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유아들과 함께 놀이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학급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때때로 나는 고민에 빠진다. '유아들의 놀이는 즐거우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놀이가 그렇게 진지하고 어려울 필요가 있는가?'라는 목소리들을 마주하게 되면 놀이가 유아의 삶에, 그리고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묻게 된다. 그래서 '놀이가 무엇일까?' 언제나 그래왔듯이 오늘도 역시, 놀이에 대한 오늘의 이해와 오늘의 해석과 오늘의 앎은 새로움을 향해 달려간다.

저마다의 결대로 행복한 바깥놀이

공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김수옥**

다섯 살부터 일곱 살까지 1학급 8명의 아이들과 날마다 바깥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교사다.
도시로 나가 번듯한 직장을 갖해 살기를 바라는 농촌의 부모님들을 보고, 씁쓸하기도 하고
뿔따구가 나기도 해서 도시에서는 어렵고, 시골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다가 자연과
사람으로 이어지는 바깥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운동장을 나가면 논과 밭으로 이어지고, 그 끝에는 마을이 있어 '자연'과 '사람'을 만나며
'교감'하는 일이 즐거워 매일 나가고 싶지만,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어떻게 하면
교실에서도 즐겁게 놀 수 있을까 궁리중이다.

교실에서는 소란스러움과 어질러짐으로 바짝 날이 섰다가도 바깥에 나가면
아이들도 교사도 저마다의 결대로 자유롭게 놀며 행복감을 느끼는 바깥놀이가 너무 좋아서,
맘껏 놀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토닥이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교실에서는 무능하다고 여겼던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면 눈빛이 살아나고,
목소리가 당당해지면서 주인공이 되었다. 교실에서는 서로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았으니
무척 힘들어 하는 나에게도 바깥놀이에서 만나는 햇살 한 줌과 시원한 바람은 큰 위로가 되었고,
막힌 숨통을 트여 주었다. 서로가 행복할 수 있다면 바깥놀이 시간을
더 늘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뼛속까지 교사인 나는 늘 불안해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자연을 매개로 아이들과 나를 접속하게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대화를
주고 받으며, 서로를 받아들이는 교집합의 크기를 조금씩 넓혀갈 수 있었다.
아이들의 유능감과 자신감 또한 부쩍 성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유치원 놀이터에서 시작한 바깥놀이가 운동장으로, 교문밖 논과 밭으로 이어지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마을로 넓어지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긍정과 가치를
배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바깥놀이,
유일한
위로의 시간

겨울방학이 시작된 지 3일째,

간만에 늦잠을 즐기고, 식탁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아이들의 앨범 작업을 시작한다.

사진 한 장 한 장 속에서 지나온 1년을 다시 만난다.

교실 밖에서 찍은 사진들이 더 많은 걸 보니 역시나 바깥세상을 향한 내 마음이 보이는 듯하다. 햇살이 좋은 날은 햇살이 좋아서 밖으로 나가고, 비가 오는 날이면 비를 맞으러 밖으로 나가고, 꽃이 피는 날은 꽃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다. 운동장, 놀이터, 논과 밭, 저수지, 숲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마을 이곳저곳을 쏘다니며 놀았다.

나에게 바깥세상은 어떤 의미일까?

잠시 생각을 더듬어, 2014년으로 시간을 되돌려본다. 그 해 9명의 아이들 중 7명이 남자 아이들이었다. 교실은 늘 장난과 소란스러움으로 가득했고, 나는 종일 "교실에서의 약속은 뭐였지?", "얘들아~ 정리는 언제할

거니?", "얘들아~ 사이좋게 놀면 안될까?"하며 규칙을 세우고, 질서를 잡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교실의 소란스러움과 부잡스러움에는 남자 아이들의 몫이 컸다. 엉뚱한 얘기를 곧잘하는 아이, 말이 느리고 별 거 아닌 것에도 깔깔대며 웃는 통에 분위기 깨기 일쑤였던 아이, 예민하게 날이 서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이유로 한 달이 넘도록 등원을 거부하던 아이, 하루에 한 마디 말도 안하고 눈만 껌벅거리다 가는 아이, 온갖 백과사전적 지식을 뽐내며 친구들과 툭하면 말싸움을 하는 아이까지! '도대체 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좌절하며, 그 무렵 유행하는 교육마술이라도 배워서 아이들의 시선을 끌어봐야 하나 심정으로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었다. '난 어떤 아이들과도 잘 지낼 수 있어'라는 나름의 자신감(자만심^^)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런 일상에서 유일하게 숨통을 트이는 시간이 바깥놀이 시간이었다.

바깥에 나가면 아이들은 각자가 하고 싶은 일들로 분주해서 다툼이 적으니,
나 역시 잔소리가 줄었다. 예민하던 아이도 그 시간만큼은 꼬치꼬치 나에게 이유를 대지 않아서,
나 또한 날이 서지 않아도 괜찮았다. 뻥 뚫린 공간에서의 소란스러움은
그다지 귀에 거슬리지 않았으며, 교실처럼 영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
물건들을 여기 저기 어질러놓아도 대충 정리하면 괜찮았다.

무엇보다 따스한 햇볕을 쪼이며 놀이터에 피어난 풀꽃 한 송이, 텃밭의 상추 싹 하나를 들여다보는 시간만큼은, 내가 유일하게 위로받는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바깥놀이 시간이 40분을 넘어가면 슬슬 내 몸이 신호를 보내왔다. 습관이란 참 무서운 법이다. 시계를 보지 않으려 해도 40분쯤 되면

자동적으로 시계로 눈이 가고, 가까이에 있는 장난감들을 주섬주섬 담기 시작한다. "얘들아~ 들어가야 할 시간이야!", "에이~~ 조금 만 더 놀면 안돼요?", "충분히 놀았잖아~ 지금부터 정리하세요." 자유선택활동 후 간식을 먹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바깥놀이를 하고 와서 대소집단 활동 하나쯤은 전개하는 시간표에 따라 거의 20년을 살아왔으니 내 몸이 기억하는 게 틀림없다. 글쎄, 그런 시간표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씁쓸하구나…
아이들의
고단한 삶

3월을 어찌어찌 넘기며 가정방문이 시작되었다. 부모님들께 묻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았다. 가정에서는 아이들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책은 좀 읽어주시는지, 생활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항변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 가뜩이나 어려운 원아모집과 다문화 가정 부모님들의 요청으로 아침 7시부터 돌봄 교실을 시작한 때라 일찍 오는 아이들은 무려 10시간을 유치원에서 보내고 있었다. 내비게이션도 잘 찾지 못하는 구불구불한 시골길을 전화로 물어가며 아이들의 집을 찾아간다.

조선족으로 중국에서 오신 현준이 어머니는 지역의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일을 하고 계셨다. "쫌 늦어서 7시 10분까지 가면 30분 시간을 까는 거예요. (7시 30분 출근으로 인정된다는 의미임) 그래서 아침밥은 먹일 수도 없고, 자는 애를 깨워서 그냥 차에 태우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 미안합니다." 하신다. 주말에는 형이랑 게임을 하거나, 닭이나 개랑 놀거나, 엄마를 도와 텃밭 일을 하면서 지낸단다. 베트남에서 오신 영주 어머니는 오리 가공 공장에

출근하신다. "공장 일 빠지면 다음에 안 불러줘요. 나도 아이랑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지금 벌어서 저금해 놔야 대학도 보낼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우리 아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서툰 한국말을 정리해보니 대충 그런 내용이다. 말씀하시는 동안 그렁그렁 눈물이 맺힌다. 유치원에서 5시까지 일과를 마치고도 아이들은 집으로 가지 못했다. 지역의 아동센터나 공부방으로 가서 학습을 하고, 밥을 먹은 후 7시 쯤 집으로 돌아갔다. 유치원이 끝나고 곧장 집으로 가면 안 되는지 여쭤보니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퇴근이 6시란다. 농사짓는 분들은 초등학생 형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가니, 유치원생 동생도 같이 가서 저녁밥까지 먹고 오는 게 일손을 덜어주는 일이라 하신다. 그럼 주말에는 어떻게 지내나요? 모를 심거나 배를 수정시키는 봄철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열어 아이들을 돌봐주기도 하고, 센터에 오기 어려운 아이들은 주로 집에서 TV를 보면서 지내고 있었다. 또, 단 1명 아이도 예외 없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어린이집에 맡겨졌음을 알고 나서는 더욱 아이들의 삶에 놀랐다.

부모님들은 먹고 사는 일이 너무 바쁘다고 한다. 내 자식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열심히 돈 벌어 뒷바라지 할 테니,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나와 도시에서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살았으면 하신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씁쓸하고 서글펐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가장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종일 기관에 맡겨져 있고, 부모님은 뼈 빠지게 일해도 도시처럼 풍요롭고 넉넉한 살림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 할 수만 있다면 농사짓고 살고 싶지 않지만, 이것밖에 할 게 없으니 이거라도 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자기 부정과 절망감이 전해져왔다. 부모님들에게 있어 삶의 터전인 이곳은 고생, 빈곤, 결핍과 동의어였으며 도시는 풍요와 안락, 동경의 이미지로 담겨있었다. 그렇다면 도시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을 비교해

부모님들이 말하는 좋은 대학에 누가 많이 갈 수 있을까? 답은 뻔하지 않은가! 그럼 교육은 무슨 의미가 있지? 전남에서 교사로 살고 있는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모두가 도시를 열망하게 만들고 있진 않았을까?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된다면 모두 도시로 나가서 살아야겠구나!!

불공평했고 불합리했다. 화도 났다.

그럼 우리에겐 뭐가 없을까?

도시에서는 어렵고, 우리는 가능한 것들!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긍정과 가치를 찾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자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도시에서는 숲 유치원, 공동육아 등이 번지면서 자연에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집이건 유치원이건 문만 열면 마당을 밟을 수 있고, 주변에는 과수원과 논, 밭이 있고 동물들을 쉽게 만날 수 있으니, 자연으로 나가보자 생각했다. 생후 얼마 되지 않아 기관에 맡겨지고, 종일 실내에서 지내온 아이들에게 충분한 바깥놀이를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마음에 새기며, 교실에서 가르치는 일에서 힘을 빼보자 생각했다. 바깥놀이 시간은 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행복했으니, 할 수 있겠다 싶었다. 그 무렵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너도
꽃이었음을
이제야 알았네

봄기운이 완연해지는 4월 어느 날

유치원 인근에 있는 들로 산책을 다녀오는 길에 연분홍 복숭아꽃을 보게 되었다.

복숭아 꽃 주변에는 벌들이 모여 있었고, 한참 동안을 들여다보던 현준이는 떨어진 복숭아꽃을 주워 교실로 돌아왔다. 현준이는 초등학교 6학년 형을 따라 우리 유치원에 온 아이다. 장난기 많고, 궁금한 게 많은 현준이는 수업 시간에는 잘 집중하지 못했다. 수업 중에 저 혼자 조용히 있으면 좋으련만, 손톱을 물어뜯거나, 창밖을 보거나 다리를 까닥이다가 결국 옆 친구에게 장난을 걸면서 주의를 받는 일이 많았다. 하지 말라고 해도 끝내 숨어서라도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마는 녀석이라 바깥에 나가도 부잡스런 행동이 많았다.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아이는 아니었지만, 교사인 나는 현준이와의 수업 시간이 부담스럽고 불편했다. 내심 '저 녀석 커서 뭐가 되려고 저러나~집중력이 부족해' 하며 현준이를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날이 많았었다. 그날은 내

마음까지 부드럽게 녹여준 봄바람 덕분에 내 마음도 느긋해졌는지, 현준이와 함께 루페로 복숭아꽃을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교사 *도대체 벌들은 어떻게 꽃들이 있는 줄 알고 찾아왔을까?*

현준 *선생님은 그것도 몰라요? 사람은 전화로(소식을) 알지만, 벌은 냄새로 알아요. 꽃가루가 결혼을 시켜주라고 냄새가 나요. 벌은 일만해요. 잠자다가도 냄새가 나면 일어나요.*

사실 현준이가 대답할거라 기대하고 물었던 것은 아니었다. 솔직히 대답할 수 있을 거라 생각지도 않았다. 그런데 현준이의 말에 가슴이 벅찼다.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었다. 이 아이가 벌과 꽃을 보며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자기 식으로 드러내고 있음에 뭉클했다.

교사 *우와~~ 선생님은 생각지도 못했네. 벌들은 꽃가루가 있어서 오는구나. 그래서 복숭아꽃에도 벌들이 왔구나!*

교사의 반응에 현준이는 멋쩍은 듯 웃으며 복숭아꽃 냄새도 맡고, 손가락을 복숭아꽃 속으로 집어넣어 끈적이는 것을 혀에 가져다 대어보기도 했다. 그런 현준이를 도리어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또 물었다. 사실 현준이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싶기도 하고, 한발 더 앎의 세계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물었다.

교사 *근데 꽃가루는 어디 있는 거니? 선생님은 잘 안 보이는데, 넌 꽃가루가 보이니? 방금 먹어보니까 맛은 어때?*

신이 난 현준이는 복숭아꽃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었다.

교사 *와~ 이렇게 생긴 거였어? 신기하네.*
(교사의 반응에 신이 난 현준이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현준 *선생님~ 내가 또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칠판에 복숭아꽃의 모양새를 척척 그렸다. 현준이의 관찰력과 그림그리기에 감동한 나는 이후 현준이에게 많은 도움을 청했다. 상추씨앗 받는 법, 마른 낙엽 긁어모아 불을 피우는 법, 고구마 캐는 법까지. 엄마와 늘 함께 밭일을 해 온 현준이에게 텃밭은 놀이터였고, 살아있는 교과서였다. 현준이는 가끔씩 TV에서 보았던 장면을 연출해 보고 싶어 하기도 했다. 정글에서 생존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와서는 나무막대를 비벼 불 피우기도 도전하기도 하고, 과학영역의 돌멩이를 부딪치면 불 냄새가 난다며 코에 들이밀기도 했다. 이제 자신이 알아가고 발견하는 것들에 대해 매우 당당하게 말하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교실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바깥세상에 관심이 많았던 현준이에게 교실은 어떤 곳이었을까 생각해본다. 자신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책상다리와 바르게 앉기를 요구하는 교사 앞에서 자신의 몸을 통제하고자 나름 애쓴 방법이 손톱 물어뜯기나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였겠지…. 정글에서 줄을 타고 동물과 교감하기를 즐기는 타잔에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바르게 앉아요! 글과 그림으로 생각을 표현해 보세요! 다른 방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라고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달랐을까?

도시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유능함을 발현할 수 있는 장(場)이 다르다면, 우리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리라!

바깥세상은 교과서

바깥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놀잇감이 되었다. 돌멩이, 풀, 무덤, 나뭇가지, 굴러다니는 스티로폼 조각까지도 모두 놀잇감이 된다. 재미있게 생긴 돌멩이를 보면 이야기가 시작된다. 별 의미 없었던 돌멩이가 공룡도 되고, 코뿔소도 되더니 이내 이야기가 이어지고, 한명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여럿이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되었다.

네 아이의 돌멩이 이야기

외로운 치타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전화번호도 잊어버렸어요. 코뿔소를 찾아가서
"코뿔소야! 같이 살래?" 그러자 코뿔소는
"응"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을 지어서 사이좋게 밥도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자.
같이 누워서 잠잘 수 있는
좋은 침대를 만들자.

침대도 있고 식당도 있는
멋진 집이 되었습니다.
아주 튼튼한 집이었습니다.

돌멩이로 놀이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이야기를 받아 적어, 그림책으로 만들어주니 두고두고 꺼내어 보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책이라고 좋아한다. 너무나 소중한 책이라서 값은 무한만원이란다.

난 그동안 그림책을 읽어주며 잘 듣지 않는 아이들을 책망하거나, 아이들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는 주제로 이야기나누기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능력 없음을 탓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아이들을 통해서 새롭게 경험하는 것들이 많았다. 말 한마디 안하는 부끄럼쟁이 다섯 살 아이가 운동장의 정글짐을 꼭대기까지 올라가서는 해 냈다는 만족감에 감추고 싶지만 감출 수 없어 퍼져 나오는 입가의 미소를 보면 나 또한 행복했다. 낮잠 자는 게 싫어서, 급식실에서 밥 먹는 게 싫어서, 물감이 묻으면 곧장 닦아줘야 한다고 떼쓰던 아이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풀 냄새를 맡더니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빵 냄새가 나요." 할 때의 뭉클함. 옷이 더러워지는 것쯤은 별 게 아닌 일이 되어 있는 아이에게서 세상과 타인을 향한 날카로움과 예민함이 무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른 봄 묵혀 둔 밭에는 냉이꽃이 가득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숨바꼭질 놀이를 하자고 한다. "그럼 술래는 누가하지?", "선생님이 술래해요~~" 눈웃음 치며 애교 부리는데 어떻게 들어주지 않을까? 태어나서 나도 처음으로 냉이꽃밭에 납작 엎드려 본다. 냉이꽃으로 풀꽃반지도 만들어 보고, 맵싸한 냉이꽃맛도 보며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또 하나 만들어간다. 바깥에서는 그저 노는 것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자연은 아이들과 나에게 가까이 와서 보라고, 만져보라고, 냄새 맡아 보라고, 느껴보라고, 먹어보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그 부름에 충실히 응하며 그것들을 누렸고 서로에게 나눠주었다. 바깥의 모든 것들은 교과서였다.

어떻게든
하고야 마는
아이들이니까

남자 아이들은 특히나 막대를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 총싸움, 칼싸움을 비롯하여 지팡이도 되었다가 낚싯대로도 변신하니 아이들에겐 요술봉이 따로 없다. 그래서 인지 막대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것인데도 소중한가보다. 주변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데도 맘에 드는 막대를 발견하면 기어이 유치원까지 들고 온다. 교실까지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것을 겨우 겨우 말려 비밀장소에 숨겨둔다. 하지만 막대라는 그 물건! 교사에게는 참 달갑지 않은 놀잇감이다. 눈이라도 찌를까 막대를 올렸다 내리기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다섯 살 동생들은 앞뒤 분간 못하고 막대를 휘두르니,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하지만 아이들이란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하는 존재가 아니다. 어떻게든 하고야 마는 게 아이들이니, 포기 절반, 허락하는 마음을 절반씩 잘 섞어 제안해본다. "얘들아~ 너희 펜싱하는 거 본 적 있니? 칼로 하는 경기인데 너희들 막대로 해보면 어때?", "좋아요! 좋아!" 운동장 한쪽에 펜싱 경기장을 대충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그럴싸하게 시범을 보이니,

빨리 하고 싶단다. 나는 심판이 되고 아이들은 선수가 되어 정중하게 인사도 하고, 소리도 지르며 겨룬다. 두 세판 진행되니, 각자가 원하는 상대를 고르게 해달라고 요구한다. 가만히 보니 이길 만한 상대를 고르는 아이, 오래도록 경기하고 싶어서 실력이 비슷한 친구를 고르는 아이, 가장 센 아이에게 덤벼보겠다는 아이, 심판을 해보고 싶다는 아이까지 나름의 색깔이 드러난다. 나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점 아이들에게 주도권이 넘겨지고, 펜싱경기는 한동안 아이들이 즐기는 놀이가 되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우선 다칠까봐 염려하며, 놀이를 제지하거나 다른 놀잇감을 제시하며 주의를 돌리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나무막대에 빠져드는지 들여다보려고 노력한다. 섣불리 내 기준으로 놀이와 놀이 아닌 것을 구별해 버리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렇게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어떻게하면 하고 싶은 놀이를 안전하게, 그리고 서로가 즐겁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며, 스스로를 토닥여본다. 잘하고 있다고.

오감으로 체득하는
바깥놀이,
그래서 좋을 수밖에

텃밭에 심었던 고구마를 수확하는 날~ 아이들과 고구마를 구워먹자고 약속하고 말았다. 약속을 했으니 고구마를 구워야겠지만, 이것저것 준비할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진다. 괜히 고구마 구워먹자고 약속 했나 후회도 해보지만 입 밖으로 뱉은 말이니 주워 담을 수도 없다. 불을 피워도 괜찮을 장소를 생각해본다. 주변에 불이 옮겨 붙지 않을 곳을 찾다보니 운동장이 눈에 띈다. 근데 운동장 한 가운데서 구워먹자니 뭔가 분위기가 안 산다. 너무 노출되지 않고, 우리들끼리 은밀하게 구워먹을 장소를 찾고 보니, 교장선생님의 사택 앞마당이 물망에 오른다. '그래도 학교 안에서 불을 피우는 것이니 교장선생님께 말씀은 드려야겠지?' 아이들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얘들아~ 우리 교장선생님 집 앞마당에서 구워먹는 거니까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누가 가서 말씀드릴까? 너희들이 가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하며 슬그머니 뒤로 빠진다. "저요!! 저요!! 제가 갈게요~" 행동파 녀석 셋이 손을 번쩍 든다. "근데~ 가서 뭐라고 말씀드릴 거니? 자, 선생님이

교장선생님 해볼게. 말해보세요~"하며 교장선생님 흉내를 내고 즉흥극이 시작된다.

아이들 교장선생님~고구마 구워먹을 거예요.

교사 고구마를 구워먹는다고? 어디서 구워먹을 건데?

아이들 유치원 있는데, 교장 선생님 집이요.

교사 그러다가 교장 선생님 집 다 불태우는 거 아니냐?

아이들 (키득거리며) 아니에요~

교사 고구마는 어디서 났어?

아이들 우리가 캤어요.

교사 그거 교장선생님이 지난 여름에 사다가 심어준건데, 너희들만 먹을 것이냐?

아이들 아니요~ 교장선생님도 줄게요.

아이들도 웃고 나도 웃는다. 연습한 대로 교장선생님께 가서 말씀드리니, 불조심 당부와 함께 OK! 이젠 불을 피울 나뭇가지를 모으러 운동장으로 출동!

어떤 것을 모아야 불에 잘 타는지 알 길이 없으니 젖은 낙엽이고 마른 낙엽이고 닥치는 대로 긁어모은다. 아이들의 모습을 적었던 그날의 기록을 가져와본다.

군고구마 잔치를 열다 - 2014. 11. 5

수확한 고구마로 군고구마 잔치가 열렸다. 아이들은 야외에서 불을 피운다는 것만으로 완전히 흥분했다. 불을 피우기 위해 마른 낙엽과 나뭇가지를 모으기로 하고 밖으로 나간 아이들이 어떤 나뭇가지를 고를지 궁금해 하며 묻는다.

시훈 *어떤 나뭇가지 찾아요?*

현준 *마른 거 찾아야 돼. 이렇게 부러뜨려봐~ 그러면 탁 소리가 나는 거 찾아*

시훈이는 나뭇가지를 주워 몇 번이고 부러뜨려본다.

시훈이는 자연에 다가가 몸으로 체험하는 모습이 많이 성장했다.
먼저 체험하기보다 한발 뒤로 물러나 지켜보거나, 작은 것까지도 교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던 아이였는데, 마른 나뭇가지를 찾기 위해 줍는 가지마다 부러뜨리며, 자기만의 감각을 찾고 있었다. 현준이도 자연에 나오면, 생기가 살아나면서 친구들에게 가르쳐주기를 즐긴다. 교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아이들끼리 묻고 답하며, 이 날의 고구마 굽기가 진행되었다.

고추만 매운 게 아니네요 - 2014. 11. 5

고구마를 굽기 위해 마른 낙엽만 긁어모으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11월이라 밤새 내린 서리로 응달진 곳은 쉽게 마르지 않을뿐더러 땅은 늘 축축하다. 축축한 낙엽과 덜 마른 나뭇가지에 불이 붙자 연기가 나며, 코와 눈이 따갑다.

교사 *아이고 연기가 맵다!! 호수야~ 저 쪽으로 가거라.*

호수 *어? 연기가 매워요. 왜 연기가 맵다 그래요?*

교사 *그럼 너는 뭐가 매운데?*

호수 *고추랑 고추장이 매운 거지. 연기는 매운 게 아닌데~*

교사 *그래? 호수는 고추랑 고추장만 맵다고 생각하는구나.*

불 피우기에 빠져 낙엽과 나뭇가지를 던져 넣느라 헤~ 입을 벌리고 돌아다니던 호수의 목구멍으로 매캐한 연기가 들어가자

호수 *캐~~액, 으~~ (매캐한 연기가 섞인 침을 뱉으며) 연기가 맵네!!*

교사 *하하!! 고추장만 매운 게 아니고 연기도 맵지?!!*

호수 *크큭~~^^*

학기 초에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궁리해보기 이전에 교사에게 물어보던 아이들이 서로 궁금한 것을 묻고 대답하며, 직접 해결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땔감으로 쓸 마른 낙엽과 나뭇가지를 모으기 위해 아이들은 그늘진 곳과 햇살이 비치는 곳의 낙엽이 다름을 찾아낸다. 양달의 낙엽도 긁어모으다 보면 아래쪽은 축축하게 젖어있다는 것도 알아차리고 현준이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준다. 다섯 손가락을 갈퀴처럼 오므려 마른 낙엽을 위에서 살살 걷어내듯이 긁어모으면 쉽게 담을 수 있다고 말이다. 현준이의 모습에서 보여지 듯, 자신의 몸이 도구가 되고, 어디선가 보았던 갈퀴라는 도구를 자신의 손가락에 적용시키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채민이는 낙엽을 모으며, 낙엽 소리를 민감하게 느끼고 표현하였다.

평소 아이들에게 동시를 가르쳐보면, 별 흥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날은 체험하며 느낀 것들이 그대로 말로 옮겨지고, 거기에 즐거움이 더해지니 굳이 동시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그대로 시 한편이 되었다.
이후로도 종~ 종~ 교실에서 내가 먼저 "낙엽소리 누룽지소리~" 하면 아이들은 "바삭! 빠삭!" 하며 서로 웃는다.

그 웃음 속에는 우리들만의 고구마 구워먹던 추억이 스며들어 있는 우리들끼리만 통하는 비밀의 대화라고 할까?

호수의 이야기에서 보면 자연에서의 감각적인 체험이 언어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평소 맵다는 단어는 음식과 관련되어 한정적으로 인식되었던 아이에게 연기라는 것이 매울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치는 순간이었다.
책에서 연기가 맵다는 것을 배운 아이는 연기란 회색빛이며, 연기 때문에 재채기하는 시각적인 장면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코와 입, 눈으로 연기가 맵다는 것을 체험한 아이가 떠올리는 연기는 어떨까?
코와 목구멍에서는 매캐함이 느껴지고, 눈은 따끔거리며, 군고구마를 구워먹던 아름다운 기억까지 온 몸이 떠올려 줄 것이다. 오감으로 느끼는 자연에서의 체험은 아이들의 감각을 자극하고, 몸을 사용하게 만들며, 몸을 통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을 통해 사고도 넓어지게 하는 힘이 있음을 느낀다.

고구마를 길러내고 수확하여 나눔까지 경험하는 동안 아이들은 행복해 했다.
고구마 굽기는 아이들에게 신명나는 놀이었고, 놀이 그대로가 학습이었다.

바깥세상은
마을과 사람으로
이어지고

지금의 유치원에서 바깥놀이터는 자연과 더불어 마을로도 이어지고 있다. 산책하는 길의 끝자락에는 119구조대가 있어 아이들은 늘 그곳을 궁금해 했다. 궁금해 하면 방문해보는 것이 좋을 테니, 전화를 드려본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무적인 목소리

"선생님~ 여기 공산면 보다는 나주시에 있는 119센터가 훨씬 시설도 잘 되어 있어요. 그곳으로 가시면 소화기 사용법부터 화재대피훈련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려면 공문 발송하셔야죠. 갑자기 오신다고 하면 됩니까? 공공기관이잖아요!"

나를 책망하는 듯한 목소리에 은근히 속이 상한다. 산책길에 늘 만나는 119 지구대가 아이들과 나는 반가웠건만,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은 굳이 유치원 아이들까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신 듯 했다. 숨을 한번 내쉬고, 침을 꼴깍 삼키며 얘기를 이어간다. "아니요~~ 그게 있잖아요. 저도 나주시에 있는 소방서는 여러 번 방문해 보았는데, 우리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우리 마을의 119구조대를 보게 해 주고 싶었거든요. 비록 시설은 변변치 않더라도 산책 가는 길에 늘 보게 되니까, 아이들은 궁금해 하고 꼭 가보고 싶어 했거든요. 멀리 있는 나주시 소방관보다 저는 가까이에 있는 분들을 만나기를 바랐기 때문인데, 많이 부담되시나요? 저희들이 방문 가능한 날짜를 알려주시고, 공문은 어디로 보낼까요?!" 마음을 몰라준 섭섭함에 나도 말 꼬리에 힘이 들어간다. 공문을 받을 수 있는 인근의 센터를 알려주고 전화는 끊겼다.

'휴~~ 뭐 하나 쉬운 게 없어. 산책 가는 길에 불쑥 찾아갈 걸 그랬나?'싶기도 하고, 상처받은 자존심에 그만두려다가 은근 오기가 생긴다. 공문을 보낼 인근의 센터로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 드리니 "아~ 선생님! 그런 뜻이 있었군요. 아마 지구대에서는 좋은 시설에서 교육받으라는 뜻이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이라면 굳이 공문 보내실 필요 없고요. 제가 지구대로 전화해 두겠습니다." '아싸~~ 그럼 그렇지! 사람 마음은 통하게 되어있거든!!' 공산 지구대로 다시 전화해서 아이들과 방문할 날짜를 잡았고 못내 미덥지 않아 바로 전날까지 다시 한 번 통화를 해 두었다.

소방대원들께 드릴 음료수도 사고, 아이들과 소방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본다. 소방차와 앰뷸런스를 보았던 이야기가 이어지고 궁금한 것들을 모아 질문꺼리도 적어보고, 일곱 살 아이들은 그림 편지도 쓰며, 들뜬 마음으로 방문하는 날을 맞이했다.

"얘들아~~ 이제 출발하자." 아이들과 옷을 챙겨 입으며 나가려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선생님, 여기 119 지구대입니다. 오늘 오시기로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응급출동 상황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오셔야겠어요.", "네? 아~~~ 그럼…" 별 말도 해보지 못하고 끊었다. 응급출동이라는데 무슨 할 말이 더 있겠는가? 소방관을 만나러 갈 마음에 잔뜩 들떠 있는 아이들에게 뭐라 말할지… 나부터

기운이 쭉 빠진다.

"얘들아~ 글쎄 응급출동이 생겼데. 그래서 나중에 오라고 하는데 어떡하지?", "응급출동이 뭐에요? 불났어요?", "그럼 여기 앉아서 나중까지 기다려요."하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다섯 살 민호에게서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도 나오지만 나중을 어떻게 설명할지 난감하다. "응급출동 하는데 왜 삐오삐오 소리 안나요?" 섭섭해 하면서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과 상상 속 이야기가 이어진다.

"그러게. 왜 소리는 안 나지? 불이 났나? 아니면 누가 다쳤을까? 우리 어떻게 하지?" 다시 전화벨이 울린다. "선생님~ 여기 공산 지구대에요. 응급출동이 취소됐으니 저희가 학교 운동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운동장으로요!!", "얘들아~ 소방차랑 구급차가 운동장으로 지금 온데!", "우와~~~~~~~~~~~!!!!!!!!!"

떠나갈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교실 문을 뛰쳐나가는 아이들! 10명의 아이들을 위해 빨간 소방차와 하얀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운동장으로 들어선다.

구조대 옷을 입은 두 분의 구급대원이 운전석에서 내려오더니 정중하게 인사하시며,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운동장을 향해 화재 진압을 위해 물을 쏘는 것도 보여주시고, 불이 났을 때의 사이렌 소리와 사고가 났을 때 사이렌 소리가 다르다는 것도 알려주신다. 구급차의 침대에 직접 타보는 경험도 해 보았다. 응급 환자가 되어 침대에 누운 후 구급차 안에 실리게 된 주홍이의 눈이 그렁그렁해진다. 행여 싣고 가면 어쩌나 싶었나보다. 구급차 안을 살펴보고 보이는 것마다 용도를 묻고, 끝으로 준비한 편지를 읽어드리고 음료수도 전한다. 소방대원들이 하시는 말씀 "우와~~ 얘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학교 안에 유치원이 있는 줄도 몰랐네요. 이 편지에 글씨는 아이들이 직접 쓴 겁니까?", "그럼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궁금해 하며 가보고 싶어 했거든요. 응급출동까지 있는 상황에서 바쁘실 텐데, 와 주셔서 너무 기뻐요.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또 갈게요!!" 소방차와 구급차가 떠나고, 아이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조잘댄다. 이럴 때는 귀가 10개쯤 있었으면 좋겠다.

"선생님! 우리 소방관 놀이해요. 소방차랑 구급차도 만들 거예요.", "좋아~ 밥 먹고 해보자!!" 이날 오후 아이들은 소방관 놀이로 무척이나 분주했다. 학교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을 샅샅이 뒤져 소방차로 쓸만한 종이상자를 찾아오고, 교실에서 보았던 소방관, 간호사, 의사 옷을 꺼내 달라 요청한다. 소화기를 만들 만한 것을 살피던 아이들이 자석블록으로 소화기를 만들겠단다. 진짜 소화기와 비슷하지 않아도 무슨 상관있겠는가! 아이들은 흥이 달아나기 전에 어서 소방관 놀이를 하고 싶어 했고, 교실은 열기로 불타올랐다. "선생님! 저기 집에서 불났다고 해요.!", "그래~ 그럼 집안에는 누가 있는 거니?", "엄마랑 아기가 있다고 해요. 저기 있는 아기 인형 데려 와서요~", "선생님은 뭘 할까? 신고하는 사람 할까?" 아이들에게 신고하는 과정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신고하는 사람이 돼보겠다고 하니 다들 "좋아요!"한다. 약속했던 대로 놀이집 안에서 놀던 엄마와 아기는 불이 난 것을 알고 입을 가리고 뛰쳐나와 "불이야! 불이야!"를 외치고, 옆에 있던 나는 신고를 하려고 전화기를 든다. "거기~ 119지요?…" 미처 주소도 말하지 못했건만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소방차가 출동한다. 아직 신고도 제대로 안 했는데 출동하면 안 된다고 말해보지만, 들릴 리가 없다. 병원에 실려 온 엄마와 아기는 의사와 간호사가 치료해주고, 자석블록 소화기로 불은 곧 진압된다. 그야말로 생생한 구조 현장이 재연된다. 매월 실시하는 화재대피훈련을 따로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진다. 이렇게 신나고 열심인 화재대피훈련이라면 몇 번이고 할 것 같다.

누군가는 걱정할지 모르겠다. 매일 밖에서만 놀아도 괜찮은 거냐고~
책읽기도 하고, 예술경험도 필요하고, 수학적 경험도 적절히 주어야
아이들은 잘 자라는 거라며 말이다. 하지만 바깥에서 만나는 세상 속 경험에는
이 모든 것들이 녹아들어있다.

아이들이 119 구조대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구급차를 탐색하고 이를 놀이에서 다시 재연하며 즐겁게 배우고 있지 않은가? 소방대원들을 바라보던 아이들의 눈빛을 나는 보았다. 신기함, 대단함, 동경, 꿈과 같은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마을과 사람에게로 이어지는 바깥세상은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일으킨다. 그 호기심은 대상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고, 그 만남에 정성을 쏟음으로써 우리는 서로를 향해 감사와 따스함, 자랑스러움, 실망, 용기,

도전과 같은 가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된다. 마을의 꼬맹이들을 위해 기꺼이 출동해주신 119 대원들이 그저 고마울 뿐이다.

바깥에서 싹튼 호기심은 교실에서도 계속되고

2017년 9월 1일. 학교 정문 앞 상수도 연결 공사가 한창이다. 개미동산으로 놀러가던 아이들이 걸음을 일제히 멈추고 눈을 떼지 못한다. 포크레인 때문이다. 노는 것도 마다하고 포크레인을 바라보더니, 오후에 또 보러 나오자 한다. 밥을 먹고 나오니, 여전히 공사 중이다. 자그마한 포크레인이 3개의 삽을 바꿔가며 땅을 긁기도 하고, 파기도 하고, 트럭에 돌을 싣기도 한다. 포크레인이 360도 돌자 환호성을 지른다. 교실로 돌아오는 길 포크레인 얘기로 귀가 따갑다. "포크레인 바퀴는 탱크처럼 생겼지.", "맞아, 근데 너 엄청 큰 포크레인봤어?", "아까~ 이렇게 탁탁탁 하면서 땅 팠지?"하며 손 끝을 구부려 땅을 쪼는 모습도 흉내낸다.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의 눈빛이 빛나는 것을 보니, 뭔가 시도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훅 들어온다. 머릿속에서는 벌써 포크레인 주제 망이 쫘악 그려진다. 하지만 교사의 욕심이 앞서면 아이들이 가졌던 관심마저 사그라지는 경험을 여러 번 했기에, 망설여진다. 고민 끝에 내린 결론~ '중요한건 아이들의 저 눈빛 속에 들어있는 호기심을 유지시키는

것이면 충분해! 그런데 호기심과 탐구심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집에 있는 포크레인 책을 가져오라고 할까? 아니~ 집에 있는 장난감 포크레인이 좋을까? 가져와서 서로 뽐내면 장난감이 없는 친구는 싫겠지? 서로 가지고 놀겠다고 다툴 수도 있는데… 에이 그냥 우선은 아이들이 포크레인에 대해 하는 이야기부터 잘 들어주자. 맞장구치면서! 거기에 좀 더 보태서 포크레인을 표현해 보는 경험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볼까? 우리반 아이들은 미술활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몹시 힘들어하는데, 이번 기회에 접근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포크레인을 어떻게 표현하지? 나도 그려보라고 하면 어려운데.' 인터넷에서 찾다보니,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도안이 눈에 띄였고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찌릿!!

'맞다! 주홍이가 포크레인 삽을 손으로 오므렸다 펴면서 흉내 냈었지? 포크레인도 팔, 다리, 몸통으로 말해주면 쉽지 않을까? 저 정도면 충분하겠어.' 내가 준비한 건 간단한 포크레인 도안 한 장! 첫날은 포크레인 따라 그리기를 시도해본다. "얘들아~ 우리 지난번 봤던 포크레인 너무 멋있어서 선생님은 그려보고 싶은데 같이 해보고 싶은 친구 있니?" 일곱 살 여자 친구가 다가온다. 마음이 너그럽고 따뜻한 아이라 아무도 안하면 선생님이 무안해 할까봐 선택해준 마음이 느껴진다. 둘이서 포크레인의 팔, 다리, 몸통을 예쁘게 색칠해가며, 포크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니 하나 둘씩 관심을 보이더니, 자기들도 색칠해 보겠다한다.

다음날은 비가 제법 내렸다. 운동장에 물이 고였으니 그냥 지나칠 리 없다. 포크레인 활동은 이미 물 건너갔음을 직감하고 장화와 삽, 호미, 몇 가지 그릇을 챙겨 운동장으로 간다. 운동장을 기찻길로 만들겠다며 호미로 땅을 파니 비오듯 땀을 흘리는 아이, 진흙탕에 손을 넣어 장갑을 만드는 아이, 고랑을 파며 댐을 만들겠다는 아이, 제각각 신이 났다. 진흙을 퍼 올리던 주홍이가

"선생님~ 봐봐요. 포크레인이에요. 포크레인이 이렇게 땅 팠어요.", "우와~ 정말 포크레인같다. 흙 파서 어디에 옮길거니? 포크레인 옆에는 항상 트럭이 있던데…"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민호가 말한다. "주홍아~ 내가 트럭할까?", "그래~ 좋아!" 두 아이는 트럭과 포크레인이 되어 놀이한다. "주홍아, 민호야! 너희 둘은 포크레인과 트럭처럼 사이좋은 친구구나! 둘이 노는 모습이 정말 예쁘다."

그 날 이후 주홍이와 민호는 단짝이 되었다. 주홍이는 민호를 볼 때마다 "민호야, 우리는 포크레인이랑 트럭이지~"하며 함께 놀고, 민호는 늘 신발을 거꾸로 신는 주홍이에게 바르게 신발 신는 방을 알려주는 사이가 되었다.

이후 포크레인에 관한 활동은 주홍이와 민호를 중심으로 한달 가까이 진행되었다. 교실에서는 포크레인을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 놀이하고 운동장에 나오면 장난감 포크레인으로 모래놀이를 했다. 재미있는 상상 속 자동차에 관한 책이 찢어지도록 넘겨보는 아이들의 모습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학교 앞 도로공사에서 로드롤러부터 덤프트럭, 포크레인까지 공사장 차는 죄다 보는 잊지 못할 상황도 일어났다. 포크레인에 관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겨우 다섯 살인 아이들이 보여준 우정과 탐구심에 가슴이 먹먹할 때가 많았다. 다섯 살 아이들에게도 저렇게 깊은 우정이 싹트는구나! 그저 징징거리고 졸라대는 자기중심적인 다섯 살이라 생각해 왔었는데, 궁금한 것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혼자만 차지하고 싶은 소중한 포크레인 장난감을 양보하고 참아주면서 놀이를 만들어갈 수 있구나! 아이들에게서 감동을 받으니, 나의 말과 행동에도 진심이 담기고 아이들은 그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아챘다.

아이들이 발견한 것에 귀 기울여주고, 즐거워 맞장구 칠 때마다 아이들을 향한 믿음이 한 뼘씩 자라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믿음은 "나는 선생님이 정말 좋아요"라는 말로 메아리 되어 돌아왔다. 때로는 아이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도 아이의 마음을 느끼며 우리는 그렇게 친구가 되어갔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보아야 사랑스럽다는 시구가 비로소 내 가슴속에 새겨지는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매일 공들여 만나면
스며듦이
생기게 되니

몇 년 간 바깥놀이를 통해 아이들과 교감하면서 느낀 것들은 아이들마다 유능함이 발휘될 수 있는 장이 다르다는 것! 교실에서의 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이들은 놀이 속에서 많은 시도를 하고, 탐험하며 세상을 배워간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경험은 아이들에게 바깥놀이를 더 많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해 주었고, 지금의 유치원으로 옮겨왔다. 그리고 지금은 가능하면 하루 일과를 느슨하고 단순하게 보내려고 한다.

누가 나에게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적 경험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신체발달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말할 것이다. 아이들은 몸으로 놀고, 몸으로 세상을 탐색한다. 만지고, 바라보고, 냄새 맡고, 먹어보고, 들으며 사물에게 다가가며 그 전체를 더듬어 간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높이를 가늠하고, 미끄럼을 타며 속도감을 느끼고, 어느 순간 속도를 줄여 멈춰야하는지 몸이 알아갈 때 사고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힘을 갖게 된다.

이런 간단한 이유만 보더라도 나는 유치원 일과 중 절반은 꼭 밖에서 놀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두들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한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을 떼어놓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답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해 보인다. 아무리 좋은 실내 환경도 아무리 뛰어난 교사도 자연보다 더 위대할 수 없으니, 하루의 절반을 밖에서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면 너무 억지스러울까? 하지만 단순한 나는 그냥 이 정도의 이유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충분히 바깥놀이를 허락하고 싶다. 그동안 5개 영역을 통합적으로 골고루 균형 있게 안배하여 활동해야 한다는 한 줄의 글에 너무 얽매여있지는 않았나 생각해본다. 대·소집단 활동의 균형, 동적인 활동과 정적인 활동의 균형, 실내와 실외활동의 균형 등 너무나 기계적인 균형에 얽매여, 전국의 모든 유치원에서 거의 동일한 시간표가 짜여 진 것은 아닐까?

도시의 아이들은 갖기 어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의 품에서 자라도록 시간을 내어주고, 나는 이를 지켜보며 기뻐하고 슬퍼하고 토닥이며 서로의 감정들을 어루만지는 일을 하는 것이면 족할 것 같다. 유치원 교육이란 가르침 보다 스며듦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가르쳐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세상 만물을 느끼고 교감하면서 서로에게 스며듦을 통해 배우는 것이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다고 여기니까. 소심한 나는 사실 이런 방법에 대해 비효율적인 것 아닌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기도 한다. 과거의 교육에서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기에, 효율적으로 의미 있는 지식을 빠르게 많이 습득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의 양에 있지 않다. 특히 유아기는 지식의 습득보다는 세상과 관계 맺기를 통한 앎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밖으로 나가면 만날 수 있는 바람, 햇살, 풀, 나무, 꽃, 벌레, 열매, 흙 같은
만물에게 다가가보고, 느끼고 어루만질 수 있는 아이들은 자신과 타인에게 다가가되
함부로 하지 않고, 소중히 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을 나는 지켜보았다.

그동안 나는 지식을 습득하고 빠르게 이해하는 아이들이 사랑스러웠고 유능하다고 믿어왔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마다 배우는 방식이 다르며 그 방식을 존중하되, 유아기에는 머리보다는 몸으로 터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방법이 놀이임을 확신한다.

만물을 느끼고 서로에게 스며들기 까지는 공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공들여 관계 맺지 않는 일회성 체험으로는 아이들에게 스며들 알맹이가 없다. 그래서 가급적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려고 노력하니 하루 일과는 느슨하고 단순해졌다. 느슨하고 단순한 일과는 따스한 봄날 적당히 늘어진 몸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햇살처럼 나도 아이들도 서로에게 스며들 여유를 만들어주고 있다. 참 감사한 일이다.

놀이에서 보물 찾기

소하초병설유치원 교사 **임자옥**

20년째 경기도 병설유치원에서 아이들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놀 수 있을까
궁리하며 지내고 있다. 4-5년 전만 해도 유치원 선생님을 그만둬야지 할 정도로 무기력에
빠져있었는데 놀이를 통해 행복을 찾았다. 오늘은 퇴근하고 나서도 아이들과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피식피식 웃음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아이들과 사랑에 빠져 있다.
놀이의 힘을 통해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행복하며
교사가 행복한 세상을 꿈꾼다.

내 아이가 태어나고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매일 매일 신나게 놀고 행복해하는 아이를
보면서 엄마로서 행복한 나를 발견했고, 우리반 아이들에게 놀이를 돌려주고 싶었다. 엄마들
눈치를 보느라 실컷 마음껏 놀게 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어릴 때 놀았던 모습을 아이들에게
찾아주려고 노력했다. 교사가 많이 준비하고 계획한 활동보다 아이들이 주도하며 즐기는 놀이로
다가가면 더 큰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되도록 아이들 눈높이에서 함께 놀이하고 소통한
결과, 연예인도 저리가라 할 만큼의 인기를 가지게 되었다.
아이들의 행복한 일상을 학급 SNS를 통해 공유하고 나누면서 부모님들도 놀이의 힘을 알고
지지해주셨다. 아이가 행복하니 부모가 행복하고,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부모님 덕에 힘을 내고
선생님도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 나에게 놀이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보물이다.

‘집에 가기 싫어!’를 외치는 그날을 꿈꾸며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알게 된 건 대학교 2학년 때 정병호 교수님의 특강에서였다. 부모들이 협동하여 만든 어린이집이라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매일 산으로 들로 나들이를 다니며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대학교 근처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찾아가 유아교육전공이라며 자원봉사를 자처했다.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던 그 때의 기억 때문인지 ‘아이가 태어나면 꼭 이렇게 키워야지’하고 다짐했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두 돌이 지났을 즈음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 이사까지 했으니… 맹모삼천지교? 처음에 울며 떨어지지 않으려던 아이는 한 달 후에 집에 안가겠다고 떼를 쓰며 울었다. 엄마, 아빠들이 하나 둘씩 퇴근을 하고 모이면 집에 가지 않으려는 아이들 때문에 매일 진땀을 흘렸다.

어린이집은 아담한 가정집이었고 마당에는 진흙 산과 아빠들이 만든 모래놀이터, 사계절 다양한 농작물이 자라는 텃밭이 있었다. 우리 딸은

마당에서 탐스럽게 열린 오이를 따서 쓱쓱 닦아 먹으면서 모래놀이터에 있던 플라스틱 냉장고를 눕히고 거기에 물을 가득 담는다. 옆에 있던 언니, 오빠와 함께 모래놀이 삽을 하나씩 들고 걸터앉아 "으아~~ 배에 물이 들어왔어. 어떡하지? 가라앉겠다. 빨리 노를 저어" 외친다. 순식간에 바다가 된 모래놀이터… 상황은 엄청 위험한데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다. 오늘도 어둠은 점점 짙게 내려앉는데 도대체 아이들은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매일 산으로 들로 나들이를 다니는데다 진흙 산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다 보니 옷은 매일 흙색으로 변해 있었다. 반복해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흙 색깔 옷을 보면서 투덜댔지만 아이도 나도 행복했다. 중학생이 된 아이가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은 유아기 시절 마음껏 잘 놀아서 라고 굳게 믿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신나게 노는 아이를 보면서 한 편으로 우리 반 아이들에게 미안함이 밀려왔다. 우리 반 아이들은 잘 놀고 있을까?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병설유치원이라

산이나 들로 나들이는 못 가지만 학교 운동장을 산책하면서 나무와 꽃을 관찰하고, 운동장에 나오면 아이들과 땅따먹기, 고무줄 놀이, 두꺼비 집짓기를 하며 놀기 시작했다. 부모님들이 뭐라고 할까봐 옷이 흙 색깔이 되도록 마음껏 놀게 하지는 못했지만 교육=계획이라는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었다. 우리반 아이들도 "집에 가기 싫어"를 외치는 그날을 꿈꾸며!

선생님은 여섯 살

둘째를 낳고 3년을 육아휴직한 뒤 복직한 내 삶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아침에 자는 아이를 흔들어 깨워 빨리 빨리를 외쳐가며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출근, 아침에 급하게 어제 못한 수업 준비를 했다. 가르치려고만 하니 내 말을 듣지 않는 아이들에게 화가 났고 이제는 정말 수업에 자신이 없었다. 수업이 끝나면 숨 돌릴 시간도 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물건 품의를 하고 공문을 처리했다. 밀린 일을 더 하고 싶지만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하는 시간, 가방에 가득 일할 거리를 넣고 유치원 문을 나섰다. 이제는 내가 교사인지 행정직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몇 달을 지내고 나니 더 이상 교사로서의 내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다. 수업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내 존재 자체가 흔들렸다. '그만두고 싶다. 내가 왜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을까' 후회로 가득했다. 나름 교사로서 열심히 산 적도 있었는데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속상한 마음에 눈물만 흘렸다. 교사로서의 내

삶의 에너지가 다 빠져 나간 느낌이었다.

우리는 올라가는 것만 연습하며 살아와서 괜히 무기력에 빠져 있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실패한 것이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절대 그렇지 않다. 무기력이 있기 때문에 열정이 다시 생기는 것이고,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삶이란 돌고 도는 것이고 과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치에서 계속 쌓여가는 것이다. 실패와 성공, 절망과 희망,
빛과 어둠, 무기력과 열정의 삶이 역설적으로 연결되어 현재의 나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다시 낙담시키기도 한다.

-「교사, 삶에서 나를 만나다」 중에서

지친 삶에 에너지를 얻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수다를 떨고 여행을 다녀오면 한결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러나 교사로서의 삶의 에너지는 채워지지 않았다. 무언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배움의 욕구가 강했던 나는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결심했다. 대학을 졸업한지 15년 만에 가는 대학원은 설렘으로 가득했다.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배우는 순간에는 살아있는 것 같았다. 조금씩 에너지를 채워갔다.

그 즈음 유치원을 옮기게 되었다. 초등학교 운동장을 지나 후문으로 나가면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긴 하지만 생태 하천이 흐르고 나무와 꽃들을 관찰하며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있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유치원에서 차도 다니지 않고 아이들과 마음껏 놀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환상이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바깥놀이를 했다. 봄에 배꽃처럼 하얀 꽃이 피고 가을에는 팥처럼 둥근 열매가 열리는 팥배나무 밑을 우리의 아지트로 정했다. 우리는 함께 '비밀의 숲'이라고 정했고 왠지 우리만 아는 비밀이라는 느낌 때문인지 바다반은 다른 곳보다 비밀의 숲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숲 놀이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회를 만들었다. 수업을 끝내고 지역에 있는 숲이나 공원에서 연수를 받고 수업에 적용해 보았다. 그런데 선생님들과 함께 배웠던 숲놀이는 너무 재미있지만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교사 주도적인 활동인 경우가 많았다. 아이들은 "선생님 우리 언제 놀아요?"를 외치기 일쑤였다. 나는 과감히 바깥놀이에서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넘겼다. 유아 스스로 만들어내고 즐겁게 찾아내는 놀이에서 교육적 의미를 찾아보자 싶었다.

팥배나무 열매가 가득 떨어진 비밀의 숲에서 바다반은 열매 줍기에 한창이다. "우와~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꽃다발 같다", "그럼 우리 열매 꽃다발 만들까?" 혹시 몰라 미리 준비해 간 마 끈과 가위로 주황, 빨강으로 물든 나뭇잎 사이에 열매를 넣고 돌돌 묶어주니 근사한 꽃다발이 완성되었다. 하민이는 텔레비전에서 봤다며 무릎을 꿇고 "결혼해 주세요."하며 꽃다발을 내민다. "저는 안돼요. 저는 이미 결혼했어요." 하하 호호 한바탕 웃음꽃이 핀다.

아이들은 내일 결혼식 놀이를 여기서 하면 재미있겠다며 교실에서 드레스와 바구니를 가져오겠단다.

우리가 매일 산책하는 길 끝에 있는 어린이교통교육장에서 수업이 있는 날, 걸어가면서 수업 전에 가을 열매들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밤과 비슷하게 생긴 열매가 떨어져 있었다. 아이들은 밤이라고 했지만 사실 칠엽수 열매다. 동글동글한 모양에 푹 빠져 너도 나도 열심히 주워 주머니에도 넣고 손에도

들고 신나게 교육을 받으러 갔다.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열매가 방해된다며 강사 선생님이 열매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순간 화가 나서 "이거 그냥 열매 아니에요. 아이들이 열심히 찾은 보물같이 귀한 거예요. 버리다니요… (아이들한테)선생님이 가지고 있을 테니 여기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했다. 틀린 말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할 건 없었는데… 아이들이 칠엽수 열매 찾겠다고 풀숲을 열심히 찾은 것을 알기에 더 속상했던 것 같다.

아이들 눈높이에서 같이 놀다보니 어쩌면 나도 여섯 살이 되었나보다.

교실 안에서는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자꾸 지식 위주의 수업을 하게 된다. 아이들은 흥미를 잃어가고 왜 자세가 바르지 않느냐며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지 하고 잔소리를 한다.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으니 결국 나도 아이들도 재미없는 하루다.

그런데 적어도 바깥놀이에서만은 아이들은 무한 즐거움을 느낀다. 모래놀이에서 땀을 줄줄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땅을 파고, 놀이터에서 잡기놀이한다고 마구 뛰어다니고, 열매를 줍느라 좋아하는 곤충을 살펴보느라 누가 불러도 대답도 안할 정도로 집중하는 시간… 아이들은 바깥에서 신나게 놀고 나서야 "우리 오늘 진짜 재밌었지"한다.

바깥놀이를 하면서 나는 내가 잘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았다. 아이들의 놀이를 지지해주고 같이 놀기! 바깥놀이는 무기력해진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다시 일어나 교사로서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준 은인이다. 놀이가 아이들의 삶만 바꾼 것이 아니라 내 삶도 바꾸어 주기 시작했다.

놀이에는
1등이 없다

무기력에 빠져 있는 나를 일으켜 준 건 사실 우리 반 아이들이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육을 한다고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이다. 인정을 받고 나니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요즘 나는 연예인 급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귀가 시간 교문까지 걸어가는 동안 "선생님이 좋아, 선생님이 좋아"를 외치는 아이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구호를 외치는 아이들에게 웃으며 그만하라고 "선생님 부끄러워" 하지만 내심 기분이 좋다.

인기가 많아지면서 아이들과 잘 놀았는지 아이들과 놀다보니 인기가 높아졌는지는 모를 일이다. 다만,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관찰할 수 있게 되고 아이가 흥미 있어 하는 것, 아이들과 소통의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아이들한테는 내가 하고 있는 것을 하게 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선생님이라서 좋은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하기만 해도 잘한다고 멋지다고

칭찬을 받으니 행복할 수밖에 없다.

교사가 준비하고 철저히 계획한 활동을 할 때는 활동을 능숙하게 잘하는 아이, 바른 자세로 듣는 아이, 열심히 하는 아이만 인정을 받게 된다. 잘하는 아이부터 못하는 아이까지 서열이 매겨지고, 못하는 아이는 늘 "나는 못해" 할 수 밖에 없다. 종이접기 할 때마다 잘 못해서 "나는 못 접어요."하던 ○○는 딱지치기를 위해 시간 날 때 마다 딱지를 접더니 어느 순간 딱지 접기의 달인이 되었다. 딱지치기 덕분에 종이접기에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는 "나는 이것도 잘 접어요."하며 자랑을 한다.

" 딸이 매일 유치원에 일찍 가려고 하길래 무슨 일인가 봤더니 새로운 장난감을 빨리 차지하고 싶어서였다. 이 때 딸에게 친구는 장난감을 빨리 가지는데 방해되는 경쟁자이다. 친구가 나타나면 경쟁자이기 때문에 싫고 화가 난다. 아이가 유치원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그곳에서 강강술래를 하면서 놀게 되었다.
강강술래를 하려면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혼자서 무슨 재미로 강강술래를 하겠는가?
이 때 친구 한명이 나타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신난다.
이제 친구는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된다."

- 생태유아교육 ○○○교수님 강의 중

놀이를 하려면 친구가 있어야 한다. 물론 혼자서도 놀 수 있지만 친구가 있어야 더 즐겁기 때문에 친구가 소중할 수밖에 없다. 오늘만 놀면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매일 놀이하다 보면 오늘은 이겼지만 내일은 질 수도 있고, 오늘은 졌지만 내일은 이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늘 팽이치기를 할 건데 누가 제일 잘하나 볼 거야" 한다면 아이들은 놀이를 즐기지 못할 것이다. 진정한 놀이에는 1등이 없다.

버려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쌓기 놀이 영역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느라 한창이다. 벽돌블록, 자석블록 등 교실에 있는 블록이란 블록은 다 꺼내고 모자란 것은 옆 반에서 빌려오기도 했다. 쌓아 놓은 블록이 쓰러지지 않도록 기둥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원무실에 가보자. 우리가 쓸 만한 재료가 있을지도 몰라" 하고 이야기해 주었다. 아이들이 우르르 원무실로 들어갔다. 매의 눈으로 살펴보던 아이들은 시트지를 감아두었던 속대와 커다란 종이를 발견하고는 교실로 가져간다.

기둥을 세울 때 테이프로 하면 되겠다며 열심히 테이프를 붙이던 하준이는 "이걸로는 안 되겠어. 자꾸 떨어져. 더 큰 테이프가 있어야겠어." 옆에서 같이 테이프를 붙이는 시우가 "선생님이 쓰는 파란색 테이프를 쓰자.", "선생님! 선생님! 저번에 게임할 때 붙였던 파란색 테이프 좀 주세요."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나는 과연 어떤 집이 지어질까 궁금해서 얼른 파란색 테이프를 꺼내 주었다.

시우, 하준, 준후는 벽돌 블록과 블록 사이마다 무너지지 않도록 테이프를 빙 돌아가며 붙이느라 이마에 땀이 송글 맺혔다. 친구들은 지붕 위에 커다란 종이를 덮고 안에 들어가 집이라며 사진을 찍는 동안에도 준후는 뭔가 더 작업이 필요하다는 듯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집 주변을 서성인다.

팽이 사랑이 지극한 바다반은 역시 집 안에 팽이가 있어야 한다며 자석 팽이를 만들어 언제든지 놀 수 있게 딱 붙여 놓는다. 미술영역에서 놀던 아이들은 꽃이 있어야 예쁜 집이라며 꽃을 만들어서 붙이고, 시계도 그려서 붙인다. 달콤한 집이 되면 좋겠다며 지붕 위에 사탕모양 뽕뽕이를 붙인다. 내가 뭘 제안할 필요도 없이 자발적으로 각자 생각하는 대로 집이 만들어지고 있다.

신기하게도 "여기에 이거 붙이지마"라거나
"이거 내가 만든 거니까 만지지마"라고 하는 아이가 아무도 없다.
함께 해서 완성해가는 기쁨과 뿌듯함 때문일 것이다.

바다반의 비밀 집, 팽이 연구소, 장난감 우당탕탕 집, 테이프 집, 멋진 집, 무지개 집…. 열심히 만들어서 그런지 특징이 가득 묻어나는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넘쳐났다. 그 중에서 최종 알록달록 예쁘다는 이유로 무지개 집으로 정해졌다.

예전 같으면 깔끔하게 종이로 된 반제품 종이집을 사다가 같이 색칠하거나 꾸미거나 했을 텐데…. 사실 어른들의 눈으로 결과만 보면 이게 무슨 집이냐 하겠지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는 그 어떤 집보다도 멋있다. 어떤 때에는 많은 준비가 오히려 독이 될 때도 있다. 비워내고 버려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집에 대해 생각해보고 집을 지어본다는 목표는

같았을지 모르나 아이들이 주도하여 즐기는 놀이로 다가가면 배움은 더 크게 일어난다는 사실! 오늘도 아이들에게서 또 하나 배웠다.

스피드보다는 놀이

몇 년 전에 개인 소장용으로 많은 양의 스피드 스텍스를 구입했다.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활 도구를 이용해 놀기에서 딱 적당하다 싶어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6개씩 주고 탐색하게 했다. 그러다 팀으로 높이 쌓기도 하고 모양도 길게 이어보고, 팀에서 정한 모양(별, 하트, 토끼, 다이아몬드 등)으로 만들어도 보았다. 모두 다 같이 만들고 싶다 하여 전체가 모여 하나씩 높이 탑을 쌓기도 했다. 마침 생일인 친구가 있어 케이크 모양으로 만들고 생일축하도 같이 해주었다.

신나게 한바탕 놀고 나니 내일 또 만들겠다고 해서 자유선택활동 영역에 놓아두었다. 매일 매일 컵 쌓기가 시작되었다. 아래는 넓고 위로 점점 좁아지는 형태만 반복되어서 좀 더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얼마 전 블록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탑을 만들며 놀아서인지

피라미드도 만들고 피사의 사탑(기울어지긴 힘들었지만)도 만들고 에펠탑도 만들었다.

특히 컵 쌓기의 재미에 푹 빠진 준하와 규민이가 아래는 별 모양으로 놓고 그 위에 4개씩을 올려가며 쌓고 있었다. 몇 번을 쓰러뜨리고 다시 쌓기를 반복하더니 의자를 가져와서 올라가 자기키보다 높은 작품을 완성했다. 리움미술관의 아니쉬 카푸어 작품과 비슷하다며 사진을 보여줬더니 "우와 진짜 비슷하네" 하며 뿌듯해한다. 다른 놀이를 하던 친구들이 몰려와 구경하고 늘 그랬듯 작품 전시회에 온 것처럼 사진을 찍었다. 전체 모임 시간에 '잘 안된다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완성한' 모습에 칭찬을 듬뿍했더니 점심 먹고 나서 잠깐 동안에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자 말자"를 외치면서 또 몇 몇 친구들이 또 쌓고 있다. 교사로서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친구들에게서 좋은 영향을 받고 협력하는 기쁨을 맛보고 배움이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
우리 반은 놀이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놀이는 감동이다!

방과 후 과정에 잠시 교실에 들어갔더니 규민이와 정수는 지우개로 탑을 쌓고 있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수기 앞에는 한 모금 컵으로 탑이 만들어져있다. 내일 바다반에게 이야기 거리가 있어 신난 선생님은 혼자서 피식피식 웃는다 하하

팽이의 변신은 무죄

3, 4년 전부터 우리 반 유아 주도 놀이의 양대 산맥은 딱지치기와 팽이치기다. 작년에는 일 년 내내 딱지치기를 하느라 가방에 한가득 딱지를 들고 다니더니 올해는 쌓기영역의 팽이화를 넘어서서 온 교실 물건들의 팽이화가 되었다. 블록으로 팽이를 만들다 역할영역의 접시를 돌리는가 하면 음식 모형도 돌리고 컵도 돌린다.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계속 그냥 두어도 될까? 늘 하게 되는 고민… 올해는 아이들의 놀이를 조금 더 확장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레고나 몰펀으로 팽이를 만들어 교실 바닥에서 팽이를 돌리는 바람에 지나다니기도 힘들 지경이었다. 쌓기 놀이 바닥에 팽이판 모양으로 테이프를 붙여 주었더니 그 안에서 팽이를 돌리면서 팽이 배틀이 시작되었다. 날이 갈수록 팽이의 종류는 다양해졌다. 어떤 날은 끼우기 블록으로 햇빛 모양 대형 팽이를 만드는가 하면 어떤 날은 자석블록으로 심플하게 만들었다.

버스트(부딪혀서 팽이가 깨지는 것)이냐 오래돌리기에 따라 팽이의

모양도 달라진다. 가볍고 심플하게 만든 팽이는 오래 돌리기에는 유리하지만 부딪히면 금방 깨진다. 아이들은 배틀을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팽이도 다르게 만든다. 집에서는 정형화된 팽이로 배틀을 하겠지만 교실에서는 교실의 다양한 놀잇감을 이용하기에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반 자칭 타칭 팽이박사 서준이는 말로 하기도 힘든 다양한 팽이 이름을 말하면서 모든 팽이는 드라이버가 있어야 한단다. 클레이를 가지고도 팽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말린 다음 팽이로 사용할 정도로 팽이 사랑이 지극하다. 하루는 서준이가 레고를 이용해 자동차 모양으로 팽이를 만들었다. 자동차 바퀴를 아래에 붙였다가 위에 붙이면 팽이로 변신한다. 한동안 유행이 되어 아이들은 두 가지 모양을 합체한 팽이를 만들었다. 공룡 팽이, 우주선 팽이, 로봇 팽이 등등 팽이 개발 사업을 하고 싶은 정도로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가 넘친다.

매일 새로운 팽이를 만들어 "선생님 이거 봐요. 여기 이거랑 이거랑 길이가 똑같고 점점 길이가 줄어들게 만들었어요." 살펴보니 서로 마주보는 부분이 대칭이 되도록 만들었다. 색깔이 반복되는 패턴을 넣기도 하고 놀이에서 스스로 수학적인 개념을 표현하고 내면화하고 있었다. 물론 나는 "우와 바다반, 오늘은 순영이가 이런 팽이를 만들었대. 그런데 모양이 이렇게 반복되도록 만들었더라고. 정말 대단하고 멋지지 않니?" 그럼 또 신기하게도 합체 팽이에서 관심이 옮겨가서 다양한 모양을 몰입하며 만든다.

팽이 사랑이 집으로 이어져 아이들은 색종이를 접어서 팽이를 만들어 왔다. 이제 미술영역에서는 종이를 접어 새로운 팽이를 만드느라 시끌벅적하다. 물론 그런 날은 미술 영역에서 어려운 부분을 알려주고 도와주느라 땀이 줄줄 흐른다.

만약 아이들의 자발적인 놀이의 흐름을 깨고 선생님이 준비한 활동이나
생활주제와 연계한 놀이만 하게 했다면 어땠을까?

지금처럼 흥미가 이어지면서 더 큰 배움이 일어나지는 못했을 것 같다.

유아가 자발적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만들어낸 팽이는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며 무한 변신을 거듭했다. 활동 영역도 재료도 모양도 끝이 없다. 산책하며 주워 온 도토리도 칠엽수 열매도 팽이로 변신을 했으니… 팽이의 변신은 무죄다.

모든
순간이
놀이였다

놀이와 교육의 통합과 균형을 이루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늘 아이들이 노는 놀이를 어떻게 교육적으로 이끌까 고민하지만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꼭 놀이가 유아에게서 발현되어 유아가 주도해야 할까? 교사가 주도하지만 놀이의 요소- 즐거움, 몰입, 과정지향, 선택 등-를 넣어주면 아이들은 즐겁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자유선택활동시간 과학영역에서는 '물에 뜨고 가라앉는 물건' 실험을 너무 재미있어한다. 당연히 교실에 있는 온갖 물건을 물에 넣었다 뺐다하니 즐거울 수밖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물에 가라앉는 물건을 물에 뜨게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가 물에 뜨는 요플레통에 클립을 넣으면 된다며 보여준다. 우유팩에 동전을 넣고 "선생님 빨리 와보세요. 이렇게 해도 떠요~"하고 외친다.

이런 과정을 충분히 한 아이들에게 미션을 주었다. 팀을 나눌 때도 다양한 놀이를 하는데 오늘은 숫자 게임이다. 4명씩 한 조가 되어 교실에 있는

모든 재료를 이용해 배를 만들기로 했다. 단, 레고 사람인형 7개를 다 태울 수 있을 때까지 가라앉지 않아야 미션 성공이다.

한 팀은 레고로 배를 만들고, 한 팀은 빨대를 이용해서 뗏목처럼 만들고 깃발을 세웠다. 뗏목에 인형이 타도 빠지지 않도록 종이를 덧댄 팀, 종이배를 접어 아래에 빨대를 붙여 내구성까지 생각한 팀도 있다. 마지막 한 팀은 각자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길래 걱정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빨대 뗏목 위에 각자 만든 것을 합체하여 오히려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

커다란 수조에 물을 넣고 한 팀씩 나와서 물에 띄웠다. 배 위에 레고 인형을 하나씩 올리면서 혹시나 가라앉을까봐 조마조마한 얼굴이다. 그러다 마지막 레고 인형을 올리고 미션을 성공하는 순간 이렇게 기쁠 수 있을까 싶게 환호성을 지른다. 평가 시간에 돌아가며 이야기를 하는데 "레고 인형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 했어요.", "물에 잠길까봐 아슬아슬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해서 즐거웠어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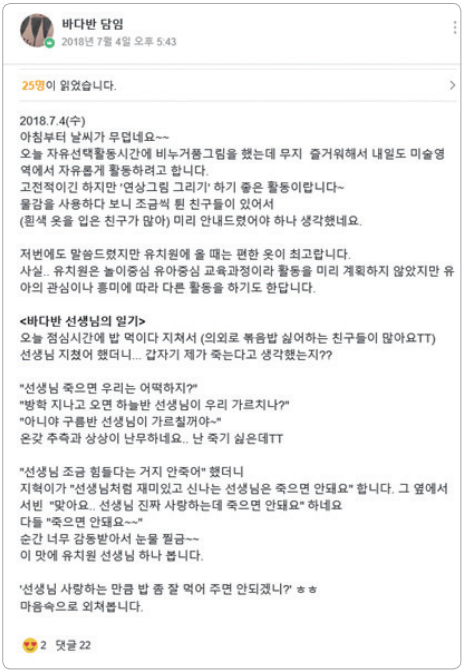
만약 배를 만들어 물에 띄우기만 했다면 이처럼 몰입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교사가 주도하는 활동이지만 놀이의 요소가 있었기에 더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고 더 큰 배움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이제 조금씩 놀이와 교육의 균형을 맞추는 일에 해답이 보이기 시작한다.

함께 힘을 합쳐 생각을 모으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며 나도 성취감을 맛본다.

수업에서 성취감을 맛 본 교사는 아무리 힘들어도
또 기뻐할 아이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달릴 수밖에 없다.

놀이에서 보물찾기

학급 SNS에 아이들 사진과 함께 그날의 활동 이야기나 에피소드 등을 올려 부모님들과 공유하고 있다. 예전에는 사진을 주로 올리다보니 부담이 있었지만 사진이 없는 날은 간단한 에피소드나 이야기로만 올리기도 한다. 부모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나의 교육 활동의 정리이자 기록이다.



지성맘
글 읽다가 저도 눈물이 글썽하네요.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이들이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요.

7월 4일 오후 6:28 ☺ 표정짓기

하진맘
아이들과 선생님의 유대감도 선생님과 엄마들의 글도 어찌나 훈훈한지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하진이는 오늘은 잘 먹었다고 자신하던데 집에서는 영~ 성적이 부진해요. 집밥 보다 급식~ 요리학원이라도 가야 할까봐요^^

7월 4일 오후 7:28 ☺1 표정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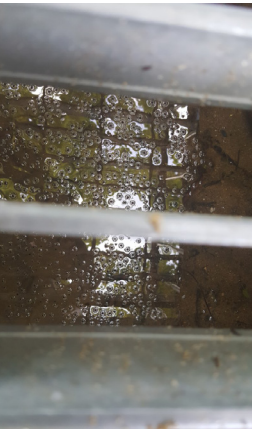
지혁맘
흥미진진한 선생님의 일기 엿보기네요. 지혁이는 바다반 선생님 안계시면 유치원 안 갈 아이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7월 5일 오후 1:04 ☺ 표정짓기

교실 벽에 붙여진 <매일매일 놀아서 재미있고 신나는 바다반>이라는 우리반 비전 때문에 나는 '재미있고 신나는 선생님'이 되었고 죽으면 안 되는 선생님이 되었다. 사진이 없어도 이렇게 올린 글은 아이들과 내가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교사로서의 감동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없는 아들을 키우면서 선생님들이 올려주시는 사진보며 아이와 두런두런 유치원생활을 이야기하는 저녁시간이 참 좋았다. 그래서 되도록 아이들이 저녁 먹기 전에 그 날 그 날의 놀이를 기록하고 이야기를 올리려고 하지만 퇴근 전까지 정신이 없다. 예전 같으면 이것도 하나의 일이 되어 귀찮고 '뭐 이런 것까지 해야 해' 했겠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는 순간이 행복하기에 그 또한 즐겁다.

여름이 되어 초등학교 운동장에 나가면 어김없이 맹꽁이 울음소리가 들린다. 도심한복판에 맹꽁이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다. 맹꽁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보호받는 동물인데 학교 하수관에 알을 낳고 살고 있다. 예전에 논밭이었던 곳이어서 맹꽁이가 살 곳을 찾다가 하수관에서 살게 되었다는데 생명의 신비가 대단하다. 짝짓기 하느라 그렇게 울어대더니 하수관에 꼬물꼬물 올챙이가 보인다. 아이들과 관찰하고 학급 SNS에 스토리를 올리면 부모님들도 아이들 데리러 오시면서 살펴보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이어간다.



곤충에 한창 빠져 있던 바다반은 비밀의 숲에서 우연히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된 작은 알 껍질을 발견했다. 교실에 돌아와 무슨 알일까 궁금해 아이들과 찾아보니 네점박이 노린재 알이었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어서 보고 싶다는 친구들은 안아서 보여주느라 팔이 아픈 하루였는데 그날 학급 SNS에

올린 글 때문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저녁 먹고 아이들이 하나 둘 부모님을 졸라서 비밀의 숲에 갔는데 거기에 바다반이 대거 모여 있었다는…. 신기한 알껍질을 부모님에게 보여 주고 싶었던 아이들, 학급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아이들의 배움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해준 부모님들 덕분에 또 감동이다.

부모님들과의 소통이 늘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사진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다 살피다보면 의도적인 사진이 연출될 수밖에 없고 사진을 찍다 보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 아이가 사진에 없다고 은근히 속상해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다.

유치원에서의 활동은 대부분 교사와 함께 하고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 몸으로 느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사진 찍기가 쉽지 않다. 하루는 '동대문을 열어라'를 '숲대문을 열어라' 로 바꾸어 아이들과 손을 잡고 놀이하면서 잠깐 찰나 사진을 찍었다.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했고 집중하며 활동해서 뿌듯해하며 학급 SNS에 사진을 올렸는데 밤에 계속 알림이 울렸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사진마다 댓글에 "우리 ○○만 사진에 없네요.", "여기도 없어요!" 라고 되어 있었다. 사진을 보니 ○○의 발만 보이거나 친구들에 가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순간 너무 놀라고 화가 났지만 참고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고민하며 글을 썼다. "분명히 같이 했는데 안 보인다 하셔서 순간 깜짝 놀랐어요. 동그라미 끝 부분 통과하고 있네요. 저도 아이들과 같이 손잡고 활동하느라 이런 활동은 순간 포착만 잠깐 하네요. 아이들 예쁘게 다 안 나와도

이해하시고~ 이렇게 놀이했구나 하고 이야기 나누어 주시기 바라요!"

이럴 때는 진짜 학급 SNS에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확 사라진다. 그런 마음인 걸 어찌 아시는지… 감사하게도 "내 아이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흔들린 사진도 괜찮아요. 선생님 사진 신경 쓰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지금처럼 열심히 놀아주세요."라는 댓글이 하나 둘 이어진다.

"아이가 유치원 다니면서 점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말했어요. 엄마 유치원 언제가? 나 빨리 가고 싶은데… 유치원 너무 재미있어요 하더라구요. 아직 한글도 잘 모르고 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가 제일 만족하고… 그러면 당연히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제일 좋다니까 제일 좋은 유치원이고 제일 좋은 선생님이신 거죠**."

"예전에 큰 아이를 엄청 유명하다는 유치원에 보냈는데 "하나도 못 놀고 왔어" 매일 말했어요. 특기적성이다 영어다… 바깥놀이를 하긴 해도 형식적이었어요. 그런데 소영이는 매일 놀다 와서 좋대요. 사실 선생님이 올려주신 내용 보면 엄청 뭐 많이 하는데… **수업이지만 아이들은 그걸 놀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예민맘이라 바깥놀이 가는 거 무지 싫어했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 다 통제도 안되니까 위험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모래놀이가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아이가 즐겁다고 하니까 저도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죠**."

"자연관찰 책으로만 자연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수진이랑 마트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나뭇잎을 보고 엄마, 이거 봐봐 이거 일곱 손가락 같지 칠엽수야 하는 거예요. 글자도 모르는 애가 책을 볼리는 없고 어떻게 알았을까 했는데 그날 선생님이 올려 주신 내용 보니 칠엽수 열매를 주웠더라고요. **엄마는 동네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모르는데 아이는 자연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책만 보여주던 엄마는 반성했죠."

"아이 가방을 열면 계절이 느껴져요. 어느 날은 빨간 열매가 가득 들어 있고, 어느 날은 도토리가 가득 들어 있고… 주머니 가득 칠엽수 열매가 들어있어요. **주입식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만지면서 알아가니까 너무 기특하죠**."

"우리 소영이는 유치원에서 뭔가를 잔뜩 만들어 와요. 그런데 그게 새 것도 아니고… 버리는 물건들로 만들고, 만든 물건 이름도 엄청 잘 지어요… 정형화된 만들기가 아니라서 창의성도 엄청 높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할 일들이 이런 거죠… 아이들이 생각한 대로 만들고 놀이하고…** "

"**놀이를 통해 세상을 배워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시안이는 외동이라 나눌 줄도 모르고 욕심도 많았는데 친구들과 놀면서 나누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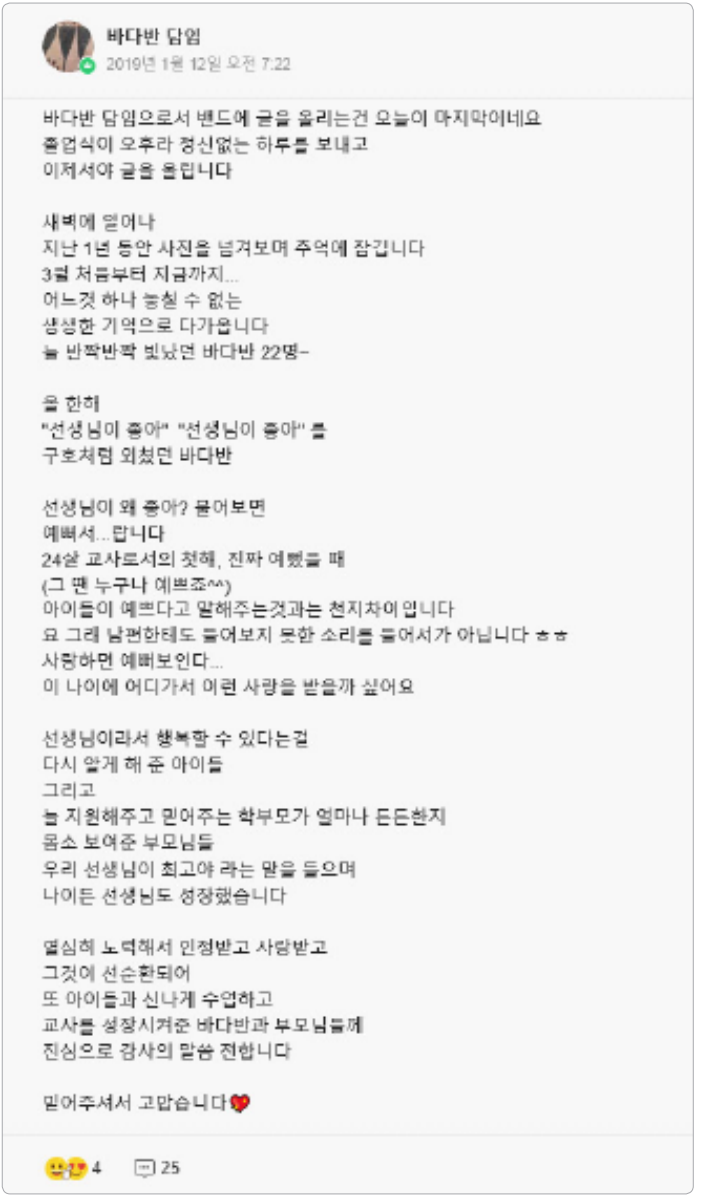
"대부분 꽃은 봄에 핀다고 생각하지만 겨울에 피는 꽃도 있듯이… 아이들은 모두 다르잖아요. 무엇이든 잘하는 아이, 적당히 평범한 아이, 손이 많이 가는 아이… 잘하는 아이는 눈에 띄게 마련이고, 못하는 아이는 움츠리거나 뒤로 빠지기 마련인데 선생님은 평범하게 묻힐 수 있는 아이를 하나하나 특별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부모만이 알고 있는 또는 부모도 모를 수 있는 아이의 잠재되어 있는 가치를 발견해 주시더라고요…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의 특별함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엄마보다 좋다고 외치는 아이들, 무한 신뢰를 보내주시는 부모님들 덕분에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보냈다. 학기를 마치고 나서 부모님 몇 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미 부모님들은 놀이의 힘을 믿고 지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부모님들도 여섯 살 아이와 함께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다. 내 아이만 소중했던 부모님들이 우리 반 아이 모두가 사랑스럽고 공동체가 되어 가는 것은 아마도 놀이에서 행복하게 상호작용하는 아이들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의 놀이를 잘 이끌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해야 한다.

아이들끼리 주고 받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놀이에서 어떤 배움이 일어났는지… 놀이에서의 아이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 기록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님들의 신뢰가 생긴다. 내 아이가 신나게 마음껏 놀이하고 행복해 하던 모습에서 내가 부모로서 행복함을 느꼈듯, 우리 반 부모님들도 그렇게 공감하며 따뜻한 협력자가 되었다. 놀이의 힘을 통해 유아,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하기를 꿈꾸며!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 힘과 용기가 되는 그 무엇을 아이들과의 놀이에서 발견하기를… 놀이에서 행복한 보물찾기가 시작되기를 바라본다.


바다반 담임
2019년 1월 12일 오전 7:22
바다반 담임으로서 밴드에 글을 올리는건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졸업식이 오후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이제서야 글을 올립니다
새벽에 일어나
지난 1년 동안 사진을 넘겨보며 추억에 잠깁니다
3월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느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생생한 기억으로 다가옵니다
늘 반짝반짝 빛났던 바다반 22명~
을 한히
"선생님이 좋아" "선생님이 좋아" 를
구호처럼 외쳤던 바다반
선생님이 왜 좋아? 물어보면
예뻐서...랍니다
24살 교사로서의 첫해, 진짜 예뻤을 때
(그 땐 누구나 예쁘죠^^)
아이들이 예쁘다고 말해주는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요 그래 남편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들어서가 아닙니다 ㅎㅎ
사랑하면 예뻐보인다...
이 나이에 어디가서 이런 사랑을 받을까 싶어요
선생님이라서 행복할 수 있다는걸
다시 알게 해 준 아이들
그리고
늘 지원해주고 믿어주는 학부모가 얼마나 든든한지
몸소 보여준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라는 말을 들으며
나이든 선생님도 성장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것에 선순환되어
또 아이들과 신나게 수업하고
교사를 성장시켜준 바다반과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4
25

똑똑,

너의 놀이에
들어가도 되겠니?

경인여자대학교 부속유치원 부장교사 **김민정**

유치원에서 13년차로 근무하며 현재 부장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언제나 공개되는 유치원의 특성상, 치열하게 교사생활을 하면서도 매사 뚝갈은 일이라도 재미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즐기며, 그 속에서 아이들과, 동료교사들과 함께 소소한 기쁨을 느껴가고 있다.
이제 교실 밖으로 나와 유치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계획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 교사의 행복이 먼저 실현되어야 함을 느끼고부터 이전보다 더 동료교사들을 살피는 일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게 되었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중간관리자들과 또는 그 마음을 헤아리기를 희망하는 많은 선생님들과 더불어 우리 유치원의'놀이중심교육' 사례를 공유하며 아이들의 이야기가 교육과정이 되어가는 그 작은 실천을 나누고자 한다.

매일을 교실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각자의 하루를 돌아보면 앤지 정말 행복하게 놀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못 내리던 뚜렷,
나만의 생각이 아님을 알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던 교사들의 나눔을 통해 '진정한 놀이'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기 시작하였다.
교사가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는가, 아니 그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배워왔던 예비교사 양성 환경까지, 너무 광범위한 유아교육의 바다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너무 작은 부분이지만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본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기에 적어도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통해서 한걸음씩 걸어본다. 그렇게 걸을 때 마다 갈림길도 많아지고, 또 그만큼 선택해야 할 일도 많지만 우리의 기준은 맞고 틀림보다 '아이들'이기에 걱정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본다. 방향은 잘 모르겠지만 가끔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도 하지만 늘 즐겁다. 그렇게 걷다보면 아이들과 함께 걷는 시간이 더 많아질 거라는 기대가 우리의 열심에 더욱 힘을 더해 준다.

'함께'하는 시작

"아이들이 제 이야기를 듣질 않는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은 선생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괜한 장난을 걸거나, 다른 곳을 멍하니 보고 있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아마도 제 이야기를 지루해 하는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은 선생님 이야기를 지루해 할까요?"

"글쎄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수업자료도 항상 열심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준비한 거에 비해 별 효과도 없는 것 같고, 활동도입도 고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 이론과 실제는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유치원 교사로서 13년차에 접어들다 보니, 어느덧 교사들의 멘토 역할을 해 주는 위치가 되었다. 후배 선생님들은 수업에 대한 고민이 생길 때마다 종종 찾아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선생님들의 고민 중 대다수는 '이론과 실제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라는 말이다. 되돌아보면 나 역시도

입버릇처럼 달고 다녔던 말이다. 정답이 없는 넓고 넓은 유아교육의 바다 어딘가에서 혼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마다 되뇌었던 말이다.

"오늘 이야기나누기 주제가 무엇이었나요?"

"봄에 피는 꽃에 대해 알아봤어요."

"음. 아이들이 봄꽃에 대해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글쎄요. 벚꽃놀이 정도? 그렇게 많은 경험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 앞으로 경험해 나가도록 유치원에서 배우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유치원은 무언가를 배워야하는 곳인 건 맞아요. 하지만 가르치는 사람이 꼭 선생님이어야만 할까요? 선생님이 진행한 수업의 형태는 이야기나누기인데, 한 쪽에서 정보가 전혀 없으니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의도와 다르게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되진 않을지 염려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봄을 주제로 진행하자면 봄꽃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넣은 건데, 아이들에게만 맡기면 그런 걸 다 알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이들이 알아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봄꽃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걱정하지는 맙시다. 아이가 배움을 실현하는 것은 꼭 선생님이 준비하신 그 내용이 아니더라도 하루에도 수차례씩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에요. 아이들과 봄꽃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봄꽃들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더불어 봄이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말이죠."

"그럼, 교사가 가르치려는 것 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진짜 교사가 해야 할 일일 수도 있겠네요. 한 번 고민해 볼게요."

이러한 고민은 어느 한 교사에게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담임을 맡을 때마다 나 역시 치열하게 했던 고민이었고, 나와 함께 근무했던

선생님들과도 늘 나누던 이야기였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같은 고민을 하는 교사들을 보면 아마 지금도 수많은 교사들이 수업에 대해,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각종 연수나 언론 보도에서 유치원교육에서 '놀이'가 중요함을 새삼 강조한다… 언제 유치원에서 놀이가 없었던 시간이 있었던가? 한 번도 놀이가 아닌 것으로 무언가를 해 본적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뭐지? 왜 새삼스레 놀이중심교육이라는 이야기가 강조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유치원 교육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었던 걸까?

의미 있는 가르침과 배움, 그리고 놀이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우리가 모르는 놀이에 대한 특별한 비법이 있다면 당장이라도 보고 배워서 실행하고 싶다는 기대감에서 주간 회의 시간에 교사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놀이중심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시대가 변하여 갈수록 특성화활동이나 한글, 수 등 학습적인 내용으로 학부모님들의 선호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알고, 이를 반영하듯 많은 교육기관에서도 놀이보다는 학습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는 아이들이 자유선택활동이며 바깥놀이며 잘 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육과정이 개편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아직 누리과정이 잘 정착된 느낌이 들지도 않는데 벌써 바뀌는 건지, 뭔가 지금까지 해 오던 교육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건지, 놀이중심으로 한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었는지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놀이중심교육과정 속에 뭔가 특별한 해답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기도 해요. 더 재미있게 잘 놀 수 있도록 해 주는 무언가가 소개되지 않을까요?

감사하게도 회의시간에 나눈 교사들의 이야기는 대체 '놀이중심교육이 뭘까? 우리가 해오던 것과 다른가? 실현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빨리 알아보고 싶다.'가 대부분 이었다. 교사들에게 호기심의 불씨가 일어났을 때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 역시 멘토로서의 내 역할이라 생각해 원장님의 동의를 구해 원내 교사 연구회를 만들기로 했다.

'함께'
갈 수 있는 길
열어가기

안 그래도 할 일도 많고 고민도 많은데, '놀이중심교육'에 대해 연구하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 걱정이 더 컸어요. 업무 외 시간이 안 그래도 없는데 더 없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일거에요. 하지만 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이 어쩌면 이 연구 속에 숨어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 하나로 흔쾌히 참여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일찍 집에 가서 쉬고 있을 바에는 친구들과 만나 알차고 유익한 여가생활을 보내는 거라 생각하니 마음도 가벼워졌고요. 그래서인지 선생님들과 커피숍에서 모여 놀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눌 때가 제일 좋았던 거 같아요,

그런데 막상 원내 연구회를 꾸리려니 걱정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였다. 선생님들이 꺼려하지는 않을까?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해야 될까? 교사들에게 의미 있으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 연구회는 모든 교사들이 즐겁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치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놀이중심교육을 적용하듯이 말이다. 아이들을 위해 교사에게는 가르치거나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놀이 안에서 발견하라고 하면서, 정작 교사들에게 진행했던 장학의 진행과정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시간을 거슬러 몇 년 전의 나 역시 수업에 대한 날 선 질문들의 평가를 받고, 계획안에 빼곡하게 적힌 빨간 색의 글자들과 더불어 진행되는 장학 앞에 유난히 더 긴장하고 움츠러드는 교사였기에 새롭게 만들어질 연구회는 그런 모습이 되질 않길 바랐다.

경력이 적은 저는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움츠러들었어요. 제가 그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맞는지조차 판가름이 되지 않아서요. 하지만, 몇 번의 모임을 통해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가 맞고 틀리는 이야기가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부끄러워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 건 이제 와서 아쉬움이 남지만, 경력 많은 선생님들도 교실에서 저와 같은 고민을 반복하고 계시다는 거에 위로가 되었어요.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의 컨디션과 유치원의 일정을 생각해주시면서 모임의 일정과 시간을 계획해 주신 것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라 생각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고민 끝에 나 스스로 세운 연구회의 성격은 "놀이처럼 하자"였다. 교사들의 놀이연구회도 유아 놀이의 요소인 선택, 즐거움, 몰입, 과정지향, 주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였다.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참석의 자유'이다. 배움의 공동체이기에 모두 함께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자율장학의 성격을 갖고 있는 연구회이기 때문에 날짜 선정부터 참석여부까지 모두 오롯이 교사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에서 였다. 한번은 미리 예매해 둔 공연으로 인해 연구회 참석이 어렵다고, 교사들 가운데 가장 선임인 선생님이 찾아와 이야기 하였다. 먼저 이야기 해준 것은 고마웠으나, 애초의 약속대로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앞으로 일일이 이야기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가서 즐겁게 시간 보내고 오면 여기서 나누는 놀이중심활동 보다 아이들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미칠 거라고 이야기 해주었다. 사실은 선임 선생님의 부재가 다른 선생님들에게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고 함께 계획안 연구회에 가장 많은 부분

함께 해 줄 거라 기대했었기에 서운하고 불안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나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 더더욱 참석여부에 대한 체크를 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민했던 것은 '즐겁게 또 즐겁게'이다. 유치원에서 일과가 끝나고 모여서 유치원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이야기 나누는 건 그 자체가 업무의 연장이라 생각할 수도 있기에, 일단 최대한 밖에서 모임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맛집, 카페, 세미나실, 대학 강의실 등 다양한 장소를 찾아다니며 일단은 유치원을 벗어나 신선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이런 노력이 때론 밖으로 나가는 시간까지 더 사용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날도 있었음을 고백한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매 순간 모두에게 백점일 수 없음을 인정하면 이러한 준비과정도 좀 더 가벼워질 수 있었다. 처음에는 모두가 좋아할 메뉴를 선정하는 것부터 고민거리였다. 우리의 모임 취지와는 상관없는 스트레스.

하지만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이 위안이 되었고 선생님들 역시 본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나의 노력을 알고 있는 듯했다. 그렇기에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선생님들은 연구회에 더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 주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먼저 원할 경우가 아니면, 나는 먼저 조언이나 평가 등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그저 선생님들이 수다를 떨 듯, 오늘의 하루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력하였고 그것이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닌 생각할 거리와 고민을 던져주어 다음 주제로 연결되는 길을 터 주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는 매 모임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미리 생각'할 수 있도록 했다. 각자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 없이도 자신의 삶을 잘 표현하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를 익숙해 하지 않는 선생님들도 있었기에 어려워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했다. 자율적인 모임이고, 각자의 삶을 나누는 게 대부분이라 이야기에 맞고 틀리는 게 없다고는 하지만 아무 것도 몰라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기에, 항상 모임을 마치면 그 날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서 보내며 아래에 다음 모임에서 나눴으면 하는 이야기들도 함께 정리해 공지 하곤 했다.

이 유치원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교사들 간의 자율연구모임이 있다는 이야기에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었어요. 교사 모임이라고 하면 주간 회의 정도가 고작이었는데,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하는지, 얼마만큼 어떤 부분을 나눠야 하는지 사실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저의 부족한 부분이나 잘했다 생각하는 부분을 스스로가 평가해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 하는 것도 어색하게 느껴지고요. 그런데 '놀이'를 주제로 새로운 연구회를 본격적으로 결성하고 모임의 회차를 더해갈수록 함께 고민이나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용기 있게 자신의 수업 영상이나 교육계획안 제공하며 고민하는 선생님을 보면서 아직 그만큼의 용기가 나진 않지만,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어요.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처음에 많이 걱정이 되어 긴장한 채로 참석했는데, 이야기 나눌 주제들을 미리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셔서 생각을 정리하여 참여할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물론 매 번 다 정리하고 참여했던 건 아니지만요. 계속 이어져야죠. 저도 더 용기 내어 참여하고 싶어요.

지난 모임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다음 모임에서 추가적으로 나누었으면 하는 부분을 정리해서 헤어지면, 꼭 다음 모임에서는 그 주제 외에 더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생겨났다. 아마 각자가 생각을 정리하는 가운데 더 넓은 범위의 고민들이 생겨나는 것이었으리라 생각한다.

한 번은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놀이영역을 해체한 후, 각자 교실에서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 나누었다. 이야기는 자연스레 일일교육계획안과의 실제 이루어진 활동 사이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주제로 이야기 나누었다.

연구회 모임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수업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교사들의 또 다른 부분의 고충을 미리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다.

교사1 *아이들의 놀이가 점점 기존의 영역의 구분과 거리가 멀어지며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육계획안의 구성은 기존 그대로 사용하니 어려움이 있어요. 아이들의 통합적인 놀이를 어떤 영역의 활동이라 명명해야 할지도 에매하고요.*

부 장 *놀이중심교육을 실천하는데, 계획안의 구성은 변화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계획과 실천함에 있어 그 괴리가 컸을 것 같아요.*

교사2 *그래서 말인데 교육계획안에 미술, 쌓기와 같은 영역이름을 각 반에서 정해진 놀이영역 이름으로 교체하는건 어떨까요?*

교사3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반 아이들은 새로 구성한 영역에서도 한 가지 놀이만 이루어지거나, 그 영역의 활동이라고 정하는 것 조차 어려움이 있어요.*

교사4 *그럼 계획안에 놀이영역을 모두 배제하고 당일에 이루어진 놀이를 평가하며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날의 놀이를 심화 확장할 계획을 수립하면 어떨까요?*

부 장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사1 *네. 그럼 제가 계획안 틀을 수정해서 한 번 공유 해볼게요. 보시고 모두 의견 주세요. 그렇게 사용해 보고 보완할 점을 다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계획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들이 이야기의 주를 이루며 새로운 놀이중심교육을 만들어 나간다. 어쩌면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든 과정이 놀이중심교육이라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우리들의 이야기를 교실에서 실천해 보기로 한다.

'놀이'가
자랄 수 있는
교실 만들기

놀이중심교육은 '교사가 주도권만 내려놓느냐, 개입이 완전히 없어져야 하느냐'부터 논쟁이 시작되어, 아이들끼리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보자는 이야기로 좁혀져 나갔다. 아직 놀이중심교육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없이 우리들끼리의 이야기로부터 도출한 내용을 실천한다는 것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으나, 한 편으로는 각자의 생각대로 진행하다보면 오히려 거기서 각자에게서 서로 다른 의미가 발견될 것이라 생각되었다.

연구회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더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반 미술영역은 6명으로 인원제한이 되어 있는데, 미술영역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역이라서 금방 6명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00와 00가 미술영역에 가서 종이를 몇 장 들고 언어영역으로 가며 저에게 "편지쓰기 놀이하려고요." 하길래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우연히 언어영역을 지나다가 그 두 친구가 미술영역에서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며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놀이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그걸 굳이 제한된 공간에서 정해진 인원수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의미가 없구나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미술영역에서 그림을 그리고 동화도 짓고 이야기도 구성하고, 편지도 쓰고 다양한 재료로 그걸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그런걸 글씨 쓸 때는 언어영역에서 쓰고 꾸밀 때는 다시 미술영역에 와서 하고 하며 구분 지을 필요가 있나 싶은 거죠.

한 교사의 그날 관찰내용을 공유함과 동시에 그 동안 지내왔던 교실의 놀이 영역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다. 인원제한을 둔 그 이름표 때문에 가장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거나, 인원을 제한하니 아이들이 이름표를 살짝 걸쳐서 놀이를 하거나 다른 친구의 이름표를 몰래 떼어내고 놀이를 하는 등, 정말 해야 할 것을 못하게 하는 규칙으로 인해 오히려 약속을 어기는 아이로 만들어 버린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렇다면 영역을 없애고 놀이를 한다면? 에 대해서는 모두가 참 막연했던 기억이 난다. 일부러 영역을 없애서 엉망으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막상 없앤다니 어떤 기준으로 교실을 구성해야 할지조차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기회를 줍시다. 아이들이 쓰는 교실이니 아이들이 가장 잘 알 것 같아요."

반신반의 하며 각자가 교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만큼 해보고 그 과정과 결과를 다음 모임에서 공유하기로 하였다.

생각해보니, 나 역시 교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영역구성을 하기 전에 전공서적을 펼쳐 두고 혼자 생각에 빠졌던 기억이 있다. 왜 아이들이 놀이하는 공간이 교과중심으로 공간이 나뉘어져 있을까? 아이들이 이 놀이가 이 교과에 해당하는 놀이라는 것을 알고 노는 것일까? 그냥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뿐일 텐데, 차라리 알아보고 싶은 것을 주제로 공간을 구성해 두면 어떨까? 등으로 차마 그 절대적이라 생각했던 이론에 거스르는 생각을 누구와도 공유하지 못한 채 엉뚱한 생각을 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교실의 구성을 아이들에게 맡겨서 한다는 것에 대해, 생활하기 편한 영역이 구성될 수 있을지, 많은 유아들과 함께 하는 활동 속에 참여하기 어려워하는 유아는 없을지, 다양한 교구를 사용하기에 적절하게 배치가 될지 등에 대해 많은 고민을 갖고 시작하였으나, 그 고민이 무색할 만큼 모든 유아들이 너나할 것 없이 참여하였고, 서로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며 영역을 구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쌓기영역, 역할영역의 공간은 넓게 확보하고, 교구장의 위치 등을 바꿔서 시야가 더욱 넓어 보이도록 구성하였다. 아이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어 아이들이 놀이하기 편하고 즐거운 공간이 구성되고 나니 스스로 '공사'를 했다고 표현하며 더욱 즐겁게 생활하는 유아들을 볼 수 있었으며, 놀이가 끝나고도 불편한 점이 발생하면 '여기는 의자가 너무 많아서 불편하니까 책상이 없는 의자에 두면 좋겠어요.' 하며 주체적으로 교실을 생각하게 된 것 같아 큰 의미가 있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반영하며 교실 안에 다양한 부분의 크고 작은 것들을 수정하며 지낼 계획이다.

(2018.9.10. H교사 저널 중에서)

아이들의 의견으로 구성하는 과정도 결과도 우리의 생각보다 매우 훌륭했다. 의견 조율이라고는 싸우는 것 밖에 몰랐던 아이들도 주도권이 주어지자 협의를 하였고, 구성된 결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생활하며 일어나는 불편함에 대한 건의도 하며 그렇게 온전히 자신들의 만의 교실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모든 교실에서는 교과중심의 이름으로 편성된 영역은 없어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구성되고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영역"들이 생겨났다.

소세지영역

파이리, 꼬부기영역

도넛영역

불꽃놀영역

오므라이스영역

불럭카페

※ 만 5세반에서 '사진'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아이들이 구성한 교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각 영역을 보며 연상되는 것을 영역의 이름을 재설정해 보았다.

영역의 기능은 그대로인데, 구성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역 내에 있는 교재교구의 배치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구성하였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쌓기영역의 기능을 하는 공간에 역할영역 놀이를 하던 물품들이 합쳐지고, 그러다 보니 재미있는 놀잇감들은 모두 그 공간으로 집중되는 모습이었다. 상대적으로 아이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언어영역의 놀잇감이 배치된 공간은 매우 협소하게 구성되어 아이들이 들어가 앉기도 비좁은 공간이 되어 있었다. 막상 놀이를 시작해보니 오히려 이러한 구성이 합리적이라 생각이 들었다. 정말 만들어진 공간의 비율만큼 아이들이 각 영역에 흩어져 놀이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역시 모든 것의 해답은 유아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순간이 되었다.

교실의 교재교구를
재정비하는 유아

교실 교구장의 위치를 재구성하는 유아

‘놀잇감’과
‘놀이’
그 완벽할 수 없는 관계

아이들이 블록카페(구 쌓기영역)에서 놀이를 하는데 늘 같은 놀잇감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나요. 자석 블록 중에 몇 개 없는 노란색 마름모 모양의 블록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들끼리 이게 ‘황금다이아몬드’라 부르면서 그걸 선점하려고 다투는 모습을 많이 보여서 이번 주제를 시작하면서는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이 자석블록은 교실에서 빼두었어요. 그랬더니 잠시 싸움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자동차라던가 또 다른 대상을 찾아서 서로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어요.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놀잇감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게 되었다. 아이들이 놀잇감에 열광하는 이유가 새로운 놀이를 재창조하고 싶은 욕구라면 지지하고 응원하겠지만, 단순한 소유의 욕심이라면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앞서 공간을 구성하면서도 일부 진행해 보았지만, 대대적으로 놀잇감을 정리해 보기로 하였다. 다양한 논문과 서적을 통해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각 교실에 있는 놀잇감을 떠올리며 구분지어 보는 것이다. 그러던 중 1992년 독일 바이에른 주에서 실시한 〈장난감 없는 유치원 프로젝트〉 사례를 만날 수 있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된 바 있으나 실상이 어떤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다. 파격적인 제안에 교사들도 여러 가지 걱정에 주춤 하고 있을 때 내심 자원하는 교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실험정신이 강한 선생님이 본인의 교실에서 한 번 진행해 봐도 괜찮겠냐고 제안을 하였다. 반면에 장난감을 다 없애는 것 까지는 부담이 된다는 선생님들도 있어, 각자만의 방법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잇감을 정리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한 영역 구성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실에 있는 놀잇감들이 '한 학기 동안 함께해서 즐거웠어. 한 달 정도 다른 곳을 여행하며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고 다시 돌아올게.'라는 편지를 남기고 모두 사라졌다. 아이들은 놀잇감이 없어졌다는 것보다 놀잇감이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더 놀라워하며, 함께 놀라고 있는 선생님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끊임없이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었다. 어찌되었든 일어난 상황에 따라 현실을 파악한 아이들은 자신들 만의 놀이를 찾기 시작하였고, 유치원 출입구와 계양산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유치원의 특성상 일단 밖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돌 탑 쌓기

돌 위에 그림자 만들기

바닥에 다양한 그림자 모양 만들기

돌 기차놀이

워낙에 바깥에서 왕성하게 놀이를 해왔던 아이들이라 다양한 놀이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워하지는 않았으나, 계속 밖으로만 나올 수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 놀이를 교실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더니 주저함 없이 교실에서 갖고 놀고 싶은 자연물들을 작은 봉투에 모아 담기 시작하였다.

자연물 분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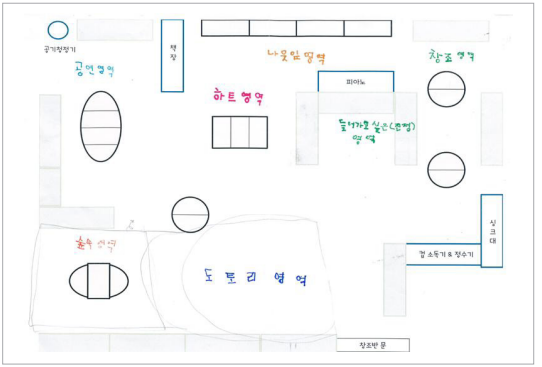
자연물 이름표

영역으로 구성하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놀잇감이 떠나간 빈 바구니에 아이들이 주워온 자연물을 분류해 담기 시작하였고, 기존에 사용했던 교구이름이 적혀있는 바구니를 보며 새로 담긴 자연물의 이름을 기록하여 교체를 하였다.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주워 온 자연물만으로 하나의 영역이 뚝딱 만들어졌다. 이 영역에 가장 먼저 들어오고 가장 많은 수가 있는 '도토리'의 이름을 따서 '도토리영역'으로 불린다.

그렇게 하나의 영역이 새로이 만들어지니 나머지 영역은 삼삼오오 나뉘어져 본인들이 좋아하는 놀이로 금방 구성이 되었다.

만 5세 '놀잇감 없는 OO반' 교실 영역 구성



자연물로 만든 인형을 이용한 극 놀이가 펼쳐지는 '공연영역'.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서 전하는 '하트영역', 주워 온 나뭇잎을 햇빛에 말리고 빻고 하는 등 자유롭게 탐색해 볼 수 있는 '나뭇잎영역', 다양한 재활용품과 자연물을 이용해 기상천외한 나만의 작품과 재미난 놀잇감들을 만들어 내는 '창조영역', 앞서 소개한 '도토리영역'과 도토리영역에 있는 자연물을 이용하여 놀 수 있는 '숲 속 영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와 동시에 모든 교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휴식과 나눔의 공간인 '들어가고 싶은 영역'으로 구성되어졌다.

이 교실은 '놀잇감 없는 ○○반' 주제 진행 이후, 프로젝트 주제가 벌써 2번이나 바뀌었지만 아직도 교실에 구조적인 놀잇감은 없다. 아이들이 종종 "왜 놀잇감이 돌아오질 않아요?"라고 묻긴 하지만 대답을 듣는 것 보다 지금의 시간을 즐기는 모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에 교사 역시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놀이중심교육을 실천하는 교실 환경 구성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연구회 모임에서 각자 실천한 바를 공유함으로 뭔가 놀이에 가깝게 진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확신으로 인해 교사들의 열정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내가 놀고 싶은 건,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환경구성에 자율권을 준 이후,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다. 물론 영역을 해체한 후로 교실이 엉망이 되어 놀이시간 만큼 정리시간이 걸리는 날도 있었고, 놀잇감이 없어진 교실은 놀잇감을 준비하는 데만 해도 1시간이 소요되어 정작 놀이를 하는 시간이 이전 보다 부족하다는 평가를 유아 스스로 하기도 하였다.

어찌되었든 아이들은 자율적으로 구성한 공간에, 자신들이 놀고 싶은 놀이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늘 그랬지만 교사가 기대한 이상의 결과물로 말이다.

물병 던져 세우기

뽑기 게임(휴지케이스)

도토리 축구 게임

개구리 점프놀이(우유락)

돌멩이 던져 골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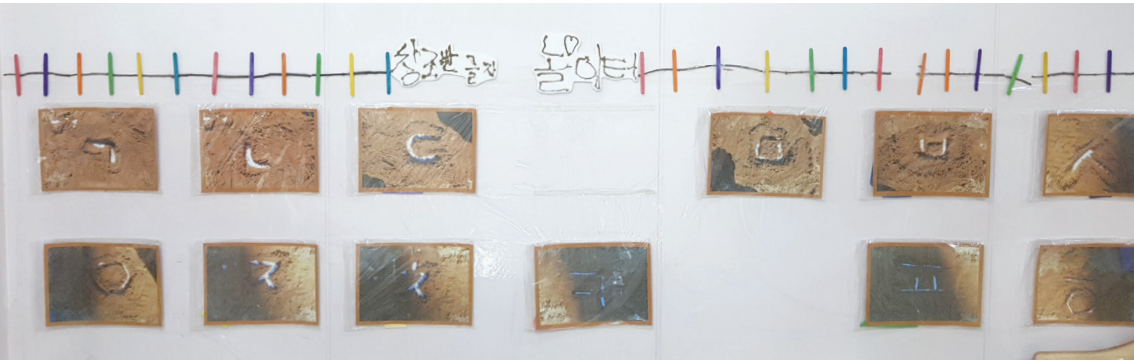
색 돌가루 만들기

하루에도 몇 가지 놀이가 개발되어지고,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놀이해 보고는 재미있으면 교구 바구니에 넣어 다른 친구들에게도 공유하고, 재미없으면 포기하기 보다는 더 재미있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가며 그렇게 놀잇감이 있을 때 보다 더 많은 놀잇감이 각 교구장에 자리하게 되었다.

만 5세반 선생님이 연구회 시간에 나눈 이야기다. 견학을 가서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모래 운동장에 모두 모여 춤을 추고 게임을 하는데, 이상하게 자기 반 아이들은 참여하질 않고 주저앉아 모래에 글씨를 쓰고 있었다한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흥을 돋워주려고 같이 놀자고 제안하였으나, 몇 명의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꺾인 나뭇가지를 주어다가 그림도 그리고, 대부분은 글씨와 같은 형태로 끄적거리며 쓰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흘려보지 않았던 선생님은 견학을 다녀와 교실에 모래 영역을 만들었다. 2학기가 시작되며 학부모님 상담을 통해 아이들이 한글을 다 익히지 못한 고민을 들어왔던 터라 어떻게 하면 한글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해왔던 차에 모래에 신나게 글씨를 쓰는 아이들을 보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함께 듣던 연구회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흥미와 교육적인 목표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그 보다 교실에 모래를 들여 놓은 용기에 감동하며 그 선생님에게 박수를 보내주었다. 견학지에서 아이들이 쓴 글씨를 사진으로 찍어 와서 벽에 게시를

하고, 각 사진 뒤에는 봉투를 부착하여 같은 자음 모으기 게임을 만들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실 바닥에 오랫동안 함께 할 모래알갱이 걱정보다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가치와 재미난 활동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이 놀이중심교육에 있어 큰 의미로 다가왔다.



같은 자음 모으기 게임

그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제안에 따라 한글을 하나도 가르치지 않은 "한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끊임없이 제안되는 아이들의 놀이설계를 좇아가느라 교사가 매우 숨 가쁘게 달렸던 기억이 난다. 어찌되었든 대단한 아이들을 만들어내는데 있어 대단한 교사의 공로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글자를 적어 자음봉투에 모으는 유아

저희 반 주제가 "그림"이다 보니 어디서든 그림을 즐겁게 그리도록 하여 다양한 놀이와 그림이 이루어져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목표였어요. 마침 환경을 구성할 때도 다양한 그림 도구들을 흥미영역 곳곳에 배치를 해서 교사가 의도적인 활동을 할 필요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한 주 정도 흘러 오늘 자유선택활동을 관찰하다가 발견한 것이, 기존에 블록놀이 공간에는 보통 남자아이들이 10명 정도가 항상 놀이를 했는데, 오늘은 딱 3명뿐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물론 그림을 그리는 재료나 그림이 사용되는 목적은 모두 달랐지만, 교실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그리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평소 미술놀이에 관심이 없던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놀이와 연결되는 모습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환경을 어떻게 제공하고 아이들의 놀이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아이들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즐겁게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이 전의 놀이시간들이 아이들에게 미안했어요.

각 반의 연령도, 주제도, 아이들의 성향도, 흥미를 갖는 소재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역시 '놀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상황도 교사마다, 학급마다, 주제마다 각양각색이었다. 놀이중심교육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미리 통일하지 않고 진행한 것에 대한 결과도 이렇게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다니 예상치도 못했던 일에 함께 한 선생님들과 신기해 했던 일이 생각이 난다. 교사들도 아이들도 자신들만의 방법과 색깔로 놀이를 실천하고 펼쳐나가는 것 같아 뿌듯했다.

아이들과 함께 환경구성을 경험한 이후로 교실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선생님,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에요. 아이들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동기부여가 되고 나니 협력하여 함께 해내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친구를 격려하며 도와주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교사가 계획한 건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영역구성 정도였는데, 교실 안에서 이렇게 까지 변화가 일어날 줄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교사인 제가 다 뿌듯해요.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니지만 저 스스로가 아이들을 잘 키워나가는 것 같은 보람이 느껴지거든요. 앞으로 제가 성장해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우리 연구회 구성원들은 놀이를 실천하고 느끼는 과정을 통해 '놀이' 속에 참 교육이 숨어있다는 확신을 점점 더 깊이 갖게 된 것 같았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공동체는 또 다른 과제를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아이들이 가장 놀이라 여기지 않는 단위활동인 '이야기나누기'를 놀이 중심으로 변화시켜보자는 것이다.

똑똑,
너의 놀이에
들어가도 되겠니?

교사 진우가 먼저 이야기 해줬으니 진우부터 한 명씩 만져보는데,
눈으로 보지 말고 한 번 만져보자. (진우에게 주머니를 준다.)

진우 (주머니에 손을 넣고 만진다.) 어! 뭐야!

교사 보지 말고~

진우 바퀴같은 게 있고, (계속해서 주머니 속 물건을 만진다.)
지금 빠진 거 찾고 있어요.

교사 응? 바퀴가 빠져있다고?

진우 바퀴가 빠졌어~

교사 응? 뭐지? 그래 좋아, 다른 친구들도 만져보자

진우 구급차?

교사 응. 그래 다른 친구들도 만져보자. (주머니 입구를 다시 조이며 소영이에게 건넨다.) 그런데 보면 재미가 없어.

진우 야, 구급차다 그거 딱 봐도 구급차

교사 그래. 다른 친구들도 만져보게 시간 좀 줘.

2년차인 선생님이 제공해준 이야기나누기 시간의 상호작용을 전사하여 함께 살펴보았다. 우리 모두 항상 유아 중심으로 이야기나누기를 진행해 왔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기 위해 아이들이 보기에 흥미로울 도입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어, 이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다. 어쩌면 그 선생님에게 떠오른 생각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주머니에 오늘 이야깃거리를 넣어서 흥미를 갖게 해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약속을 안 지키는 아이가 있어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랬겠어요. 하지 말라면 아이들은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여러 친구들이 함께 돌려가며 관찰했으면 하는데 그 친구가 자꾸 혼자만 만지고, 주머니 안을 보지 않고 탐색하기를 바랐는데, 자꾸 주머니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찌나 장난꾸러기인지 몰라요."

"선생님이 계획한대로 진행되지 않아 많이 당황스러웠겠어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야깃거리를 주머니에 넣고 시작한 이유는 뭔가요?"

"그야, 이야깃거리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여 재밌게 진행하기 위해서죠."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반의 친구들은 이 주머니 속 이야깃거리로 인해 호기심을 갖고 재미있었나요?"

"아니요. 잘 되지 않아 오히려 방해가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의 고민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는 선생님의 평가를 들으니 오늘의 이야기나누기 활동 방법과 오늘의 ○○반 아이들이 잘 맞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싶어요. 가장 큰 문제는 선생님이 이 상황이 어려웠으니, 아마 그 누구도 즐겁지 않은 상황이 되었을 것 같단 생각이 드네요."

"잘 모르겠어요.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 고민하고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별로 재미있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야기나누기가 재미있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시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자칫 이야기나누기 시간이 아이들과의 주도권 싸움이나, 질서 교육 등에 많은 부분 할애되었던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었다. 내가 존경하는 한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마치 연애할 때 상대방의 이야기에 전심을 다해 귀를 기울이듯 그렇게 이야기나누기를 하면 어떻겠냐라는 조언이었다. 아무래도 이대로 이야기나누기를 진행하는 건 선생님에게도 아이들에게 힘든 일인 것 같다는 생각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기로 하였다.

놀이중심에 기초한 이야기나누기를 실천하고자 마음먹었을 때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처음 제 스스로가 정했던 약속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의미 없이 반복하거나 되묻지 않는 거였어요. 저의 그런 발문이 이야기나누기 시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마음 단단히 먹고, 활동 시작 전에 손등에 볼펜으로 써두었어요. '반복X, 되묻기X' 그 날 이야기나누기에서의 저는 반복을 하거나 되묻는 질문은 현저히 줄었더라고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는데, 온통 그 쪽으로만 신경이 쓸려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언제쯤이면 저는 그 모든 걸 아우르는 유능한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볼펜으로 스스로의 약속을 손등에 적고 활동을 시작했다는 어린 선생님의 열정에 왠지 가슴이 뭉클했다.

본인과의 약속은 지켰으나 좋은 이야기나누기 수업이 아니었다는
스스로의 평가를 듣고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선생님이 이대로 성장하면 수업의 질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유능한 교사가 될 거라는 걸…

우리 반 아이들에게 이야기나누기와 관련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듣고 솔직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 혼자만 말하고, 나는 허리 쭉 눈 뽀뽀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야 해서 좀 힘들어요."라는 말이 가슴에 새겨져 저를 객관적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는 교사가 되어야지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지만, 교육목표를 생각하면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친구긴 친구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하자고 하는 그런 친구가 된 것 같아서 계속 방향을 잡아가고 있어요. 저 같은 친구랑 안 놀거라고 하셨잖아요. ^^ 같이 놀고 싶은 친구가 되려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이건 왜 그럴까요?", "어떻게 될까요?", "같이 해봐요"하는 제안을 하는 거 보면 조금씩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되요. 저의 장점도 단점도 아이들을 통해 보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건넨 아이의 이야기가 아마 선생님에게는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되었을 것 같다. 친구 같은 교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같이 놀기 싫은 친구가 되어 있다니… 선생님의 작은 고백이 남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 것은 왜 일까?

선생님은 아직 본인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아이들이 다가오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선생님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이야기 소리가 교실 밖에까지 흘러나오는 걸 보면 아이들은 느꼈을지도 모른다. 선생님이 주도권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놀이에 다가가려 '똑똑' 문을

두드리는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어쩌면 아이들은이미 마음의 문을 열고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지금도 선생님은 동영상을 촬영해 자신과 아이들이 나눈 이야기를 나에게 갖고 와 의논하곤 한다. 선생님은 이제는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아이들이 바르게 앉아 있지 않아도, 다른 관심이 생겨도 크게 당황하거나 상황을 바꾸려 애써 모면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였다. 그 보다는 아이들이 관심 갖는 것을 어떻게 지금의 교육적인 목표와 연결시킬지를 고민한다고 말이다. (물론 피식 웃으며 아직은 성공보다는 고민 단계라고 말한다.)

한 번은 이야기나누기 시간에 '옷'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 던 중 '방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의 일이다. 선생님은 과감하게 그 다음 계획한 수업을 다 정리하고 다양한 천에 아이들과 함께 물을 뿌려가며 '방수'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 다른 어느 날 '그림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넓은 강당을 암실로 만들어 한 줄기의 빛만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그냥 마음껏 뛰어놀게 하였다. 그리고 난 다음, 교실에서 회상하기를 할 때 그림자가 생기는 원리와 특성에 대해 모르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며 감동섞인 목소리로 말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우리 유치원에서 자발적으로 즐겁게 연구에 참석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성장하는 것처럼 본인들도 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며 성장해나가고 있다.

함께하는 선생님들에게 물어봤다. 왜 바쁘고 힘든 시간 속에서 연구회 모임에 참석 하냐고… 토의시간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그렇게나 치열하게 나누더니 이 질문의 대답은 비슷하다. '아이들에게 한 번 뿐인 이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고 싶어서….'

놀이중심교육을 대할 때 처음에는 오히려 쉽다고 생각했는데, 하면 할수록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놀이'라는 생각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 아이들도 저도 좋을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다면, 이건 놀이일까? 이런 걸 제시해 주어도 괜찮을까? 하는 고민이 점점 늘어갔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조차도 그냥 교사의 괜한 고민인 것 같아요. 아직 '놀이중심교육은 이것이다.'라고 말로 분명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놀이중심교육을 실천하는데 분명하게 첫 발을 내딛었다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이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사소하게 스쳐지나가는 것일지라도 한 번 더 소통하며 그것이 놀이로 또는 교육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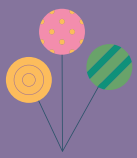
교육과 놀이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정답은 없으며, 명확한 매뉴얼도 없다. 어느 정도의 지침은 있을 수 있겠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대단한 일을 해내는 건 결국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교사의 열정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교사들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길 수만은 없는 것이 아마 나와 같은 중간관리자의 고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유치원의 방향을 원장님과 함께 설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 교사들이 같은 마음으로 노를 저을 수 있게끔 하는 역할! 나라고 그것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수업이 잘 안 풀릴 때, 아이들 때문에 속상할 때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더 열심히 이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야 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게 된다.

아이들에게 단 한번 뿐인 다섯, 여섯, 일곱 살의 오늘을 가장 즐겁게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과 정성이 쌓이다 보면, 각기 다른 빛깔의 놀이중심교육도 쌓여가리라고 생각한다.

일터를
놀이터로 만드는

선생님들



청심유치원 원장 **한선희**

나는 아침마다 유치원 정문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오늘 재밌게 놀다가자' 라고 외치며
하루를 시작한다. 작은 씨앗을 품은 유치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꽃으로 피어나게 할지
고민하다 보니 놀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현장에서 지낸 세월이 20년이 훌쩍지만
지겹기는커녕 할머니가 되어서도 아이들과 놀 수 있는 힘을 가진
원장으로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뿐이다. 그 마음으로 나는 오늘도
아이들, 교사, 학부모와 함께 놀 틈과 놀 터를 찾아다니며 신나게 놀고 있다.

놀이에 대한 소신으로 영어 특성화수업을 줄였던 그 날, 퇴원물의가 빗발치고 순식간에 학급이
줄어드는 위기를 겪었다. 교사도 학부모도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함을 원망하며 좌절하던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소중한 공동체였다.
교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이 흔들림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여기자, 놀이학습공동체를 통해 연구하는
유치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놀 줄 아는 우리'가 되기 위해 놀이 일기를 공유하고 놀잇감을 맞보며
원장으로서의 내 역할 또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빨간 펜을 들고 계획안을 점검하던 권위적인 원장을 선생님들의 놀이 친구로
변화시킨 놀라운 힘은 바로 '위로'그리고 '함께'에 있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의 놀이 친구를 넘어 더 많은 놀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 진정한
놀이 나눔을 실천하며 손을 내밀어 본다. 그렇게 우리는 더 나아지고 있는 중이다.

이 흔들림은
위기일까?
기회일까?

"유치원에서 영어수업은 몇 시간이나 하나요?"

원아모집 시기에 학부모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늘 받게 되는 질문이다. 유아기 영어교육쯤은 기본으로 여기고, 다가오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려면 유치원에서부터 코딩교육까지 다루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학부모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학부모들에게 우리 유치원이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어떤 놀이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상담은 뚝 끊어지기 일쑤였다.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원아모집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러다보니 차츰 차츰 늘어나버린 영어수업과 다양한 특성화 수업들로 인하여 언제부턴가 내가 추구하던 놀이중심교육에 대한 열정은 식어가고 그 중요성 또한 뒷전으로 밀려난 듯 했다. 방과 후가 되면 누가 어떤 놀이를 얼마나 재미있게 펼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보다 누가 어느 특성화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무슨 요일에 어느 특성화 수업으로 보내야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문득문득 낯설기까지 했다.

때마침 2018년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정책이 발표되면서 나는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유아기 영어 교육이 아닌 '놀이'여야 함을 교육자로서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원장으로서 유치원 운영에 타격을 입을 일이 매우 두려웠기 때문이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교육자로서의 철학을 지키기로 마음을 다잡고 우리 유치원의 원훈을 다시 한 번 읽어보았다. '신나게, 재밌게, 놀면서 꿈을 키우는 어린이'… 내가 원장으로서 꿈꾸던 유치원은 이런 곳이었거늘 나는 무엇을 고민하는가, 우리 유치원이 추구하던 놀이중심교육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되새기며 영어 수업을 과감히 줄이기로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런데 그 여파는 생각보다 엄청났다. 신도시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이었을까. 초등학교 입학 전 마지막 1년인 7세로 올라가는 학부모들의 불안심리 때문이었을까. 한두 명씩 영어 학원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더니 겨울방학이 끝나고 나서는 한 반의 인원 정도인 20명 넘는 아이들이 유치원을 그만두고 말았다. 유아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수업현장에 적용하고 있었고, 학부모들도 그런 교육과정에 만족하고 있다고 믿어왔기에 나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학부모들도 놀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주위의 분위기를 외면할 수 없기에 사교육을 놓지는 못했던 것이리라 애써 이해해보려 했지만, 힘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생겨난 문제 또한 생각보다 심각했다. 기본적인 반구성과 교사 채용 문제 그리고 재정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줄줄이 이어졌다. 따르릉 전화벨만 울려도 '오늘은 또 누가 그만 둔다고 하려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쿵 내려앉곤 했다. 1월과 2월, 하루하루 아이들의 퇴원 소식에 신경이 곤두서고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갔다. 교사들 또한 학급이

줄어 예상보다 많은 아이들과 활동해야 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듯 했고, 원장인 나는 현실을 내 맘 같이 이해 못해주는 교사들의 모습에 섭섭하기만 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무너져 내리며 좌절하고 있건만 이런 속사정을 남편도 교사들도 몰라주는 것 같아 정말 혼자인 것만 같았다. 한없이 허무하고 외로웠다.

쉬어야 할 일요일 오후, 오늘도 역시 머릿속에서는 '다시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압박감만 가득할 뿐 좀처럼 힘이 나질 않았다. 무기력한 눈으로 멍하니 바라보다가 시선이 머무른 책꽂이에서 아들이 보는 어린이잡지 [개똥이네놀이터]가 보였다. "맨날 맨날 놀고 싶은 진짜 놀이터" 꼭지 중 한 유치원의 '꿈틀움틀 모험놀이터' 이야기가 내 눈을 사로잡았다. 이것도 인연일까? 예전에 파주 도서관에서 나에게 그림책의 묘미를 일깨워 준 유치원 원장님의 이야기가 실려 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까, 누군가의 위로가 간절했던 걸까, 갑자기 원장님을 뵈어야겠다는 마음이 용솟음쳤다. 무작정 안면도 없는 원장님께 전화를 드려서는 "파주 교하도서관 연수에서 원장님 강연을 들었던 교사입니다. 원장님의 꿈틀움틀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직접 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반신반의 하는 마음으로 억지인연의 끈을 만들어 부탁을 드렸는데, 원장님께서는 나를 흔쾌히 초대 해 주셨다. 찾아가는 길의 기차 안에서 내 가슴은 왜 그리 뛰었을까? 숲 놀이 중심의 유치원이니 들이나 숲에 둘러싸여 있겠지 싶었는데 예상과는 달리 유치원은 아파트 입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도 신도시라 학부님들의 요구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특성화수업 하나 없이 유치원이 살아남았을까?' 의아했다.

2월이라 그런지 새 학기 준비로 유치원이 무척 분주했다. 이 바쁜 와중에 손님이 온다는 자체가 참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원장님은

입구에서부터 친동생을 맞이하듯 나의 손을 잡아 주셨다. 궁금했던 시설을 둘러보고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원장님과 이런저런 넋두리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원장님도 참 많은 것을 내려놓고 기다리며 천천히 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누군가 나의 넋두리와 고민을 이해하고 나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 주신다는 그 자체가 나에겐 큰 위로가 되어주었다. 지금의 조급함 대신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천천히 돌아보고 싶어졌다.

밤늦게 돌아오는 기차 창문에 비친 나의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보였다. 짧은 만남 속에서 내가 받은 위로에 감사해하다보니 불현 듯 우리 유치원의 선생님들이 떠올랐다. 원장으로서의 내 단점을 감추고 싶은 마음과 자각하지 못하고 있던 나의 권위적인 모습들, 이로 인해 정작 함께 하는 교사들에게는 이 어려움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 내 맘도 몰라준다며 그저 서운해만 했었음을 깨달았다. 안 그래도 2월 중순이 되도록 반편성도 안된 상태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자책하며 사기가 떨어져 있을 교사들에게 말이다.

다음 날 아침회의 시간 내가 제일 처음 한말은 "선생님들 미안해요. 내가 선생님들과 함께 하질 못한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은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온 이 흔들림은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양보하고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라고 진심을 담아 부탁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마치자 나보다 어린 우리 원감님이 나를 꼬옥 안아주며 말했다. "원장님, 우리가 하려는 행복한 교육! 이번에 정말 한번 잘해 봐요. 떠난 학부모님들도 분명히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품이란 얼마나 따뜻하던지, '나를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구나!' 싶어 가슴이 벅찼다.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누군가 나의 힘든 등을 토닥여 주길 원했던 것 같다. 늘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힘은 우리 교사들이야."라고 말은 했지만 진정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이 흔들림은 한 기관의 원장이 아닌 순수한 한명의 사람으로서 나를 보는 계기가 되었고 '내가 교육자로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지쳐버린 나와 우리 교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었다.

초심으로 돌아가 유치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원장의 인사말을 되뇌어본다.

『일상의 작은 이야기로 그들만의 신나고 재미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아이들!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일상의 특별함을 드러내 주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선생님! 탐색하고, 생각하고, 발견하게 만드는 교실 곳곳의 영역과
놀잇감! 언제나 교육의 중심에 어린이들을 두고 다양한 놀이를 통하여 유아
개개인의 무한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곳! 그런 유치원을 만들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유치원 모든 교사들은 '아이들은 신나게 놀아야 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워야한다'는 생각을 처음 입사할 때부터 늘 들어왔고, 각종 연수와 유치원 학습공동체를 통해 서로 나누며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느끼고 있었다. 더불어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의 놀이 안에서 때로는 좌절을 때로는 기쁨을 맛보며 우리 유치원이 추구하는 '교사다움'에 다가가고 싶어 하고 있었다.

'이제 알겠다. 나와 교사들이 바라보는 방향은 결국 한 곳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가고자 하는 길은 바로 놀이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좌절을 넘어 아름다운 도전을 함께 시작하기로 했다.'

놀이!
그 삶에서
나를 만나는 선생님들

하나가 되어 가는 선생님들

2월은 늘 맺음과 시작의 준비로 너무나도 바쁘다. 그러다보니 새 학기에는 유치원 교육과정 계획의 대부분을 나와 원감이 수립한 후, 교사들에게 전달해왔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 서로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생기는 일이 다반사였다. 이를 반성하고 올해 새 학기부터는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하기로 했다. 그 첫 문을 '함께 만들자'로 열었다. '함께 만들어 감'을 위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소통을 중심에 두고자 했다.

서로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사들이 계획한 연수 중 '원장님 알아가기'란 코너가 있었다. 교사들이 원장에게 무엇이든 질문해보자는 취지의 코너였는데, 나는 내심 걱정이 되었다. 난처한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까, 긴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메모지에서 나오는 질문 하나하나가 참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 중 기억나는 질문 중 하나는

"원장님은 유치원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 하나요?"라는 질문이었다. 일주일 전 나의 힘든 마음을 알아줬던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 때문 이었을까? 바로 "선생님들이죠."이라고 대답했다. 유치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었다. "유치원 생활 중 힘들어서 그만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도 나왔다. 나의 20년 유치원 교직생활을 돌아보며 떠오르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경력 2년차 때 유치원캠프에서 반 아이가 새끼발가락 성장판 파열로 수술을 받은 뒤 2개월 간 그 결과를 기다리며 마음 조렸던 이야기, 유치원 안전사고로 2년간이나 진행되었던 법정소송,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아이의 상처로 인해 교사 생활 그만 하라는 화살 같은 말을 쏘아 붙이던 학부모 이야기 등… 죽을 것 같던 시간들의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 막상 지금의 원아모집 위기는 그렇게 힘든 고비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서먹서먹한 시간이 될까 걱정 했던 코너에서 나의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모두들 울컥 했고, 오히려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연수 둘째 날 내 책상에는 꽃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우리 유치원에서 제일 의견을 많이 내고 바른 말을 많이 하던 5년차 교사의 편지였다.

원장님의 진솔한 이야기에서 큰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힘을 내보자는 고마운 편지 속에서, 나도 그들처럼 교사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상처와
아픔이 선생님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서로를 좀 더 알아가고 이해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존중하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해의 문이 열리고 나니, 경력교사, 신입교사, 초임교사 모두 좀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다과를 즐기는 모습이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나가며 우리에게 함께 고민하기 위해 던져진 질문은 '우리 유치원, 하면 생각나는 단어는 무엇일까?'였다. 서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색깔별로 포스트잇에 각자 생각한 유치원의 장점, 단점, 보완점을 적어 보았다. 선정된 키워드는 '진심, 존중, 성장'이라는 단어로 모아졌고, 마침내 2018년 우리 유치원의 교육목표는 '진심으로 존중하며 성장하자'로 정해졌다.

먼저 교사들이 생각하는 청심 교육의
강점과 약점을 생각해 보았어요.

강점은 빨간 포스트잇, 약점은 파란 포스트잇,
보안점은 노란 포스트잇

이렇게 모아본 강점과 약점을 토대로
2018학년도는 어떤 교육을 하고 싶은지 의견을 모았죠.

우리가 목표로 삼은 성장, 성장은 관계맺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한 관계맺음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지며, 그 속에서 우리는 보다 큰 성장의 힘을 갖는다. 이러한 교사들의 성장기반 역량을 도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공유와 소통이기에 교육청이나 유치원에서는 무엇보다 학습공동체를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힘겹게 시작한 소중한 학습공동체는 보여주기 위한 인위적인 공동체, 즉 피곤한 업무의 연속으로 아까운 시간만 허비하고, 선배교사나 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내 차례가 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스트레스를 받는 피곤한 시간이 되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럼 이러한 피곤한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공동체의 주체가 원장, 원감이나 경력이 많은 선배교사가 아니라 놀이의 가장 큰 환경인 모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자발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학습공동체라고 해서 뭔가 결과를 이루려는 방향이기보다는 그 과정 안에서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나눌 때, 모두들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때로는 풍요로운 유머와 넉넉한 마음으로,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함께 하는 동료 교사들을 품어 주길, 그렇게 우리 다함께 하고 싶어지길, 이러한 소망을 담아 놀이학습공동체를 시작했다.

'놀이의 아름다움'을 찾아다니는 선생님들

놀이학습공동체를 시작하며 나와 교사들은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서 가장 잘 배운다는 사례 및 연구를 함께 살피며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 그리고 그 힘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놀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놀이밥'을 잘 해 주는 놀이엄마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고민을 이어갔다. 설사 정답을 찾지 못할지라도 이러한 우리의 고민 그 자체가 도전이고 열정이라 생각했다.

놀이란, 음… 누군가 시켜서 하는게 아니라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항상 제 어릴 적도 그렇고 항상 팍! 튀는 아이디어에 의해서 시작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거나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그 놀이가 진행되면서 점점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I교사 인터뷰]

놀이란, 스트레스! 잘하고 싶지만 교사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 진짜 마음을 쏟아야죠. 아이들도 그 놀이에 진짜 몰입을 하는 아이와 몰입하지 않는 아이가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교사도 이것에 마음을 쏟아야만 진짜 재미가 느껴지고 즐거움이 있고 길이 보이고 하는데… 가끔 마음을 못 쏟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힘들어요. 마음 쏟는 날보다 안 쏟는 날에 더 스트레스를 받지요. [S교사 인터뷰]

놀이란, 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른들 시각에서 '저게 뭐야' 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왜'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해 내려고 해야 할 거 같아요.
[G교사 인터뷰]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놀이란 무엇인가요?"라는 첫 번째 질문에 교사들은 놀이에 대한 나름의 생각들을 쏟아내었다. 놀이가 '자발적으로 마음을 쏟아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그러한 놀이가 이루어지게 하는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 아이들의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드리는 수용적 태도로 함께 놀이를 해보는 것, 놀이의 모습을 관찰하고 적절한 환경과 매체를 지원하는 것, 그리고 놀이의 맥락을 이어주기 위한 놀이를 공유하고 회상해주는 것 등 정말 많은 역할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많은 역할들에 대해 생각하다보니 결국 놀이의 가장 큰 환경은 '교사'라는 의견이 모아졌고 교사인 우리부터가 놀이를 배워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놀이를 배우는 선생님'이란 말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교사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자세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 곁에는 '놀 줄 아는 교사'가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놀이학습공동체를 통하여 '잘 놀 줄 아는 교사'로 거듭나기로 했다.

'잘 놀 줄 아는 교사'가 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교사들은
기록으로 남긴 놀이일기를 공유하기로 했다.

어렸을 적 우리는 강제로 쓰는 일기를 무척 싫어하면서도 간혹 나에게 기쁜 일, 나만 간직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친구이야기 등은 자진해서 일기장에 한 가득 쓰고는 열쇠로 채워놓곤 했다. 어른이 되어 꺼낸 일기장 속 이야기에 너무나도 유치해하면서도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나? 하며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다.

놀이일기도 마찬가지다. 놀이를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기록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런 순간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 반의 놀이일기다. 기록은 아이들의 놀이상황과 아이의 발달 상황, 흥미를 해석하고 다음 놀이를 지원해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에 너무도 중요함에 대해서는 모두들 알고 있었다. 다만 문제는 기록의 방법이었다. 아이들의 모습과 말을 카메라와 녹음기로 촬영 또는 녹취 하거나 영상과 녹음한 것을 다시 보면서 나만의 자유로운 형식으로 기록하는 방법들이 있음을 스스로 찾아내면서도 생각보다 이런 기록이 쉽지 않음을 교사들은 서로 고백했다. 기록이 잘 안될 때 놀이가 잘 안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어 자신의 무능력을 탓하게 된다는 자존감 꺾인 이야기에 원장으로서 미안한 마음마저 들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보기 위해 하루는 그저 각자 학급에서 아이들의 놀이 중 한 장면을 사진으로 찍기도 했다. 기존의 놀이 이야기 기록 없이 서로 사진만을 공유 해보기로 한 것이다. 사진에 나온 유아들에게 말풍선을 달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각자의 해석이 너무나 달라 웃음이 폭발했다. 담임교사는 그 놀이 상황을 잘 알고 있었지만 처음 보는 교사들은 모르고

있었기에 저마다의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해석의 과정에서 달리 보이는 놀이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했다. 놀이의 중심에서 보이지 않던 저기 한쪽 가장자리 있던 아이의 모습을 새로이 발견할 수도 있었다. 그저 사진 한 장 찍어보는 어렵지 않은 기록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나눌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록이란 누군가에게 검사 받거나 계획안에 넣고자 쓰는 인위적이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고 되새기며 나눔으로써 새로운 시선을 느끼게 해주는 소중한 일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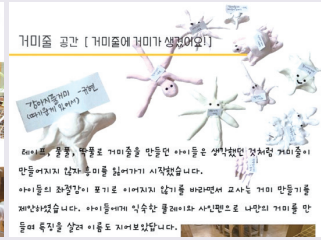
선생님들에게 기록이란?

'나는 아이들의 놀이가 이해가 안 돼서 재미가 없지만, 왜 이 놀이를 좋아하는지 같이 궁금해 하는지 찾아 가는 것'

'교사가 선호하지 않는 놀이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노력하게 해주는 것'

'옆에서 다른 말을 외치는 아이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

'아이들의 가슴 속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



'잘 놀 줄 아는 교사'가 되기 위해 우리는 직접 놀잇감을 맛보기로 했다.

놀잇감을 오감으로 느끼고 궁금증이 생기면 시도하고 풀어보면서 실패의 경험과 성공의 경험을 맛보게 하는 과정이 바로 놀이라면, 우리도 직접 그 과정을 경험해보자는 선생님들, 그 적극적인 제안이 반가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놀잇감을 맛보면 좋을까요?" 각자 교실 속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던 교사들은 사실 아이들은 만들어진 장난감보다는 자신들이 찾거나 만든 놀잇감을 더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오르다 교구가 있어 보드게임을 하지만 그 옆에 자신들이 종이에 직접 그리고 만든 보드판을 가지고 더 잘 놀기도 한다는 것이다. 놀다가 더 어려운 함정도 만들고 벌칙도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아이들에게 이 놀잇감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은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우리는 아이들에게 오감을 통해 탐색하고 집중할 수 있는 주변의 다양한 매체를 제공해보면 좋겠다 싶었다. 이를 위해 일상의 매체,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자연물을 비롯하여 어떻게 놀아야 할지를 생각해보게 만드는 놀잇감들을 교사들이 먼저 맛보기로 했다.

만약 교사들이 놀잇감의 맛을 보지 못한다면 주변의 수없이 많이 널려있는 놀잇감은
그저 쓰레기에 지나지 않겠지만, 교사들이 놀잇감의 맛을 알게 된다면 주변의 모든 것들은
소중한 장난감이 되어 아이들에게 전해질 테니 말이다.

이 재미있는 생각으로 직접 놀잇감을 맛보는 교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이들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사들도 아이들처럼 직접 놀잇감을 탐색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교사들과 생각을 나누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다. 그 과정에서 내게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것은 교사들의 표정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이던 표정의 교사들은 놀잇감에 대한 자신들의 시도가 성공 할 때마다 박수까지 치며 기뻐했다. 그저 정답이 없는 주변의 놀잇감을 가지고 잘 놀다 보니 아이들과 똑같은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놀이의 즐거움을 느껴본 교사와 아이들의 놀이 속 즐거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교사의 놀이 속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놀잇감을 맛보는 동안 교사들이 발견한 새로운 사실과 이 기쁨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리라 믿는다.

위로라는 말로
놀이의 힘을 저장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언젠가 비 오기 전 날, 한 선생님이 나에게 "원장님, 우리 만4세 반들은 내일 장화 신고 우비 입고 비 맞으러 산책 나가려고요!"라는 말을 던졌다. 처음 해보는 빗 속 산책이라 나름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원장인 나는 굳이 계획안을 점검하며 계속해서 안전문제에 관해서만 말했다. 나름 새로운 시도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를 듣고 싶었던 교사의 마음을 읽어 주지 못하고 계속 지적만 한 것이다. 돌아보니 나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며 선생님들의 계획안에 내 생각을 빨간 펜으로 빼곡하게 채워가는 아집 가득한 원장이 아니었나 싶다. 지쳐가는 교사에게는 공감하고 위로 해 주기 보다는 그냥 "교사니까 책임이 중요해요. 참고 견뎌주세요." 라고만 했던 원장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원장으로서 참 많이 부족한 모습이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사랑스런 아이들이 조금씩 꿈을 키워 가며 성장하는 모습에 가치를 두며 교직 생활을 시작한다. 그런데 막상 교직에 들어서면 내가 꿈꿔왔던 교사로서의 가치는 잊은 채 어느 샌가 그 유치원의 분위기대로,

아니면 선배 선생님의 눈치, 원장이나 원감의 지침에 따라 숨 가쁘게 달리게 마련이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하는 공허함으로 슬퍼하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필연적으로 찾아올게다. 물론 나도 이 길을 걸어오면서 똑같은 경험을 했다. 놀이중심교육을 하라고 하니까 '수업을 재밌게 해야 한다'라는 광범위하고도 당위적인 목표 아래 매일의 수업준비와 개성 가득한 아이들과의 씨름, 그리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학부모의 말로 인한 상처들로 점점 지쳐가고 있을 것이다. 교사들에게 나는 언제나 놀이수업을 잘하려면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야 줘야 한다고 항상 말해왔건만… 정작 원장으로서의 나는 교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교사들의 마음을 읽어주려 애 썼던가? 아이들은 행복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놀이를 한다. 그런데 놀이를 함께 하는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감정조차 잘 못 살피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놀이교육을 하라고 한 것인가? 문득 내가 '가짜놀이'를 권유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적어도 놀이중심교육을 실천하는 유치원의 원장이라면 교사를 '교사'로 바라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함께 위로하고 존중하며 사람으로 함께 만나야 했다. 나를 변함없이 지지해 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이러한 위로는 건강한 놀이의 힘을 만들어 준다. 잘 놀 줄 아는 행복한 교사들이 있는 우리 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원장의 역할은 계획안 점검이 아닌 위로와 격려, 지지와 응원임을 잊지 않기로 다짐한다.

원장과 교사가 아닌 한 사람과 또 한 사람, 우리 같이 이야기 하고
웃고 떠들고 어울리다 보면 어느 새 서로에게 따뜻한 이해와 우정이 생기고
놀이를 위한 힘으로 차곡차곡 저장되리라 믿는다.

우리는
더
나아지는 중입니다

오늘도 나와 교사들은 유치원교사라는 삶의 밭에서 아이마다 가지고 태어난 소중한 씨앗을 가꿔 주기 위한 놀이거리를 찾아 하루를 시작한다. 유치원 교사로서 '교사다움'을 만들어 가는 길이 '잘 노는 선생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조금은 느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말 내가 야심차게 준비한 놀잇감에 아이들이 흥미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아이들의 놀이가 너무 이해가 안 되서 고민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고민의 모습 또한 '교사다움'을 만들어 가는 길이라고 본다. 그 길을 알기 까지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의 흔적이 쌓이고 쌓여 우리에겐 드디어 놀이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놀이학습공동체가 계속되며 나와 교사들, 우리는 서로에게 멋진 놀이친구가 되었다. 놀이친구가 내게 놀 수 있는 힘이 되어줌을 경험한 우리들은 놀이친구의 소중함을 안다. 아이들에게 친구가 많아지면 더 재밌는 놀이가 만들어지듯, 우리도 좀 더 용기를 내어 '나의 놀이친구'를 많이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 이거 하나 줄까?"라고 먼저 손을 내미는 아이들처럼 친구를 만들려면 먼저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나눔'이 있어야 하는데… '친구를 위한 나눔'이란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도할 작은 나눔은 곧 더 풍요로운 나눔이 되어 돌아올 것을 알고 있기에 나와 우리 교사들은 '놀이 나눔'을 준비하기로 했다.

더 많은 '놀이친구'를 만나기 위해 시작한 놀이 나눔!
처음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나 "나랑 놀래?"라는 말을 건네던 그 때 만큼이나
큰 용기가 필요했고 마음이 무거운 도전 이였다.

우리의 놀이를 나눈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어야 할까? 언젠가 교사들이 아이들의 놀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외부 학습공동체 모임을 다녀온 적이 있다. 그런데 막상 모임을 다녀오니 유치원에는 갑자기 필요한 물건이 많아졌고, 많아지는 물건과 함께 교사들의 얼굴에는 부담감이 짙어지기 시작했다. 완벽주의자처럼 뭔가를 끊임없이 열심히 정리하면서 교실 환경이 차츰 바뀌어 가는 모습이 보이기는 했는데, 정작 교사와 아이들이 그로 인해 더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다.

또 언젠가는 나눔을 위해 우리 유치원을 외부교사들에게 공개 한 적이 있다. 열심히 이 곳 저 곳 둘러보던 한 교사가 나에게 "미술관에 놀러 왔다 간 기분예요. 저희는 하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라고 말끝을 흐리며 시간 낭비했다는 표정으로 가버리는 것이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어, 이게 뭐지? 우리 교사들도 다른 곳에 갔을 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나눔은 결국 서로 믿어주며 힘이 되는 놀이친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열등감을 갖게 하거나 자존감을 더 낮게 만드는 비교 대상을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다. 이런 나눔이라면 진정한 나눔이 어렵겠 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사들의 놀이 친구란 그저 잘 논다고 자랑하는 친구가 아니라 함께 하고 싶은 친구가 아닐까? 때로는 놀이가 전개되지 않아 고민스럽고, 때로는 기쁨이 가득 찬 놀이를 자랑하고 싶을 때, 옆 친구가 되어 수다로 그 기쁨을 나누면서 행복을 찾게 해주는 그런 친구 말이다. 그런 놀이 친구가 되기 위해 교사들과 '놀이 나눔'을 준비하며 이야기 하다 보니 이번 '놀이 나눔'의 방향이 보였다. 분석의 시선으로 찾아오거나 부담스러운 얼굴로 돌아가도록 하는 만남이 아닌, 정말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찾은 기쁨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나눔의 시간을 만들기로 했다. 어쩌면 '이렇게 함께 모여 나눈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교사도 있을 것이고, 뭔가 큰 변화를 기대하고 찾아오는 교사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조바심을 내며 대단한 변화를 이루는 것 대신, 그냥 놀이에 관심이 있고 마음이 통하는 놀이 친구를 더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더하기를 권유하기 보다는 지친 마음을 가진 교사 친구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놀이 나눔 잔치 당일, 그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인 '놀이 나눔'을 준비한 교사들과 그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모인 많은 교사들로 유치원의 넓은 강당이 가득 찼다. 덕분에 우리는 부족하지만 뜻깊은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저 우리의 놀이 속 이야기를 전하고 그 안의 고민과 아이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을 뿐인데 함께 공감해주고 궁금해 하며 의미를 찾아주는 놀이 친구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고마움을 느꼈다. 놀이 나눔이 끝난 후에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떠나보내는 심정으로, 우리의 다음 놀이 만남을 기약하며 돌아가는 선생님들을 배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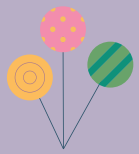
'놀이 나눔'을 마친 교사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벅차보였다.

해보겠다는 마음하나로 자발적으로 시작했지만 사실 준비하는 일이 만만치는 않았다며, 그래도 일 년의 놀이수업을 되돌아보는 과정만으로도 뿌듯했다는 I교사, 내가 경험한 좌절과 기쁨을 다른 교사들과 나누면서 '도전'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당찬 내 모습에서 더 나아지는 자신을 발견 할 수 있었다는 S교사, 초라하게만 느껴졌던 내가 누군가에게 교사로서 행복한 삶의 길인 놀이를 안내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기뻤다는 G교사, 모두들 한 뼘 더 성장한 모습으로 잘 놀았던 한 해를 마무리했다. '놀이 나눔'에 참석했던 교사들이 발표한 I교사와 S교사, G교사의 삶을 얼마나 온전히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좋은 놀이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우리의 진심은 전해졌으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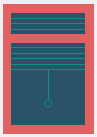
아침마다 나는 유치원 정문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눈을 보며 "오늘 재밌게 놀자"라는 아침 인사를 한다. "놀자"라는 한 마디에 아이들의 표정이 더욱 신나고 행복해 보인다. 오늘도 나와 교사들은 아이들과의 아침인사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로의 놀이 친구가 되어 놀이를 만나며 즐긴다. '가르쳐야지'라는 생각 대신 '재밌게 신나게 놀아야지'라는 마음으로, 놀이에 대한 고민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으며, 조금씩 더 나아지는 중이다.

나는 소망한다. 교사들에게 이 일터가 그들의 놀이터가 되기를…. 아이들의 놀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듯, 우리도 놀이할 때의 그 두근두근한 순간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일터가 아닌 놀이터로 놀러 왔다.

"자, 우리도 놀자!"



Epilogue



즐거움, 주도성, 선택, 과정지향… 놀이의 특성이 다양하듯 여섯 명의 교사들이 들려준 놀이 이야기도 조금씩 내용은 달랐다. 각기 다르기에 더욱 아름다운 놀이 성장기였다. 교사들의 이야기 색깔은 저마다 독특하였다. 그러나 그 결은 무척 닮아 있었다. 교사들의 놀이 성장기 이야기 속의 공통된 생각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사들은 모두 유아를 존중하는 태도를 지녔다.

교사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여섯 명의 교사들 모두 유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교사들은 유아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존중하였고, 그들의 감정을 수용하였고, 저마다의 다른 생각들도 귀하게 여겼다. 사실 교사들은 비단 유아들만 존중한 것이 아니었다. 이 자료의 개발과정은 개별 작성, 온라인상에서의 공유, 지속적인 직접 만남의 순환적 과정이었다.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기에 여섯 명의 교사들은 각자가 작성한

이야기를 읽고, 서로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연구자들도 그러했는데, 이야기를 통해 만난 교사들의 첫 인상은 '따뜻함'이었다. 실제로 세 번의 만남을 통해 긴 시간 대화를 나눈 소회 역시 진정으로 따뜻한 교사들이라는 점이다. 교사들은 자신과 다른 견해와 상이한 실천에도 단 한 순간도 반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 다름을 받아들이고, 존중하였다. 교사들이 유아를 존중하는 태도는 타인 존중이 기저에 깔리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놀이 성장기는 어쩌면 따뜻한 사람들이 만든 놀이 이야기 담론이라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다.

교사들은 놀이와 배움의 의미를 함께 찾으려고 하였다.

교사들을 처음 만났을 때 각자가 생각하는 놀이와 배움의 정의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그들은 주저하였다. 확신이 없었을 수도 있고, 자신만이 정립한 정의를 처음 만난 낯선 타인에게 공유하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놀이와 배움에 대한 견해와 실제가 그만큼 상이하기 때문이리라. 어쩌면 서로의 글에서 확인하였던 유아들의 놀이와 교사의 지원 양상이 달라서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섯 명의 교사들은 점차적으로 놀이와 배움의 의미를 드러내고, 그 의미를 함께 확장시켜갔다. 교사들은 자신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실패담을 털어놓고, 유아들의 놀이를 바라보던 관점의 변화를 공유하고, 개입과 지원 방안에 대한 맥락을 설명하였다. 그러한 과정은 서로의 놀이와 배움에 대한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 차례의 만남은 상호주관성을 넓혀가는 시간임과 동시에 한 단계 성장하는 장이 되었다.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놀이와 배움의 의미를 성찰하고자 하는 열정을 보였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였다. 유아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놀이'라고,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움'이 일어난다고… 그러나 여전히 계속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이라고 말이다.

교사들은 모두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 실패를 경험하였으나 이겨내었다. 그러나 여전히 고민은 계속 진행 중이다.

여섯 명의 교사들의 이야기에는 공통적으로 실패담이 담겨있다. 너무 아파서 그 노력을 멈췄을 만도 한데 그들은 또 다시 부딪히고 다시 일어났다고 한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교사는 홀로 외로이 끝없이 배우며 스스로 깨우쳐갔다고 하였고, 또 다른 교사는 유아들에게 귀 기울이고, 깊이 들여다보면서 조금씩 더 좋은 해결방안들을 찾아갔다고 하였다. 이렇듯 교사들은 혼자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하였고, 때로는 동아리, 동료교사, 부모들과 함께 고민을 해결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났다고 하였다. 처음에 비하면 스스로 대견하리만큼 성장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교사들은 여전히 더 나아지고 있는 중이라고 자신을 낮추었다. 아마도 유아들과 일상을 나누는 이 생활이 끝나는 날까지, 유아들의 놀이를 지켜주려는 마음이 다하는 날까지 고민과 실패와 극복은 멈추지 않을 것 같다고 한다. 고민, 어려움, 실패를 예견하는 그들의 말과는 달리 표정만은 참으로 밝다. 설렘마저 간직한 밝은 미소라니… 극복의 힘이 바로 저것인가 싶다.

교사들은 현장의 상황과 맥락을 잘 받아들였다.

여섯 명의 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 교육현장이 유아들의 놀이중심교육에 최적화된 최고의 환경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몇몇 유치원은 열악하고, 치열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어려운 곳이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좌절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현장의 상황과 맥락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기를

기회를 받아들이고, 위기 속에서 빛나는 가치를 찾았다. 이러한 교사들의 모습은 마치 바위틈에서 스스로 씨앗을 피워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야 마는 들꽃과 닮아있었다.

교사들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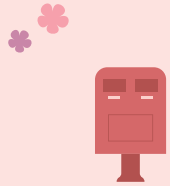
여섯 명의 교사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유아들의 놀이, 교사의 성찰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대부분 유아들의 놀이 모습을 담은 사진과 그 상황과 내용을 기록한 짧은 메모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다. 심지어 어떤 교사는 20년 전에 유아들과 나누었던 대화 기록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교사는 자신의 SNS, 일기장 등에 남겼던 수많은 에피소드를 공개하기도 하였다. 두드러진 점은 교사들이 자신의 교수실천에 대한 성찰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자신의 놀이 성장기를 써내려가고, 그 속에 과거에 경험했던 행위와 사건들의 의미를 생생하게 담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닌 기록을 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기록이 있었기에 보다 정선되고 성찰된 이야기가 재생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10년, 20년 동안 교사로서의 삶과 유아들의 놀이에 대한 흔적을 지속적으로 남긴다는 것이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였다. 그 날의 경험과 의미를 소소하지만 자유로운 형식으로나마 남겨놓는 것만으로 그 시절 나와 유아들을 만나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다고 말이다. 지난 10년이 아니어도 어떤가? 우리에게는 남은 10년, 20년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놀이성장기 글쓰기와 직·간접적인 만남 속에서 수 많은 대화를 통해 놀이와 배움의 과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지난 세월의 놀이와 교육의 생생한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읽어 내고 그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의식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하였다. 특히 과거에 우리가 누구였고,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미래에는 어떤 모습을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머리와 마음이 일깨워져 놀이교육중심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생성할 수 있었다. 진정한 의미의 놀이중심교육을 제대로 실천되기 위해서 교사는 주체성을 갖고 놀이와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되풀이해서 계속 성찰하고 탐구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과 실천을 통한 교실은 희망, 기대, 가능성의 장이 될 수 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 자료집을 끝까지 읽고 머리와 가슴으로 울림이 있었던 여러분들도 이야기의 주체가 되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할지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과 가치관이 드러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란다.

윤민아(호남대학교)



집필진

- **문무경** |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 **강은진** |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 **도남희** |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 **박원순** |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 **김희수** | 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 **김 호** | 교수(경인교육대학교)
- **윤민아** | 교수(호남대학교)

연구협력관

- **문복진** | 연구관(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 **김미진** | 교육연구사(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놀이실천을 위한 교사의 여정

발행일 2019년 2월

발행처 교육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www.moe.go.kr

인쇄처 경성문화사(02-786-2999)

이 책을 무단전재 또는 복제 행위 시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놀이실천을
위한
교사의
여정

ISBN 979-11-90485-46-3